KEMC 60 Years History

제1부 통사

제1장
불을 밝히다(1962~1976)

제2장
드넓은 곳을 비추다(1977~1988)

제3장
더욱 밝은 곳을 보다(1989~1997)

제4장
변화를 선도하는 빛(1998~2006)

제5장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다(2007~2014)

제6장
창립 60주년과 비전(2015~2022)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전기공업인들이 모여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0년의 역사 속에는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제1장

불을 밝히다

1962 — 1976

전기공업 발전과 조합원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큰 걸음

01 대한민국 전기공업을 주도한 60년 역사의 힘찬 첫걸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탄생

전기공업 발전과 사업자 공동 이익을 위한 최초의 단체, 대한전기공업통제협회 설립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KEMC: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Cooperative)은 설립 이래 지난 60년 동안 국내 전기공업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상호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협동사업 및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업무는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상표·교육·서비스 등의 공동사업 운영, 조합원 간의 사업 조정 및 조합 사업 분야 침해에 대한 주무관청 조정 신청, 조합원 생산제품에 대한 산업 표준화 및 품질경영 지도와 조사연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에 관한 사업, 공동브랜드를 이용한 사업 추진, 중전기기 기술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심층적이다.

조합의 지난 역사는 중전기 업계를 이끄는 모범적인 선도 조합의 역할과 긍지를 확고히 하고, 기술개발과 제품 표준화로 조합원의 판로 확보와 공

동 이익을 적극 전개한 의지와 열정의 시간이었다. 그 부단한 도전과 성취의 첫걸음은 60년 전인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이어진 전기·전력산업의 부단한 변화가 있었다.

1945년 8·15 광복 후 우리나라 전기공업인들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국내 전기공업의 계획생산과 생산 증가, 품질 향상, 수급 조절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각 전기회사의 공동 이익을 위해 1949년 9월 6일 사단법인 대한전기공업통제협회를 설립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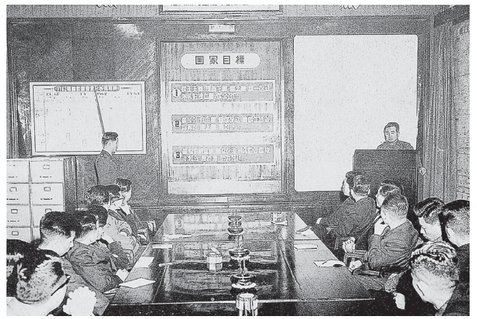
- 생산계획의 수립 및 건의
-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물자의 계획공급
- 생산의 지도연구 및 조사
- 제품의 검사
- 제품의 수급 조절 및 알선
- 정부에서 명령하는 사업

8·15 광복 후
우리나라 전기공업인들은
대한전기공업통제협회를
설립하여 국내 전기공업의
발전과 각 기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8
조합 설립의 밑거름,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률 제정

대한전기공업통제협회는 1954년 9월 18일 명칭을 사단법인 대한전기공업협회로 변경하고, 전기공업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된 힘으로 업계의 경기 회복과 당면한 애로사항을 극복·타개하며 대정부 건의와 소통의 창구로서 다각적인 자구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해 세제 및 금융 면에서 큰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바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근거 마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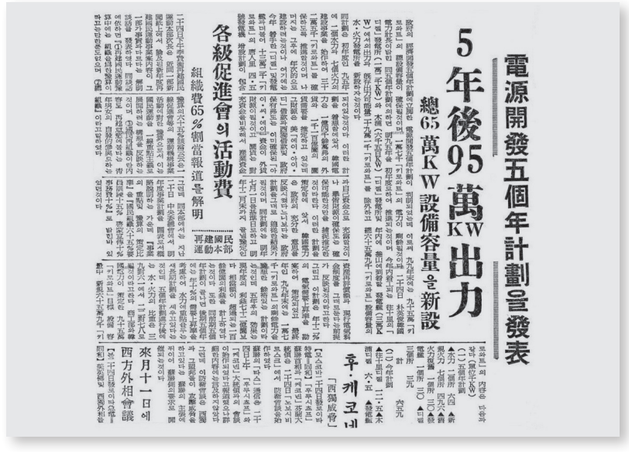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는 1956년 8월 15일 제3대 이승만 대통령이 중소기업 육성 촉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9년을 전후하여 중소기업 육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업계도 그 대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진흥금융



1962.01.13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공고법·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제정·시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1961년 7월 1일 중소기업 관계법으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이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해 12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사업조성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어 1962년 2월 9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2월 15일에는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공포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률의 제정을 지켜보던 국내 전기공업계 관계자들은, 이 시기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주목하고 있었다.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력의 확보와 개발이 최우선 과제였다. 산업경제가 발전하려면 먼저 전력을 확보해야 하며, 따라서 전력산업은 모든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 자원 개발과 전원개발계획까지 병행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기공업 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1961.11.25
전원개발 5개년 계획 발표를 알리는 신문기사


電源開發五個年計劃을發表
5年後95萬KW出力
總65萬KW設備容量을新設
各級促進會의活動費
組織費65%割當報道를解明
民部 國本 建動 再運
來月十一日에
西方外相會議

특히 체신부는 이 시기에 전화(電化) 촉진정책인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962년 지방 통신시설의 보급, 전신전화시설의 확장, 전신요금의 현실화, 통신기재 분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본격화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전기공업계의 유일한 친목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공업협회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전력 확보와 개발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자, 대한전기공업협회는 한국 전기공업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바로 조합 설립 작업이었다.

1962년 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무부서인 상공부를 비롯하여 중소공업중앙단체연합회와 대한전기공업협회 등 35개 업종으로 분류된 각 협회에서는 서둘러 조합 설립에 관한 제반 업무의 수속절차에 들어갔다.

8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0년 역사의 서막

_전기공업자, 한자리에 마주 앉다

전기공업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추진하던 대한전기공업협회는 1962년 3월 20일 제7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설립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했다. 이 안건은 참여 회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사무소는 대한전기공업협회 내에 둔다.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창립준비추진위원회를 대한전기공업협회 회원과 동회(同會) 전무이사로서 임명한다.
- 동 추진위원회 대표로는 황청송(黃淸頌) 협회장으로 하고, 동 창립준비추진위원회 실무 집행은 한호근(韓鎬根) 전무이사가 담당키로 한다.
- 창립 발기인은 전기공업 부문별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여 14명을 선출한다.

이 설립 안건에 따라 총회에서는 대한전기공업협회 황청송 협회장을 대표로, 한호근 대한전기공업협회 전무이사를 실무 담당자로 하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14명의 조합 설립 발기인을 선임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전력 확보와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 전기공업인들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했다.

장병찬(이천전기공업㈜)	최준규(삼양전기공업㈜)
김광준(국제전기기업㈜)	이호식(조선전구공업사)
강경식(국제전기㈜)	손용구(대한전구제작소)
김지욱(대한전선㈜)	배형기((합자회사)흥아전구공업사)
김정도(중앙전선㈜)	성두현(신광기업㈜)
박승찬(㈜금성사)	장용운(수도전업사)
장병만(장안공업소)	배윤형(한국특수전구제작소)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준비추진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4조 규정을 근거로 조합 창립총회 개최에 필요한 정관과 기타 여러 수속절차 등을 준비했다.

창립준비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기인총회를 개최한 것은, 제7회 대한전기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을 의결한 지 8일 만인 1962년 3월 28일이었다. 이날 발기인총회에서는 장병찬(張炳贊) 이천전기공업 대표이사를 발기인 대표로 선출하고, 정관 심의, 출자금 결정,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와 함께 조합 내에 분과 부회(部會)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합 설립 촉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창립 준비기금 각출을 결의했다.

8

한국의 전기공업을 주도할 국내 유일의 사업자 단체 탄생

_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설립

1962년 4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1번지 명동 자성빌딩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 35명의 업체 대표가 결연한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리였다. 임시 의장으로 선임된 장병찬 이천전기공업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조합 설립 취지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가속 발전이 기약되는 긴요한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에 따라 단체적인 결속으로 전기공업동업자 상호 부조의 정신 밑에서 제반 애로를 개척하며 각기를 위한 협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기공업자의 자주적인 경제적 활동을 조장하여 전기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도하며, 아울러 동업 권익을 위한 집성체로써 본 협동조합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후 경과보고를 거쳐, 발기인들이 마련한 정관 초안 및 규정안, 1962년 1차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 7개 조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임원 선출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초대 이사장에 장병찬 이천전기공업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임했다.
초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이사장

장병찬(이천전기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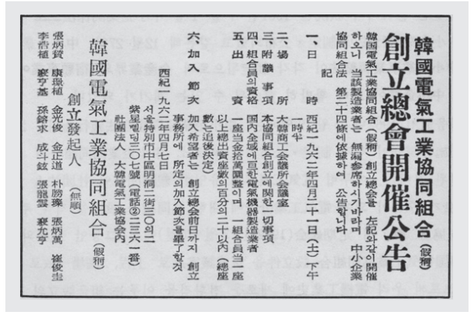
• 상무이사

한호근(사단법인 대한전기공업협회 전무)

• 이사

강경식(국제전기㈜)
김정도(중앙전선㈜)
박승찬(㈜금성사)
장병만(장안공업소)
손용구(대한전구제작소)
배형기((합자회사)흥아전구공업사)
성두현(신광기업㈜)
장용운(수도전업사)
배윤형(한국특수전구제작소)
정덕계(일광소자공업)

1962.04.2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창립총회
•
1962.04.13
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假稱)

創立總會開催公告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假稱) 創立總會를 左記와같이開催하오니 当該製造業者는 無漏參席하시기바라며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二十四條에依據하여 公告합니다

記

一、日 時 西紀一九六二年四月十一日(水) 下午一時半
二、場 所 大韓商工会議所会議室
三、附議事項 本協同組合創立에関한一切事項
四、組合員의資格 国内全域에있어電氣機械器具製造業者
五、出 資 一組当金壹萬圓整의이며 一組合員当一座以上을出資하여야하며 一組出資額의百分의二十以內 (總座數로追後決定)
六、加入節次 事務所에 所定의加入節次書를提出할것 創立總会前日까지 創立

西紀一九六二年四月七日

서울特別市中區明洞二街三〇의二
發起人 大韓電氣工業協会內
社團法人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假稱)

創立發起人 (無順)

金光俊 金正道 朴勝琳 張炳萬 崔俊圭
李奇福 裵守基 孫錦求 成斗鉉 張龍雲 裵九亨

이어 창립총회에서는 출자 총 계좌 수를 '조합원 인수 계좌 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제1회 납입금액(조합 회비)은 1개 계좌 금액의 1/4로 하되 납입 기일과 납입 장소는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30-2번지 대한전기공업협회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창립총회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명실공히 전기공업계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전기공업을 주도해 갈 국내 유일의 사업자 단체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되었다. 그 막을 연 4월 21일, 그날은 조합 창립총회일로 모든 조합원의 마음속에 장구히 새겨졌다.

상호 부조의 정신으로 전기공업의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도한다 _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힘찬 첫걸음

창립총회 후 약 보름 만인 1962년 5월 3일,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따라 상공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5월 21일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8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8월 29일에 설립 신고를 했다.
이렇게 법적인 설립절차를 마무리한 조합은 창립취지문에서 밝힌 '전기공업동업자 상호 부조의 정신 밑에서 전기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도한다'는 설립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힘찬 걸음을 함께 시작한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은 40개 회사 대표들이었다.

설립 당시 조합원 현황

업체명	기업형태	생산제품명	월 생산력(천개)	출자 계좌 수
이천전기공업(주)	법인	전동기·변압기	319,375	30
국제전기기업(주)	법인	변압기	90,000	20
국제전기(주)	법인	변압기	66,900	20
세명전기회사	개인	변압기	40,320	8
협화전기공업(주)	법인	변압기	37,100	1

업체명	기업형태	생산제품명	월 생산력(천개)	출자 계좌 수
동성전기사	개인	변압기	10,500	1
대영전업사	개인	변압기	9,000	5
공영전업사	개인	변압기	7,500	1
부영전기사	개인	변압기	6,150	1
삼화전공사	개인	전압조정기	50,000	15
대한전선(주)	법인	전선	2,890,000	1
광화전업사	개인	전선	257,500	1
중앙전선(주)	법인	전선	38,500	1
(주)금성사	법인	배선기구	5,000	3
장안공업소	개인	배선기구	20,640	3
삼양전기(주)	법인	배선기구	36,920	1
조선전구사	개인	전구	22,500	1
일광초자(주)	법인	전구	5,500	1
대한전구사	개인	전구	5,500	1
문화특수전구사	개인	전구	5,500	1
대광전구사	개인	전구	4,750	1
천광전구사	개인	전구	4,200	1
동양전구사	개인	전구	5,000	1
아세아전구(주)	법인	전구	18,000	1
대동전구사	개인	전구	5,500	2
동화전구사	개인	전구	3,850	1
무학전구사	개인	전구	6,300	1
대광전구사	개인	전구	11,700	1
한국스파이얼사	개인	전구심선	2,000	1
옥고전구사	개인	전구	5,500	1
신광기업(주)	법인	형광등	66,500	5
수도전업사	개인	형광등	50,000	5
자유전업공사	개인	형광등	30,000	5
송도전공사	개인	형광등·전선	72,200	3
시온전기공장	개인	형광등·전선	20,470	1
주광사	개인	형광등·전선	31,250	1
대한형광사	개인	형광등·전선	7,000	1
조선기업사	개인	형광등·전선	11,800	1
한국특수전구	개인	형광등·전선	16,000	1
진해축전지사	개인	축전지	633,250	1

Story on History #01

정전기에서 에디슨까지, 경복궁에서 한국전력까지

전기산업 및 전기공업의 역사

인류가 맨 처음으로 알게 된 전기, 정전기

전기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기의 작용이 인정된 기록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산화철 광물인 자철석(磁鐵石)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이에 따라 쇠를 끌어당기고 자기력을 이루는 성질이 있는 지남철(指南鐵)을 만들어 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또한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에서는 노란 광택을 내는 호박(琥珀)을 천에 마찰시켜 전기를 일으키는 실험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인류가 맨 처음으로 알게 된 전기는 정전기(靜電氣, Static Electricity)로서, 고대로부터 호박 등과 마찰하면 털을 끌거나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전기, 인간의 새로운 빛이 되다

이 같은 전기의 역사는 이후 2,000년 뒤에 다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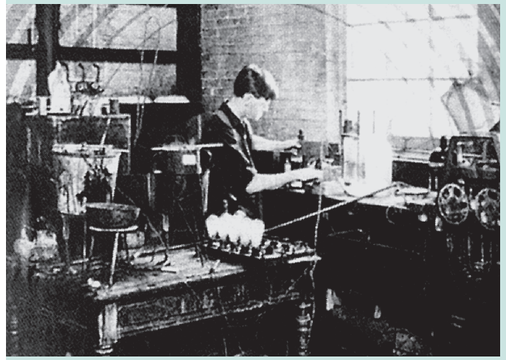
1660년 독일의 게리케가 진공의 힘을 보여 주는 실험과 함께 정전기 발전기를 발명함에 따라 비로소 본격적인 전기 연구가 시작되었다.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으로 유명한 영국의 뉴턴이 1746년에 만든 정전기 발전기는 커다란 바퀴를 이용해 여러 개의 유리 공을 회전시키면서 비단 실에 매달린 포신과 칼을 도체로 이용했다. 이 밖에 손 대신 가죽 쿠션으로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도 있었고, 1785년에 만들어진 장치는 토끼 가죽을 이용하기도 했다.

전기와 관련된 실험은 18세기에 들어서며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네덜란드의 판 뮈스헨브루크와 독일인 폰 클라이스트는 1744년경에 각각 독자적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냈다. 병의 일부분을 물로 채우고 코르크 마개에 연결된 금속 막대가 물에 잠긴 형태인 이 용기는 전기를 저장하는 단순한 구조의 장치로서, 병의 외부를 금속으로 둘러싸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다진 벤자민 프랭클린은 1752년 번개가 전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기에는 양 또는 음의 두 종류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프랭클린이 발명한 피뢰침은 번개의 공포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이탈리아의 볼타는 1800년에 아연·구리·종이판을 소금 용액 속에 쌓아 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1821년 영국의 데이비는 볼타전지 2,000개를 접속시켜 전도선(傳導線) 끝에 탄소를 달아 아크 방전을 시켜서 당시 가스등의 빛과는

에디슨 전구공장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을 얻는 데 성공했다. 전기조명의 시초였다.
전기화학이나 전기조명은 대량의 전류가 필요했다. 이에 1870년경부터 발전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862년 발전기 설치, 1879년 실용적인 탄소전선구(炭素電線球) 및 전화 송신기 개발, 1880년 신식 발전기와 전등 부속품 개발, 1881년 전차 실험, 1882년 발전소 건설 등 미국 토머스 에디슨의 '전기 신화'로 이어진다.

"전기 도입이 조선을 새로운 강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_경복궁에 밝힌 첫 전기등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설비는 개항과 함께 정부 주도로 도입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의 개항이 시작되면서 일본과 미국 등을 오가는 수신사나 유학생의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다양한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경험은 '전기 도입이 조선을 새로운 강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1882년 수신사 박영효는 일본의 전신국 및 전기 기계 등을 돌아보고 온 후 이를 조정에 보고했으며,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신사유람단 일행도 전기창에서 전기와 관련된 공부를 한 후 조선으로 돌아올 때 전선과 전화기, 축전지용 화학약품 등 21종의 전기기구를 가져와 '전기'라는 신문물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1882년 5월 22일 조미(朝美) 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최초의 서양 외교사절단인 보빙사(報聘使)로 미국에 파견되었던 민영익은 에디슨전등회사에서 설치한 뉴욕 펄가의 전등 시설을 보고 경탄한 나머지 동양무역회사에 종사하던 프레이저에게 전등 설비 도입을 주선하도록 했다. 민영익은 본국과 협의해 1884년 1월 17일 프레이저를 뉴욕 주재 조선명예총영사로 임명하고, 루시어스 푸트 초대 주한미국공사에게 에디슨의 전등 및 점화(點火) 독점권을 신청하게 하는 등 전등 설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1884년 9월 4일 에디슨전등회사에 설비 및 공사를 발주했다.
드디어 1886년 12월, 전등 설비가 인천에 도착했다. 당시 도입된 시설은 7kW 규모의 에디슨 다이나모 3대와 엔진 및 보일러 등이었고, 발전 연료는

1887.03.06
경복궁 전기시등도

석탄이었으며, 설비 가격은 2만 4,252달러였다. 이후 이 설비는 경복궁 향원지(香遠池) 북쪽에 설치되었다. 당시 발전설비는 16촉광의 전등 750개를 켤 수 있는,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로서 영국의 교습생들도 와서 견학할 정도였다.

경복궁 내 건천궁에 최초로 점등을 한 날은 1887년 3월 6일로 추정된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7년 5개월 후, 에디슨전등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지 2년 6개월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 설비는 첫 점등 후 얼마 뒤에 설비 담당자인 맥케이가 권총 오발로 사망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가 6개월 후 새로운 기술자가 들어오면서 다시 운영되었다. 정부는 이후 창덕궁에 제1전등소의 3배 규모로 제2전등소를 신설했고, 1894년 5월 30일 이 설비를 준공하여 창덕궁에도 전등이 점화되면서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찍부터 전기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 황제는 1898년 1월 26일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인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당시 고종 황제가 직접 나설 수 없어 한성판윤 이채연을 시켜 설립한 이 회사는 전등뿐 아니라 전차사업까지 손을 대, 1899년 5월 4일 동대문과 서대문 사이를 달리는 한국 최초의 전차가 운행되었다. 전등사업도 한발 더 나아가, 전차가 밤 10시까지 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1900년 4월 10일 종로에 3개의 가로등을 설치했다. 이후 제3공화국 정부는 민간에 처음으로 전등이 켜지기 시작한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196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일제의 조선 통치 수단이 된 암흑기의 전기

1901.10
한성전기회사 사옥

처음으로 전등을 보급한 대상은 궁궐을 비롯해 외국 공관이 모여 있는 정동과 일본인 상가인 진고개(현 충무로), 남대문과 서대문 일대였으며, 배전선은 먼저 전차용 전주를 따라 가설하고 연장선은 단독 선로를 세웠다. 배전공사 완료 후 1901년 6월 17일 경운궁(덕수궁)에 전등 6개를 점등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업용 전등 보급이었다.

전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1901년 10월 31일 전등국을 설치하는 등 설비를 늘려 갔으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1899년 미국인 콜브란 및 보스트위크와 한성전기회사 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채무 관계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자 콜브란과 보스트위크는 자본금 100만 달러로 한미

1933.10.08~14
경성전기주식회사 주최
조명문화전 홍보탑

전기회사를 설립하고, 고종이 총 자본의 절반을 출자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콜브란과 보스트위크는 1909년 6월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한와사주식회사에 한미전기회사를 넘겨 우리나라 전기사업은 미국인에 이어 일본인에게 자산과 이권이 넘어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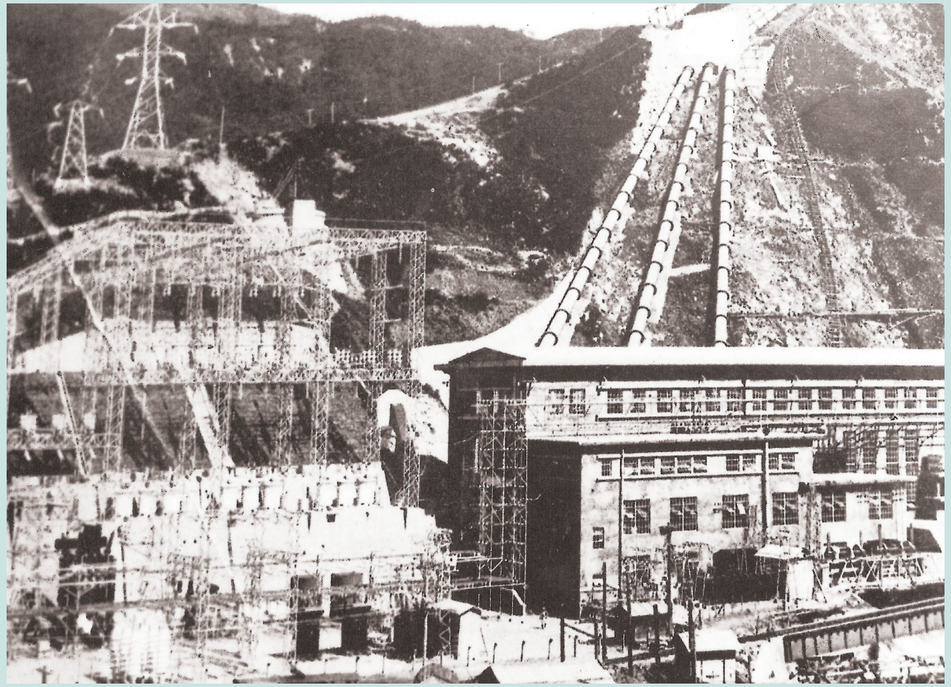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의 전기사업에 본격적으로, 독점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해 비교적 간단한 내연기관을 이용한 설비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연력(內燃力) 발전시대에 접어들자, 일본인들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앞다투어 전기회사를 설립했다. 1906년 인천전기주식회사에 이어 무려 100여 개의 전기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서울은 이미 일본의 일한와사전기회사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1915년 9월 경성전기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전기회사를 차례로 흡수 합병하고, 서울의 전차사업을 확장했으며, 금강산 전철과 당인리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점차 사업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렇게 이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전기요금을 턱없이 높게 인상했다. 이 때문에 1920년 3월 전국의 전기보급률이 2% 미만일 당시 10만 가구 정도의 일본인들은 대부분 전기 혜택을 받은 데 비해 조선인은 고급 관료나 일부 부유층만이 간신히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3월 6일 '조선전기사업취체규칙(朝鮮電氣事業取締規則)'을 공표했다. 이 규칙은 공표 후 1931년까지 우리나라 전기사업을 규제했으며, 식민지를 지배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총독부는 명실공히 전기사업의 지역 독점과 요금 인가제를 강행할 수 있었다. 이 시책은 일본 전기회사를 비호하고 일본인 거류민의 편의를 위한 방편이었다.

1919년까지 설립된 배전회사 25개 중 3분의 1은 1920년대 중반 이전에 다른 배전회사에 합병되었으나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오던 회사들은 이후에 단행된 배전통합의 중심업체로 성장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회사들은 일한와전㈜·대구전기㈜·조선와전㈜·원산수력전기㈜ 등이었다.

1920년부터 1931년까지는 일본 전기회사의 폭리에 맞선 전기요금 인하 요구로 촉발된 전기사업의 공영화 운동, 민간 기업에서 시작된 대규모 수력 자원 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총독부의 전기정책 전환 모색 등의 변화를 겪었다. 총독부는 계층 간의 갈등 해소와 전쟁 준비를 위한 단기간의 대규모 전원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1931년 12월 18일 발전은 수계별(水系別) 민영으로 하고, 송전간선은 원칙적으로 국영으로 하며, 배전은 몇 개 구역으로 분할해 민



장진강 수력 제1발전소 전경

영화하는 내용의 전력통제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33년 11월 1일 '조선전기사업령'을 제정하여 발·송전사업의 합리적 개발과 경영을 시도했으며, 배전은 4개 배전구역으로 전국을 나누고 대배전망을 형성하도록 했다. 그 뒤 국방 체제를 위한 전원개발과 국가의 전력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전력관리령'을 1943년 3월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여러 전력회사의 발전 및 송전사업을 통합하는 동시에 특수기업인 조선전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을 1개의 발·송전회사와 4개의 배전회사로 정비했다.

우리나라에서 하천 수력을 이용한 최초 수력발전은 1903년 가동된 운산수력이었으며, 수력을 배전사업에 처음 이용한 회사는 1912년 발족된 원산수력전기였다. 그리고 한강수계 수력발전의 시작은 1927년 11월 14일에 준공한 금강산전철㈜의 중대리수력발전소(3,250kW)였다.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보다 대용량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다. 1932년 4월 완공된 부전강수력발전소는 모두 4개소로 시설용량 20만 700kW에 연간 발전량은 12억 kWh에 달했으며, 1933년부터 1938년까지 4개의 장진강수력발전소를 건설한 후 허천강수력개발에 착수, 1937년부터 1943년까지 4개 발전소 33만 8,800kW를 준공하여 연간 22억 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또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수력 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압록강의 수풍수력발전소(54만 kW)와 남부지역의 청평수력발전소(3만 9,562kW)가 준공되었고, 같은 해 10월 화천수력발전소(5만 4,000kW)가 준공되었다.

짧지만 긴 어둠 _분단과 전쟁의 고통

이렇게 꾸준히 이어진 발전소 건설은 그러나 8·15 광복과 뒤이은 국토 분단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다. 1945년 광복 당시 전국의 총 발전설비능력은 수력과 화력을 합쳐 모두 172만 3,000kW였으며 이 중 남한의 발전설비는 수력 6만 2,000kW와 화력 13만 7,000kW로 전체 발전설비의 11.5%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 보조발전용의 낡은 화력발전 설비들이라 연간 평균 전력은 고작 4만 3,000kW에 불과했고, 자체 설비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북한으로부터 약 5만 kW를 공급받아야 했다.

당시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은 1947년 3월 10일 미 군정 당국에 남한으로 송전한 전력에 대한 요금 지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 군정은 1945년 8월 16일부터 1947년 3월 31일까지의 전력 가격을 400만 달러로 정하고 6개월 내에 기계, 전기용품, 기타 물자 형태로 소련 군정에 지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 군정은 영월과 당인리, 부산 등 3개 화력발전소를 긴급 보수하여 정상 가동하고, 1948년 2월에는 부산에 발전함 자코나호(2만 kW)를 들여온 데 이어 5월에는 인천에 발전함 일렉트라호(6,900kW)를 들여와 전력수급에 대비했다.

소련 군정은 미 군정이 지급한 물자에 트집을 잡아 송전량을 임의로 5만 kW 이하로 제한하더니 급기야 1948년 5월 14일 12시 정각을 기해 일방적으로 단전을 강행했다. 남한은 갑작스러운 단전으로 큰 혼란에 빠져 생산 활동은 마비되다시피 했고, 일반 가정까지도 3부제 또는 격일제로 제한 송전을 하는 등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력시설 대부분이 파괴됨으로써 남한의 전력 사정은 거의 절망상태에 놓였다. 당시 발전의 40%, 송전의 20%, 배전의 60%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부산과 대구, 마산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전력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인천 부두에 있던 발전함

1952.11.25
화천수력발전소 복구 준공식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

일렉트라호는 자폭했다. 이후 9·28 서울 수복과 함께 전력회사들은 당인리발전소와 영월발전소를 비롯한 각 발전소와 송전선·변전소·배전선 등 피해시설을 응급 복구하여 운전했다. 그러나 다시 1·4후퇴로 전국은 혼란에 빠지고 전력시설도 거듭 피해를 입었다. 1951년 4월 이후 전투가 교착상태에 들어가자 응급조치로 4척의 발전함(설비용량 각 2,500kW)을 들여왔으며, 뒤이어 3만 kW의 임피던스호와 사라낵호 등을 투입, 가동하면서 전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전후 원조를 통한 전력시설 복구와 한국전력 출범

이후 조선전업에서도 전력 복구를 위한 긴급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1953년의 발·송전 실적은 최대 12만 kW, 평균 8만 4,000kW에 이르러 한국전쟁 이전의 규모를 간신히 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정부도 전력시설 복구에 따른 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5월 13일 'UNKRA(유엔한국재건단) 원조에 의한 발전시설 및 송배전선 부흥계획'에 관한 협정을 국제연합사령부와 체결하고 360만 4,740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이로써 전쟁피해 복구사업은 급진전하여 1954년 7월 화천수력발전소 복구공사가 끝나 발전을 개시함으로써 1954년 말 발전용량 29만 8,000kW, 평균출력 10만 3,000kW를 확보하게 되었다.

1955년 4월 이후 정부는 1·2·3차 5개년 계획과 1·2·3차 전원개발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원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가운데 광복 이후 1개 발전회사와 2개의 배전회사가 분리 운영되어 이들의 통합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1957년 정부가 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 등 전력 3사의 귀속주(歸屬株)를 불하 처분하여 민영화할 것을 결정하고, 8월 '배전회사 귀속주 처리사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했으나 두 배전회사 민간주주들의 반대 등으로 논란이 거듭되었다.

그러던 중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1960년 6월 28일 수립된 과도정부는 전력 3사의 통합을 다시 추진, 7월 각의에서 경성전기와 남선전기를 조선전업에 흡수 합병하고 상공부에 '전기사업체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어 1960년 8월 8일 제2공화국이 들어선 후 11월 국무회의에서 전력 3사를 통합 국영화하고 운수사업만은 분리 운영한다는 원칙을 의결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통합은 또 다시 중단되는 듯했으나, 군사정부의 강력한 전력정책에 힘입어 1961년 6월 상공부장관의 명에 따라 '전기 3사 통합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어 같은 해 6월 상공부가 제출한 한국전력주식회사 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공포되었다. 이로써 전력 3사는 1961년 6월 30일 해산되고 7월 1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거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탄생의 막이 열리기 시작했다.

1961
한국전력㈜ 사옥

1·2차 이사회 개최 및 조합 확장 기반 마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초대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상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날인 1962년 5월 22일이었다. 이날 조합은 상공부 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 조합원 신규 가입 승인을 비롯해 조합원별 회비 등급 조정과 징수에 관한 건, 분과부회(分課部會) 주무 선정 및 요강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어 다음날인 5월 23일에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공업협회 회장과 조합 이사장 공동명의로 조합 운영에 대한 당부의 말을 담은 다음과 같은 공문을 각 업계에 발송했다.

> 조합의 발족과 함께 업무 추진과 수행은 (사)대한전기공업협회의 기구와 설비를 최대 활용할 것이며, 운영 면에 있어서는 보다 연구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 범위를 넘는 제반 업무 집행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전기공업협회와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사실상 업계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이에 따라 협회 및 조합원의 협조를 기대한다.

첫 이사회가 열린 지 7개월 만인 1962년 12월 29일 개최한 제2차 이사회에서는 신규 가입 업체가 소개되어, 조합 설립 후 의미 있는 확장 기반 마련을 확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천전기공업 등 12개사를 신규 가입 업체로 승인했다. 다만 가입 수속 불이행업체의 정비와 관련하여 조선전기공업사에 대한 자격을 정지하고, 이미 납입한 출자금을 환원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조합 산하 부회(部會)를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 **제1부회** 전동기·변압기·전압조정기 등
- **제2부회** 전선
- **제3부회** 전기배선기구
- **제4부회** 전구
- **제5부회** 형광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 가입과 일부 사업 분야의 독립

조합은 1962년 12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1년 12월 제정·공포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5월에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설립목적을 두고 있었다.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사가 늘어남에 따라 조합 업무도 다양해졌다. 조합은 제조부문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부문 조합원들이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기업의 조직화 유도에 역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펴나갔고, 이에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각 구청은 관내 기업체에 협동조합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이에 조합의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1963년 한 해 동안 18개사가 새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의 총 조합원은 51개사가 되었다.

조합은 1963년 2월 26일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 2명과 신임 감사 1명을 선임하여 이사 7인, 감사 2인 체제를 갖추었다. 또 같은 해 4월 15일 조합 사무실을 기존 명동 자성빌딩에서 당시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 사옥과 인접한 중구 을지로2가 199-34번지 대성빌딩으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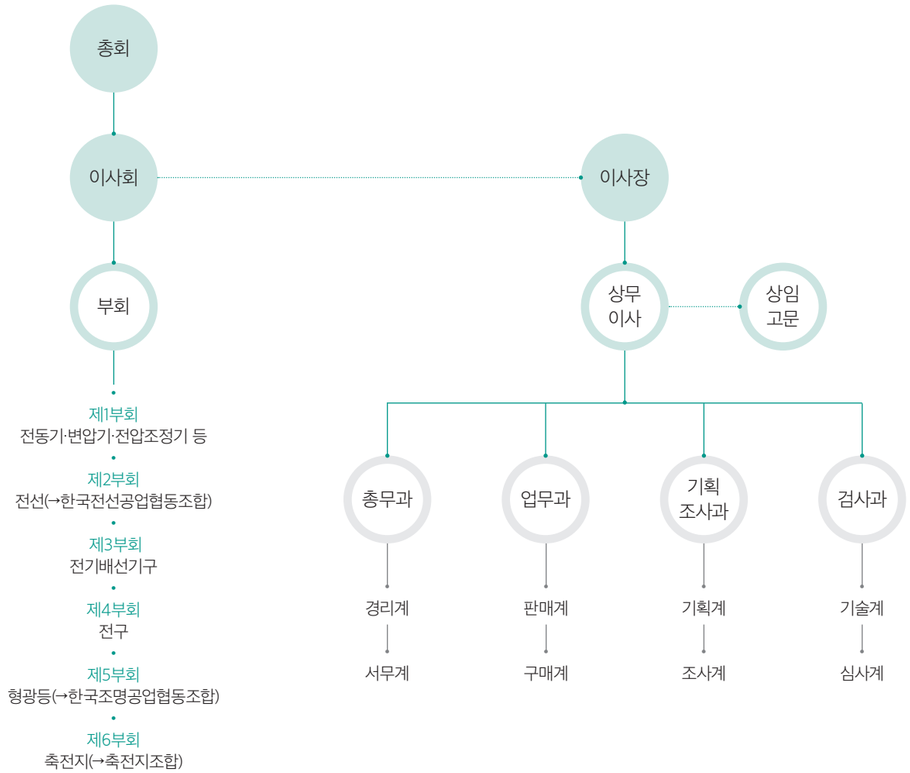
조합원사 증가에 따라 조합 업무가 다양화·세분화되면서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합은 제조부문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해당 부문 조합원으로 부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존 1~5부회 외에 축전지 분야 업체들이 참여하는 제6부회가 추가했으며, 제1부회(전동기·변압기·전압조정기 등)에 20개 업체, 제2부회(전선)에 4개 업체, 제3부회(전기배선기구)에 5개 업체, 제4부회(전구)에 5개 업체, 제5부회(형광등)에 12개 업체, 제6부회(축전지)에 5개 업체를 각각 배정했다.

설립 당시 조합 조직은 상무이사 아래 4과 8개 위원회로 출범했지만, 실제 직원은 상무이사와 상임 자문 각 1명에 업무과장 1명, 주무 1명, 서무 여직원 1명으로 모두 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963년에는 각 부회마다 해당 부회 소관 조합원이 선출한 주무 1명을 두어 조합에서 필요한 해당 부회 소관의 종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부회 내 조합 이사는 주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와 함께 조합은 각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별 주무를 두고 부회 내의 제반 사항은 부회 회의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처리하도록 했다.

1964년 들어와 1월 31일 제2부회(전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으로, 7월 1일 제6부회(축전지)가 축전지조합으로, 10월 8일 제5부회(형광등)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으로 각각 분리· 발족하여 조합 내의 제2·5·6부회가 자연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전동기 및 변압기 업체가 대거 신규 가입하여 전체 조합원 수는 1963년 말 51개, 1964년 말 47개로 큰 변동이 없었다.

1963년 11월 당시 조합 조직도



8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부응과 전기동(電氣銅) 공동 수입 개시

조합 설립을 전후하여 정부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전기공업계 발전을 적극 지원했다. 또 모든 산업계에 걸쳐 많은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전기기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상공부는 1961년 5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이어 합법적인 공업표준을 제시한 공업표준화법, 전기용품의 품질관리에 역점을 둔 전기사업법, 불량 전기용품 제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전기용품제조면허규정, 각종 전기기기의 사용재료·구조 등 기술적 명세를 규정한 전기용품기술기준령 등을 차례로 공포하며 업계를 지원했다.

특히 조합이 설립된 1962년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시행의 원년이었다. 조합의 역사가 곧 한국 경제개발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 것으로, 조합은 그 국가적인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렀다.

정부는 전력산업이 모든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전원(電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

정부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전기공업계 발전을 적극 지원했다. 또 조합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해 특수 소전구 수출 전략을 건의하고, 전선가격 폭등에 대응해 전기동 공동 수입을 추진했다.

조합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설립 직후부터 특수 소전구(小電球)의 미국지역 수출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 방안 중 하나로 1962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대미 수출을 위한 소전구 생산업체 현황을 조사한 후 7월 27일 '특수 소전구 미국지역 수출 전략'을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한 종합 의견 조사건의서를 상공부에 제출했다.

이때 국내 전선 가격이 폭등하자 조합은 수급 안정을 위해 1962년 7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기동(銅) 수급에 관한 종합상황조사를 한 후 8월 22일 상공부에 전기동 수입 긴급조치를 건의하여 같은 해 하반기부터 쿼터에서 5M/T 수입조치를 받아냈다. 아울러 조합은 전기동 물량 40M/T 공동수입을 위해 구매 요청업체인 이천전기공업·국제전기기업·국제전기 3개사의 불입 출자금 범위 내에서 30만 원을 공구자금으로 충당하여 집행하기도 했다.

8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사업 기틀 마련과 사업 확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설립 이후 산하 각 조합이 정부기관 또는 정부관리기업체나 공공단체와 단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운동을 추진했다. 조합도 1962년 당시 단체사업자금 지원 등 여러 여건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단체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전 등 대량 구매처에서 "현행법상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만 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단체수의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조합은 대한전기공업협회와 협력하여 "단체계약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 그 결과 한전 측이 변압기의 자체 제작 또는 수리·사용을 지양하고 향후 조합원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국내 변압기의 유일한 시장인 한전의 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안정과 품질을 보장하는 공급업체를 특별 추천하는 등 공동판매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합은 한전의 변압기 수급을 보장하는 공급업체를 추천해 공동판매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기동과 규소강판 등 긴급히 요구되는 주요 원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조합은 조직 정비와 함께 공동구매사업도 적극 시행했다. 정부는 1962년부터 각급 협동조합에 공동사업자금을 배정하고 중소기업은행 책임 아래 단체금융을 관리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은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를 중지하기도 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은 1963년 4월 26일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설립 이래 최초로 당해 연도분으로 책정된 공동사업자금 제1차 방출분 1억 원 중 조합 해당액 1,000만 원의 시행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전기동과 규소강판을 우선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이를 전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그 결과 조합은 긴급히 공동구매가 요구되는 주요 원자재로 외자는 3개월 이내 결제 완료 가능품, 내자는 1개월 이내 결제 완료 가능품에 대한 명세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총 12개 품종 3,268만 원에 누계 2,234만 원 상당을 공동구매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공동판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품 검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관계 법령 미비와 업계의 수용 태세 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공동사업자금지원현황

(단위: 원)

사업자금			총누계 구매액	총누계 공급원가액	회전비율
단체융자	조합원출자	계			
10,000,000	1,675,000	11,675,000	32,686,079	22,340,000	약 290%(2.9회전)

1962년 당시 조합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공동사업자금은 14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동사업이 날로 확장됨에 따라 자금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300만 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1,300만 원의 한도액으로 공동구매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었다.

공동구매사업에 대한 조합의 요구가 관철됨에 따라 정부가 외화실수요자에 대한 외화 배정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문별 원자재 공급이 균형 있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내·외자 10개 품종 8,372만 원의 공동구매사업 실적을 올려 1964년에는 전년보다 265% 급신장을 이룩하였다.

조합은 1964년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3단계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가능품목을 생산하는 내수업체를 각 단계마다 150개 업체씩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5개 조합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업체 선정 후 조합은 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외자를 배정하고 검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지원을 했으며, 그 결과 조합원 업체들은 변압기와 배선기구 등 216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공동구매사업은 규소강판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콘덴서와 절연재, 합성수지 등을 수입한 후 조합원 업체에 배정하여 생산 가동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조합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가능품목을 생산하는 내수업체를 선정해 외자 배정과 검사시설 설치 등으로 조합원 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고, 공동구매사업으로 조합원 업체의 생산 가동률을 높였다.

조합은 공동구매 관련 AID/SA 자금으로 알루미늄 철강판, 주석, 파라핀 왁스 등을 수입 배분했다. 그중 1964년 제1차 지원분 1,500달러 긴급 소요 자재구매에 대해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자금을 즉시 지원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정 기준을 세워 다음과 같이 각 해당 조합원에게 공정히 배분했다.

- **알루미늄** 이천전기공업·금성사·서울모터 등
- **주석** 대한전선·광화전업·중앙전선·대성전업 등

조합은 1964년 2/4분기 KFX(Korean Foreign Exchange, 정부가 보유 중인 달러) 실수요자불(實需要者弗)에 따라 조합에 배당된 외화 가운데 형광분 약 5,000달러를 업체에 배정해, 조합원 업체 자금 일부로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신용장(L/C)을 개설했다. 이어 부산항을 통해 수입하여 관세창고에 입고한 후 통관 수속 중이던 1964년 8월 11일, 뜻하지 않은 화재로 물품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조합과 면직물조합이 공동으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합원 업체의 합리적 운영과 전기공업 발전을 위한 조사 및 건의

조합은 설립 첫해부터 조합원사의 생산 활동을 조사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일에 주력했다. 특히 조합원사의 월별 생산실적, 월간·주간·일별 조업 실태 및 월간 제반 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통계화함으로써 조합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62년 조합 주요 조사 활동

날짜	조사 활동 내용	제출처
6.11~7.25	1962년도 전기공업부문별 공동사업종합계획 조사	상공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7.11~7.25	대미 수출을 위한 소전구 생산업체 현황 조사	-
7.19~10.19	전기동 수급에 관한 종합상황조사	-
10.10	1963년도 AID 기술원조자금에 의한 조합원 파견계획 조사	상공부
10.30	1963년도 조합원 업체 생산제품의 물자 수급량 및 5개년 계획사업을 위한 외자도입계획 조사	상공부
12.18	상공부 지정 대상인 압연·용동(熔銅) 시설 보유 전선 제조 조합원 업체의 동(銅) 제품 생산 계획량 조사	상공부
12.28	축전지 해외 수출을 위한 시설 계획 및 운전자금 조사	상공부
12.31	전기기기의 국내 수급량 조사	산업은행

이들 자료는 정부와 금융기관·상공회의소·외국기관 등 기타 관계기관에 정기 혹은 수시로 보고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사 제품 판매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할 수 있었다.

조합은 조합원사의 생산 활동을 조사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주력했다. 이들 자료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때 업계를 파악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1963년 7월 24일 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 관계자 및 전문위원들과 가진 연석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업체 실태를 알아야 하므로 기본 실태 조사자료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분기별로 실태 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조합은 1962년도 2/4분기부터 소급하여 분기별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 1962년 총생산액 9억 9,850만 6,000원과 판매고 8억 8,081만 1,000원, 1963년 총생산액 8억 4,881만 4,000원과 판매고 5억 7,318만 9,000원의 중소기업 실태표를 작성했다. 특히 조합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의무 보고사항인 생산실적 보고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기기기 공업의 수급 실태와 정부의 외환정책상 불가피한 결핍성에 비추어 효율적인 수급 대책을 강구하도록 수치를 정확히 했다. 아울러 생산능력 기준의 수요예측에 따른 생산계획과 실적을 정확히 조사해 업계를 실질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했다.

조사통계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체계가 잡혔으며, 조합은 안정적인 생산보고서와 표본업체 10개 사에 대한 가동률을 매월 조사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특히 조합원 업체의 공장 기본실태조사 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필요한 자료와 통계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공부와 관련 기관의 다양한 조사 요구에도 적극 대응했다. 우선 특수산업체 요금 20% 인하 방침에 따라 특수산업체 사용 전력량을 조사하여 상공부에 보고했으며, 산업용 석탄 수요량도 상공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보고했다.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순조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1963년 9.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재정·금융·외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생산력 극대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에 전자산업을 포함한 전기공업 분야에서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 하나는 상공부에 설치한 전기공업위원회를 통한 활동이었다.

전기공업위원회는 전기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문, 국산화 대책과 수출 증진 대책 등 각종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조합에서는 장병찬 이사장과 신아산업공사 성찬용 사장, 이천전기 김준식 상무이사가 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주요 필수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 허용, 전동기·변압기의 주요 필수 원자재의 수입 금지 해제 등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전기공업위원회 참여 초기 조합의 주요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시설 재료의 원활한 수입 및 면세
- 동괴(銅塊) 수입 확대와 배정의 조정
- 관세율 인하 및 수입물품세 면세
- 불하(拂下) 축전지의 합리적 취급
- 형광등 방전관 수입 금지
- 군납비 우대
- 자재 구입비의 단체 배정
- 공사 및 물품구매 시 계획 발주
- 일정 계획하에 기술 지도와 육성 지원
- 제품 규격화의 엄격한 이행으로 유사품 공급 방지
- 제품의 성능 구별 및 가격제 수립 등의 재정법 시정
- 전력요금 인하
- 기술훈련 지원
- 기존 우량 업체에 대한 기술 투자 촉진

조합은 공동구매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AID/SA(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Supporting Assistance, 국제개발처의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데도 주력했다. 그런데 해당 품목을 원자재로 하여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보유자만 구매 요청 시 기입하는 실수요자로 인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조합은 상공부에 생산 인정을 받게 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1963년 5월 21일 상공부는 조합이 실수요자는 아니나 다만 협동조합원이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AID 구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조합은 상공부에 설치된 전기공업위원회에 참여하여 업계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각급 기관에 우수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업체의 합리적 운영과 전기공업 발전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조합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축전지를 국산화하여 수입대체산업으로 전환해 외자 절약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아직도 국산 개발·보급 역사가 일천하여 정부의 각별한 지원과 보호가 요청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1963년 7월 27일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재경위원장 앞으로 각각 제출했다. 상공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국내 축전지 제품의 우수성과 연간 약 4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미8군에 납품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각급 기관에 우수한 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주지시켰으며, 같은 해 8월 26일에는 이 내용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재경위원회 심사에 올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했다.

또한 조합은 수입 한도와 링크제 실시에 따른 외화 배정 방법에 대해 건의하고, 전기기기제조용 주 원자재에 대한 AID 및 KFX(차관이나 기타 해외차입으로 보유한 외환이 아닌 경상거래로 벌어들인 자금) 자금 운용 건의 등을 통해 '조합원 업체의 합리적 운영'과 '전기공업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8

합리적 관세제도를 통한 업계 보호와 단체수의계약제도 법적 근거 확보

조합은 정부에 대한 각종 건의와 연계하여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얻고자 노력했다. 그중 관세율 인하 요구를 관철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당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전기기기의 특성상 높은 관세는 업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납품할 물품을 제작·공급하는 데도 장애가 되었다. 또한 업체 간 출혈 경쟁을 유발하고 수출산업화 환경 조성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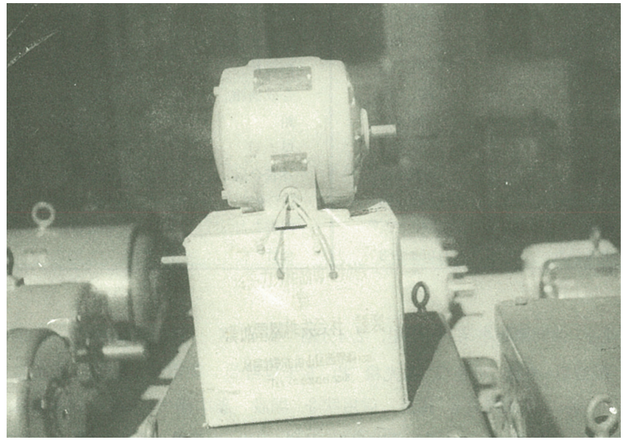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가 관세법상 관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이라는 점을 인식한 조합은 1963년 3월 11일 전 조합원에게 관세 재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업계 의견과 관세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7월 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재무위원회와 재무부에 관세율 인하를 건의하고, 8월 26일 상공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법 개정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건의에 이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

조하에 재무부·상공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추천서를 첨부하여 9월 7일자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장에게 관세법 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1963년 11월 21일 관세법 개정 안건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이어 1964년 1월 1일부터 관세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전기절연지의 관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조정되는 등 관세율 인하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조합은 1964년 3월 17일 상공부장관에게 '전기기기공업의 수출산업 전환대책에 관한 종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7월 31일 국산화에 성공한 단상소형전동기(1/4마력)의 수입 금지 조치, 주요 수입물품의 국내 도매가 고시 제정 등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1964년 당시 변압기 및 전동기 등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절연재(절연포 및 테이프)에 대한 물품세율은 40%에 달했다. 조합은 전기절연재의 면세 조치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재무부는 처음에는 전기절연재를 단순 직물로 여겨 반려했다. 그러나 조합의 거듭되는 질의와 건의를 경청한 재무부는 10월 28일 "직물에 약물을 피복한 것으로 직물로서의 사용 가치보다는 전기절연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절연재(직물로 조성된 대지에 한함)는 물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업계와 조합원 이익 증진에 일조했다.



1964
한성전기가 개발한 단상소형전동기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조합 공동판매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조합도 7개 품종의 단체계약 가능 품목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판매 경쟁에서 대기업보다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공동판매하여 경영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협동조합 공동판매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1965년 7월 19일 예산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3호)을 개정·공포하면서 제108조 제1항 제23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건이 구비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생산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품종에 속하는 것을 당해 조합과의 단체적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할 때'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위임받은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재무부는 1966년 9월 16일 정부투자기관계약준칙 제3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의 규격을 제정하고, 검사조건을 구비한 품목 181개를 지정했다(1차 1966년 11월 10일 94종, 2차 1966년 12월 10일 87종). 이 가운데 조합에 해당하는 단체계약 가능품목은 전동기(50Hp 이하), 변압기(50kVA 이하), 적산전력계(200V 100A 이하), 선풍기(100V 탁상용), 커버나이프스위치(250V 100A 이하), 소켓(250V 이하), 콘센트 및 플러그(250V 이하) 등 7개 품종이었다.

8

품질 제고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1962년 4월, 대한전기공업협회와 한전이 공동 주최한 '군사혁명 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가 경복궁에서 열렸다. 이 박람회에 참가한 이천전기공업의 전동기와 변압기가 최고상(대통령권한대행상)을 수상하는 등 조합원 업체에서 출품한 전 품목이 입상하여 국산 전기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같은 해 7월 1일에는 상공부 내 중앙상공장려관 상설전시장에 조합원 업체 생산제품을 상설 전시함으로써 국산품 보급 및 소비자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1963년부터 한일 간 국교 정상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외자 및 기술 도입에 대한 전망도 한결 밝아졌다. 이에 따라 전기공업계는 기존 시설 개선

과 기술 향상에 더욱 주력하기 시작했고, 규모 있는 제조업체가 신설되어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권철심(捲鐵心, 자성 재료의 얇은 띠를 고리 모양으로 감아서 만든 철심)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용 콘덴서 등의 전력기구와 각종 가정용 전기기기 제품이 개발·보급되어 전기기기공업이 수입대체산업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1964년 당시 조합원 업체의 생산 활동 조사 결과 가동률은 평균 30~50%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상태였으며, 전동기만 전년보다 약 1.9배 신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 업체의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해 수출 및 군납 장려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변압기를 비롯한 적산전력량계(W.H.M) 및 선풍기 등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조합은 중소업체 수출산업화 과제와 관련하여 수출업체 전환 신청 희망자를 당국에 추천했으며, 그 결과 국제전기기업·신광기업·한국특수전구제작소 대표 3명이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합원사들이 내수뿐 아니라 수출에도 관심을 두게 했다.

반면 업체 간의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한 조합의 공동판매사업은 실현되지 못한 채 당국과 제도 마련을 위한 의견 절충을 계속했다.

1965년 들어와 정부의 무역정책 변경에 따른 실수요 불화배정제도의 폐지로 공동구매사업이 매우 부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광복 후부터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으나 1964년 5월 3일 외환증서제도(外換證書制度)에 따른 시장률을 기준으로 환율이 변동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이러한 '5·3 환율 파동'과 정부의 재정안정을 위한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유동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조합은 설립 후 축적해온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업계의 문제를 포함한 조합원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부와 기관에 다양한 건의를 이어갔다.

먼저 1965년 2월 5일 "전동기 제작에 소요되는 회전용 고속 베어링의 품질 및 성능이 향상될 때까지 외국 제품을 수입·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어 2월 9일에는 "민관 수요 시설 도입에 수반되는 전기기기, 즉 전동기와 변압기 등이 품목 표시 없이 도입되거나 대단위 플랜트에 포함되어 수입됨으로써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수입 허가를 지양해 달라"고 상공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밖에도 상공부장관에게 4월 28일 "규소강판은 자동승인품목인데 전동기용 B급 2종류에만 적용하여 기타 품목은 일일이 가격승인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점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5월 8일에는 상공부장관과 한전에 "한전의 물품구매공고에 있는 외국 선풍기 구입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7월 20일에는 상공부장관에게 "형광등 방전관에 쓰이는 형광등 안료 등 주요 수입 외국 물품의 국산 구매 시 적정 가격을 조사, 책정해 달라"는 요청을 이어갔다.

1962.04
조합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 군사혁명
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

換率 255對1로引上
3日부터 外換證書制採택
美千萬弗糧穀25萬톤追援
對備策貧弱時期不適
—特定業者의 人爲的價格操作도憂慮—
財界선批判的 千萬弗론安全辯못돼
油類·自動車稅引下?
政府 物價대책곧發表
換率·物
國會開會
美 換

1964.05.04
외환증서제도에 따른
시장률 기준 변동환율제도 채택을
알리는 언론보도(경향신문)

8

조합 업무영역 확대의 새 장, 수출검사업무 본격화

1960년대 중반 당시 전기기기공업 분야의 수출과 관련하여 제품 검사기관이 전선·통신 등 6개 종류로 각각 구분·지정되어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았다. 조합은 1965년 7월 31일 다음과 같은 일원화의 효과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제품 검사기관을 통합·일원화할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했다.

1. 검사기관의 발족이 초창기인 만큼 고정된 검사업무수행에 있어서 각 기관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임에 비추어 이를 통합,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함
2. 통합 시 유능한 검사원의 확보를 통해 검사 기능을 보장할 수 있음
3.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시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4. 정부 보조업무의 획일화를 기하고 지도 감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5. 검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시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

이후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전기기기공업 분야 수출기관 통합에 관한 건의도 이루어졌다.

조합의 검사사업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을 신뢰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 수요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품질 향상과 제품의 표준화를 유도해 수출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었다.

정부도 이러한 검사 업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할 때부터 조합원 제품은 조합에서 검사하도록 규정했으며, 1962년에는 각급 협동조합이 조직되면서부터 조합이 본격적으로 검사시설을 확보하도록 국고(國庫)에서 보조했다.

정부는 조합의 적극적인 건의를 검토한 후 1962년 10월 4일 법률 제1164호로 제정된 수출검사법 제3조에 따라 1964년 12월 30일 상공부 공고 제3291호를 통해 조합을 전기기기공업 분야 수출품목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조합의 수출검사업무가 본격화되는 순간이었다.

조합은 1965년 1월 24일 수출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승인 요청을 거쳐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승인을 받았으며, 3월 8일에는 관련 업무규정을 승인받았다.

조합은 자력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조합원으로부터 임대하고, 기술진 보강을 위해 상공부 승인을 얻어 기술 고문을 추대했다. 또 검사원을 채용하여 전동기 등 10개 품목의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조합은 제품 검사기관의 통합·일원화와 수출기관 통합을 건의하였다. 또한 1965년부터 수출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출 증진을 위한 검사 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책을 시행했다.

1965년 검사설비현황

검사설비	용도	성능	단가(달러)	제출수량(대)
부하측정기	전동기부하측정용	500Hp	17,000	1
전기평형기	회전자용	500Hp	13,000	1
고주파측정기	변압기시험용	500V, 50kVA	6,000	1
삼상전압조정기	전압시험용	10kVA	300	7
교류전압전류계	전류측정용	(-0-10-0-2)	500	2
변성변류계	변성변류시험용	1,000/6,000 100/50/10	300,000	6
절연유시험장치	절연유시험용	100V~60,000V	1,000	1
회전계	회전측정용	-	500	1
교류기록계	교류측정용	-	3,000	1
Micro Meter	경척용	0.001m/m	5	5
하중시험기	하중시험용	500kg	50	1
강구	경도용	100°	10	1
충격전압계	충격전압용	200kVA	3,3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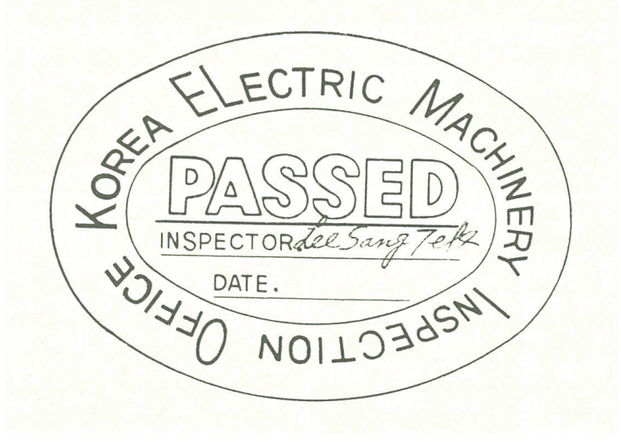
조합은 1963년 통신기기 첫 수출에서부터 1965년 3월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유지할 때까지 검사 및 수출의 기틀을 마련했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클레임 없이 20여만 달러 상당의 배선기구에 대한 수출 검사를 실시했다.

1965년 12월 24일 수출검사기관 명칭을 '한국전기검사소'로 변경한 이후 검사 업무는 본격화되었다. 특히 조합은 지방 조합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으며, 상공부가 수출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검사 업무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자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수립·시행했다.

1. 지방은 업계 및 공공기관의 검사시설을 이용한다.
2. 지방 검사분은 보다 신속을 기하기 위해 검사원에게 검사합격증을 위임한다.
3. 지방사업소가 설치되지 않은 다량수출 지역에는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원을 출장 또는 주재하게 한다.
4. 서면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신청·접수할 수 있게 하며, 조합원이 작성한 검사보고서에 의해 합격증이 발급되므로 검사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여 검사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 검사에 완벽을 기하고 제품의 질적 향상과 해외 신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 수요자의 신뢰도 제고와 수출검사기관으로서의 면모 구축에도 주력했다. 이를 위해 1966년 1월 7일 탄젠트(Tangent) 테스트 등 23개 종류를 자체 자금으로 설치했으며, 3월 21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6월 30일 107만 600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Photo Tachometer 등 20점 27세트를 설치하여 검사시설을 완비했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열전 온도계, 표면 열전대행 온도계, 휴대용 회전계, 광전 회전계, 내압 시험기, 실리콘 정류기, 가변유도 저항기, 습동형 저항기, 배율기, 주파수 변환기 등을 구비하여 더욱 철저한 검사를 시행했다.



1966
한국전기검사소 합격증 표본

02 업계를 지키는 힘, 성장을 향하는 길

성장의 기반 구축

전국 조합의 면모를 갖추다
_부산지부 설치

신규 가입 조합원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조합은 1965년 1월 1일자로 가입 규정을 새로 제정해 시행했다.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았다(시설 기준).

- **변압기 제조 부문**
  권선기 3대, 여과기 1대, 볼반 1대, 절연시험기 1대, 샤링, 건조실 1곳, 시험설비 1식(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압조정기, CT·PT) 이상
- **전동기 제조 부문**
  선반 2대, 세파 1대, 볼반 1대, 프레스 2대 또는 바후레스 1대, 미링 1대, 샤링 1대, 건조실 1곳, 시험설비 1식(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등
- **구비 서류**
  가입신청서, 3계좌 이상 출자, 공장설비증명서, 생산실적증명서, 영업감찰증명서, 조합원 2인 이상의 추천서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준 이하라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 가능

조합은 1965년 2월 25일에 열린 제3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장병찬 이사장에 이어 제3대 이사장으로 유기숙 대한전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제3대 임원진을 선출하고, 조직 전면 개편을 통해 성장세를 이끌 기반을 다지며 업무를 정착해갔다.

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 회전이 다른 조합보다 장기화되는 데다 국내 전기제품의 수요와 함께 조합원의 원자재 수요량이 급증하자, 조합은 융자 한도액인 1,770만 원에 1,000만 원을 추가하는 요청안을 상공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430만 원 추가를 승인받아 1966년 5월 3일 조합의 공동사업자금 총 배정액은 2,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동구매사업의 경우 정부가 대일청구권 자금을 조기 사용하고 수입품목 지정 조치에 따라 원자재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은 신용장을 베이스로 한 수입 방법과 D/A(인수도 여건) 베이스 방법을 병행하는 슬기로운 방법으로 이에 대처해 위기를 극복했다.

1965년 12월 18일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따라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차관이용도를 높였다. 또 우리나라는 1966년 들어와 한·중·베트남 3개국 간의 블록이 형성됨으로써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종안을 마련하여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자 수급의 원활화, 통화안정, 유통구조의 근대화를 3대 기반 목표로 하는 물가 대책을 수립했다.

1966년 12월 6일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런 국내 여건 속에서 조합은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조합 문호를 열어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전기 관련 제조업체를 신규 회원사로 맞이했다.

1965.06.22
한일회담 조인식

1967.08.07
조합이 이전한 중구 수표동
전기회관 개관식

1966년 6월 27일, 조합은 지역 조직인 부산지부를 부산직할시 중구 동광동2가 12번지에 설치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방 조합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명실공히 전국 조합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조합은 1967년 7월 15일 서울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1-4번지 전기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전국 조합으로서의 확대된 업무와 조직을 재정비했다.

8

품질 제고의 전환점, 조합 제품 규격 제정

공업규격(Industrial Standard) 제도는 1841년 영국의 휘트워스가 나사의 표준 치수를 정한 것이 시초이며, 한국에는 1962년 11월 20일 한국공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1966년 들어와 상공부는 생산 부문 협동조합 전체에 품질 제고를 촉구하는 방침을 정했다.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을 제정하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은 규격 제정 계획을 수립하여 상공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했다. 또 1차로 1966년 5월 18일 KS 규격제품인 적산전력량계 등 15개 품목을 조합 규격으로 신청하여 같은 해 6월 1일 총회의 추인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조합원 수 증가와 조직 및 업무 효율화

1967년 들어와 무역자유화를 비롯하여 관세 개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조치가 잇따르며 제조업계는 일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 발전과 함께 이전보다 업계의 체질이 강화되어 차차 안정을 찾아갔다.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1971년 수출목표를 당초 5억 5,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수정하는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강화하며 업계를 지원했다.

이런 여건하에서 조합도 대내외적으로 위상 제고와 규모 확대의 길을 이어갔다. 창립 당시 조합의 일원이었던 배선기구·전선·조명기구·축전지 등의 다양한 업종이 1964년 말 분리·독립했음에도 1967년 이후 조합원사는 58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조합원사는 대다수가 산업용 전기기기를 중심으로 비교적 강한 전류를 다루는 강전(强電) 분야 기업들이었다.

조합원사 증가에 따라 조합의 조직 규모도 확대되어, 이사장 직속의 기획운영·기술개발운영·재정금융운영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 조합에서 일부 업종이 분리·독립했음에도 조합원사는 오히려 늘어났다. 조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조합은 3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출 조사와 수출검사기관 검사 시간을 단축했다.

- **기획운영분과위원회**
  정관 및 규정 규약의 효율적 운용,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대한 기획 및 건의,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 가공·보관·운송에 관한 기획 및 알선, 공동시설 활용과 알선, 상공 개선을 위한 기획 및 실천 계몽, 조합 사업 활동에 관한 행사 기획 및 자료 수집, 해외개발 업무
- **기술개발운영분과위원회**
  조합원 제품 규격 통일과 검사, 해외기술 도입과 기술훈련, 신규 제품 고안 및 장려, 관수(官需) 중심의 내수 검사 일원화 방안 강구, 신규 시설 도입과 기술차관 알선, 조합 검사시설 활용 방안 강구, 조합 원료 공급이나 기술 검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술센터 활용 방안 강구, 조합원 업종별 시설 기준 책정, 공장 표준화와 제품별 KS 규격 제정 장려, 조합원과 제품·상표 및 국제공업소유권 등 각종 특허 업무
- **재정금융운영분과위원회**
  중소기업단체사업자금 최대 확보, 공동사업자금의 효율적 사용 방안 강구, 조합원 제품에 대한 내국세 및 외국 세제(원자재 기기도입 외자) 개혁, 조합원 납부금 및 수수료 조정, 신용보증제도 실시 추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 추진 업무

특히 조합은 수출 조사 업무와 관련, 더욱 빠른 처리를 위해 검사 신청 절차와 과다한 구비 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수출절차 능률 촉진을 위해 구비 서류를 L/C 및 계약서 사본만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동검사장을 설치하여 수출검사기관 검사와 관세 확인 검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무역체제 개편에 따른 대응과 업계 경쟁력 제고

1967년까지 정부는 수출입 기별(期別) 공고상에 표시된 품목만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67년 중반에 들어 그동안과는 반대로 '기별 공고상 일정한 제한이 요구되는 품목'에만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표시를 하고 다른 품목은 모두 자

동승인품목으로 보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 무역자유화)으로 무역체제를 개편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1967년 6월 2일자로 조합 해당 업종 58개 품목(전동기·변압기·펌프 등)에 대한 수입금지요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7월 4일자로 조합이 제안한 58개 전 품목이 NEGA 제도 시안 3,710개 품목 중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7월 7일 이 제도 원안 심의를 통해 금지품목을 500여 종 정도로 축소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행 관세율 50% 이상이며 외환대수 500대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 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조합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먼저 관계조합 이사장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책회의를 개최, 정부 제도에 대한 유보 요구안과 반대안을 의결하여 상공부·재무부·경제기획원·관세위원회 및 기별공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7월 10일자로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관한 종합 건의서'를 공개 발표하여 조합의 진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후 7월 25일 상공부가 발표한 수출입 기별 공고에 조합이 건의한 수입제한품목 353개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합은 무역자유화가 단계적으로 개방될 추세임을 적극 고려하고, 업계에 기술 및 품질 개선, 원가 절약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조합은 조합원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대외 홍보를 위해 제품과 회사 정보를 담은 카탈로그를 자체 제작하여 지방상담소와 기술지도센터 등 상설전시장에 전시하고, 해외 공관을 통해 외국 바이어에게도 배포했다. 특히 품질 향상과 선진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해 더욱 많은 조합원 업체가 일본·미국 등과 기술제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당시 조합원 업체가 생산하는 다음의 주요 품목은 이미 국제적인 기술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네거티브制實施
어제 리스트公告
輸入禁止64、制限3百21
制限品目 公告추천要領은 한달內 制定
"補完施策 시급"
TV등의 獨寡占商品
輸入禁止서 制限으로

1967.07.26
상공부 수출입 기별 공고 발표를 알리는 신문기사(조선일보)

- **산업용** 전동기·변압기·전기용접기·전압조정기, 각종 배선기구·배선반류 등
- **가정용** 선풍기·적선전력량계·냉장고 등

그리고 전력 소비 효율 개선에 일대 혁신을 이룬 축전기(콘덴서)와 각종 스위치 등은 미국의 NEMA, 서독의 Siemens, 일본의 JIS 등 국제규격에 도달하여 내수 충족은 물론 수출시장 개척에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8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합의 목소리

조합은 1967년 2월 28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전기용품 제조면허 제정 확립'에 관한 건의서를, 같은 해 5월 23일 관세율 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각각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조합원사 권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조합은 또 공동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조합원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일에도 나서, 1967년 1/4분기 협동조합 특수공동사업 비축자금 1,000만 원을 신청했다. 이 자금은 1965년 11월 선적되어 부산항에 입항해 있던 규소강판과 규소강대(硅素鋼帶, Silicon Steel Sheets & Strips) 원자재 통관이 지연되어 결제 기일이 임박함에 따라 상공부에서 960만 원의 자금을 긴급 배정한 것이었다.

이어 조합은 "산업은행 소관 KFX 유산스(Usance, 무역 결제 어음의 지급기한) 시설재 도입 자금으로 조합 공동시설을 계획 중이거나 장기 상환이 필요한 시설을 구상 중인 조합원에게 3,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발표에 맞추어 이 자금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 수출특화산업체에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부의 수출특화산업 육성 자금(상공부 공고 제4160호)을 전기기구업체 1개사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융자해 주었다. 이밖에 제2차연도 중소기업 육성 대일청구권 차관 자금 중 서울특별시에 배정된 553만 달러를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원받았다.

한편 상공부가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조정해 배정한 금액 중 1966년 조합분 기준 한도는 2,200만 원이었으나, 1967년 2,580만

원으로 늘었다. 1967년 11월 28일에는 공동사업 자금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된 배정액을 신청, 조합의 기준 한도도 그만큼 확대되었다.

조합은 다양한 조사를 통해 조합원사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1967년 2월 8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요청으로 36개 조합원 업체의 종업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00명 이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조합원사는 4개였으며, 나머지 32개는 평균 약 70명 정도였다. 종업원 학력은 대졸자가 566명으로 전체 17%, 국민학교 졸업 이하는 920명으로 22%였으며, 나머지 61%는 중졸 및 고졸로 나타났다.

조합은 1967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의 가내 공업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한 조합 소관 품목 중 가내수공업이 가능한 노동집약적 품종으로 6개 품목(배선기구류 중 커버 나이프 스위치, 콘센트 및 플러그, 텀블러 스위치, 펜던트 스위치, 초인종, 누름단추 스위치)에 대한 자료를 서울특별시에 제공했다. 또 '수출입 기별 공고 편제 방식이 네거티브로 바뀐 데 따른 국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기술 합리화를 위한 기술 개선과 지원 대책에 관한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처에 각각 보고·건의했다.

상공부는 1968년 들어와 전기공업 개발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품목별로 정확한 수급 상황에 대한 통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전 조합원으로부터 주요 전기기기 제품 수요 전망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아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또 수입제품 또는 원자재 수입 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면제해 관련 제품 가격 인하와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전기기기 제품 중 면세 대상 품목에 대해 수입가격 구조표를 작성하여 상공부에 제출했다.

이어 조합은 1969년 3월 6일 6.6kV 이하 차단기 등 조합원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국산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여 상공부에 제출했으며, 7월 1일에는 건식변압기 국내 제조업체 조사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5일에는 고압유도형 자동전압조정기 생산업체를 조사하여 조달청에 통보했다.

조합은 업계와 연관된 다른 조합들과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사 권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조합원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체수의계약 제도 첫 시행과 업계 보호 장치 구축

조합은 1968년 1월 4일 외무부장관에게 '규소강판 및 강대에 대한 일본의 수출가격 조사 요청'을 건의했다. 그 결과 주일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가격이 동남아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는 답변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4월 5일 일본상사와 규소강판 및 강대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910.5M/T의 수입물량을 확보했다.

1968년 부산지역 조합원의 참여로 지부의 활동이 날로 활발해짐에 따라 공동구매사업도 더욱 확대되었다. 원자재 수입 배정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구분해 시행하여 1968년 한 해 동안 2억 9,100만 원(외자 1억 7,400만 원, 내자 1억 1,7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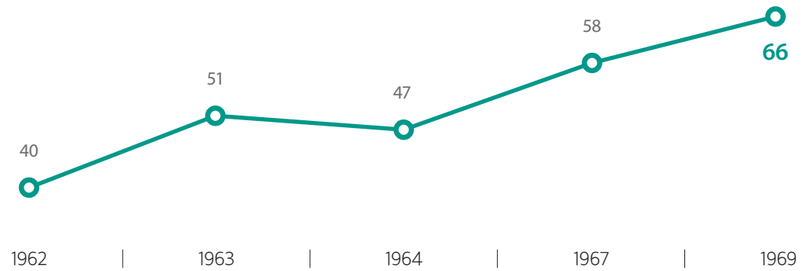
1968년에는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단체수의계약 업무도 처음 시행했다. 첫해 실적은 재무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술지도센터와 계약한 전기용접기와 선풍기의 2건 총 76만 원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합은 문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조직 확대에 힘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1969년 66개 조합원 업체를 회원사로 두게 되었다. 이같이 늘어나는 조합원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합은 조합원사의 제품 판로 개척에 노력했으며, 단체수의계약 실적이나 조합원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점차 늘려갔다.

이 무렵 정부도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증대를 위한 수주확보법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정부 기관과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으로서, 상공부에서 입안한 후 1969년 8월 21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쳤다.

조합은 1969년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절충하여 변압기 및 선풍기 등 486만 8,000원의 단체수의계약 실적을 올렸다. 특히 같은 해 5월 5일에는 전동기, 변압기, 전기용접기, 양수기, 적산전력량계, 선풍기, 전압조정기, 커버나이프 스위치, 콘센트 및 플러그, 소켓 등 10개 품목을 무제한 특례적용 물품으로 조달청에 등록했다. 역시 같은 해 7월에는 조달청장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요청서를 보내 조합의 인증된 시스템과 능력을 알리고, "이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기로 한 선풍기나 변압기 외 품목에 관해서도 조달 요구가 있을 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사 수 (단위: 개)



조합은 아울러 협동조합 사업자금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체입찰 등으로 전기동 170M/T을 확보하여 공급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자금은 고정 한도 380만 원과 임시 한도 1,000만 원을 확보해 마련한 4,400만 원으로 운영했다. 고속전동기용 볼 베어링의 경우 일반 금수품(禁輸品)으로서 조합만이 1년에 1회만 실수요 배정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수입 한도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1968년 7월 5일과 7월 20일 "20개 업체 소요분의 L/C 개설 자금 1,040만 7,000원과 8개 전기동 수출업체용 20M/T 900만 원, 합계 1,940만 7,000원을 정책자금으로 긴급 배정해 줄 것"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상공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7만 2,580개를 수입·배정함으로써 1967년보다 2만 7,872개를 더 공급하는 등 조합원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68년, 상공부는 합리적인 수출 제도 확립을 위해 1967년도 검사 실적이 100만 달러 이내이거나 독립채산이 어려운 전기 등 10개 검사기관을 정비하여 나머지 7개 검사기관에 통합했다. 아울러 일정한 시설을 구비한 검사기관이 다원적으로 수출품을 취급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1968년 4월 10일 조합의 수출검사 업무는 국립공업연구소로 이관되었다.
한편 조합은 품질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공포에 따라 제조면허 및 형식승인심의회에 참가하여 조합원 제품의 품질 보장을 도모했으며, 1968년 4월 1일부터 전자 마크가 없는 비규격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1969.11.28
전기기기 기술도입의 일본 편중 관련 기사 (매일경제신문)

전기機器技術도입 日에너무편중
생산活動도답습
李商工차관보 業者들에시정촉
기계류輸入격증
금년에도1억3백만弗導入
내년부

8

전기공업의 부침(浮沈)과 조합원사 권익 보호의 길

1968년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속에 세계 각 나라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던 시기로서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개발 투자에 따라 외화수급계획이 꾸준히 이행되고 있었으며, 네거티브 시스템 하에서 국내 기계공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는 가운데 무역 관세 협정, 공업소유권 조정 등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영기업체의 체질 개선, 국산품의 품질 보증제도 강화, 독과점 상품 가격의 문제점 해결, 주요 수입 원료에 대한 국산화 공장 건설, 산업 주도의 고속화 등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수출 5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성장률은 13.1%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전기공업은 가뭄과 제한 송전으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심한 불황을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 10월 중 105만 kW 발전, 12월 127만 kW 전력 공급이라는 전력 수급 최대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관련 경기가 급격히 상승했다.
1969년 국내 경제는 15.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전기공업도 1965년 이래 연평균 52.3%의 놀라운 급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과의 무역역조(逆潮) 시정 대책에 따른 원자재 및 주요 시설재 도입의 어려움, 여전히 높은 관세, 수출기금 추가 부담, 환율 인상, 국내 세제 개혁, 관세율 50% 이상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대체 적립제, 전기동 공급 일원화에서 오는 매입자금 수요의 증가 등으로 모든 산업계가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전기공업계는 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구축 비율인 전화율(電化率)이 불과 30% 내외로 극히 부진했고, 전력 부족, 전기요금 인상 등이 국내 전기공업제품의 수요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저임금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일부 조명기기 및 주상 변압기 등만이 자급 가능했으나, 사용 가능한 국산 자재는 전기동 및 일반 철강재

뿐이었고, 그나마도 50% 이상의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금속공업이 낙후해 규소강판·특수강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해 온 탓에 제품 가격이 국산 수준보다 훨씬 높아 그 어려움은 한층 심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기기는 기술 도입선이 주로 일본에 편중되어 여전히 일본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이었다. 일본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결국 간접기술 도입 효과밖에 얻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 국내 시장이 매우 협소한 데다 산업구조상 전기공업의 계열화가 어려운 까닭에, 국내 업체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 제품의 국내 조립화를 시도할 뿐 국산화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밖에 산업 영역에서 가장 중추에 자리잡은 전기공업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업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조합은 조합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69년 3월 5일 "국내 냉장고의 경우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의 질이 높아졌으므로 외국산 냉장고 수입 허가를 중지해 줄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또 같은 해 4월 2일에는 '냉장고 및 공기조화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의 부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제품의 수출 실적이 50% 범위 내에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수출 시점과 부품 소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공부에 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전자전기기기에 대한 물품세 조정 건의서를 재무부와 상공부에 제출했다.

조합은 1969년 5월 9일 "TV·선풍기 등 독과점품목인 소비재 제품의 소득표준율(12%)에 비해 변압기 등 기타 전기기기 제조업은 14%라는 높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8% 이하로 조치해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건의했다, 그 결과 "세법에 규정한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실소득에 대한 응분의 과세를 받도록 하겠다", "변압기 표준율은 차기 조정 시 참고·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1968년 9월 3일, 국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관급 수요는 물론 정부의 개발 투자에 소요되는 기기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계품질보장촉진회(현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발족하였다. 조합은 이 촉진회 이사로 참여하여 이후 전동기·양수기·변압기·승강기·송풍기·용접기·축전기·공기세척기 등 9개 품목이 선정되도록 하고, 9개 조합원사가 참여하여 계약 11건, 납품 수량 199건으로 모두 128만 8,000원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생산 조합원사의 경영에 도움을 주었다.

조합은 정부에 소득표준율이나 수입허가 등과 관련한 건의로 조합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합원사의 원활한 제품 생산을 위해 일본 상사와 원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品質保障會 발족
國産機械 하자관계업무등처리
合纖직물등40個품목에
품질表示케
방출 4억뿐
夏季 貯炭資金6억중
京釜高速건설에
3백명增員키로

1968.09.04
기계품질보장촉진회 발족에
전기조합 참여를 알리는 기사
(매일경제신문)

조합은 조합원사의 원활한 제품 생산을 위해 일본상사와 규소강판 및 강대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했다. 그러나 1969년 5월 1일로 그 계약이 만료되자 일단 10월 말까지 한정적으로 계약을 연장했지만, 추후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일본의 대한국 수출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에 대비해 일본 가와쇼상사와 1,500M/T를, 신화통상과 740M/T를 계약했으며, 그 결과 가격 면에서 가장 저렴한 시기에 전년도 소요분 910.5M/T보다 많은 1,484M/T를 확보하여 조합원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했다.

8

국내 최초의 국제박람회 참가와 산하 조합 최초의 기술 및 경영 세미나 개최

조합은 1968년 59명의 조합원이 610만 원의 출자금(조합원 1인당 평균 10.4계좌 출좌)을 확보해 점차 자립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런 가운데 1968년 9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 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5만 2,000평의 대지 위에서 열린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적 박람회로서, 국내 293개 업체와 세계 10개국 102개 업체가 참가하여 자국 상품의 우수성을 과시했다. 조합은 한국무역박람회 개막에 앞서 ㈜금성사 등 11개 조합원 업체의 출품을 지원하기 위해 출품전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 업체가 우수 전시품 수출 대상 업체로 선정되도록 지원하는 등 조합원사의 제품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1968.08.30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공사현장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이어 조합원사의 신제품 개발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69년 12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전기회관 강당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조합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술 및 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일중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장, 우형주 대한전기학회장 등을 비롯하여 많은 조합원이 참석했다.

03 시련을 딛고 세계를 향해

국내 굴지의 조합으로

8

설립 후 최대 위기
_극심한 불경기와 조합 활동의 정체

1969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했던 조합은 1970년 후반 시행된 정부의 회전자금 동결로 전기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각한 불경기를 맞았다.

특히 조달청과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변압기 3대(750kVA 1대, 500kVA 2대, 계약금액 467만 2,700원) 중 500kVA 변압기의 국산 제작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규격 변경 및 납기 연장 신청을 했지만 1970년 10월 20일 수요처인 전매청은 “특성이 저하되므로 규격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조달청은 해약을 통보하고 “계약조건 위반에 따라 수요처 및 조달 구매 행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을 부적격업자로 처리했다. 그 결과 조합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큰 시련을 맞았다.

이 시기, 그동안 조합 공동구매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던 국일전기 등 4개사가 물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본의 아닌 부도를 내면서 조합은 더

욱 큰 어려움에 빠졌다. 이에 조합은 김명준 광명공업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긴급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에 나섰으며, 1970년 11월 21일 메트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제3~5대 유기숙 이사장 후임으로 제6대 조홍만 이사장(한영공업 대표)을 비롯한 임원 전원을 다시 선임했다. 또 사고업체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매권(賣權) 확보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동자산 압류, 채권 양수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71년 7월 1일부터 197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총 65개 조합원 업체 가운데 폐업한 회사는 4개, 신규 가입 회사는 3개, 제명 조합원사는 4개였다.

상공부는 1971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배정 잔액 3,590만 원과 회전비축 자금 5,890만 원 등 총 9,480만 원을 7개 협동조합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동사업자금으로 2,590만 원을 배정받아, 위기 속에서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데 주력했다.

조합은 정부의 회전자금 동결로 전기제품 수요가 떨어지면서 심각한 불경기를 맞았다. 게다가 500kVA 변압기의 국산 제작이 불가능해져 규격 변경과 납기 연장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

위기 속에 본연의 의무를 다하며

조합은 1970년 3월 3일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업무 개선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당시 수입 원자재 하역 사정이 나빠 7일 내지 10일 이상 관세창고에 적체되어 있었고, 이는 조합원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입항 즉시 하역작업에 착수하도록 할 것, 단일 화물이고 주 원자재인 경우 화주(貨主) 요청에 의해 하역업자를 지정하고 사전에 화주가 원하면 화주 지정 창고에 입고하도록 할 것, 수입 원자재인 경우 보세 이외의 다른 장소 사용을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서울~부산 간 고속선로 개통과 관련 보세 운송을 재조정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합은 또 관세용 I/L(수입승인) 접수 지연으로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1. 관세용은 분석업자로 하여금 접수토록 하는 제도 부활
2. 규격품 중량이나 길이·부피 등은 규격의 융통성(±1%) 부여
3. 규소강판과 같이 정기적으로 수입이 빈번한 동일 규격품에 대해서는 월초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분석하고 그 이후에는 분석 생략
4.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 가격 및 시가 대수의 조사에 있어서 철저한 도매가격 조사 후 보편타당성 있는 처리
5. 보세창고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엄수하여 오전 10시 이전에도 출고가 가능하도록 조치

1970년 3월 6일에는 인천중공업이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규소강판 가격을 인상하자 이에 반발,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인천중공업 대표에게 "현실에 맞게 톤당 9만 원 이하로 인하함과 동시에 외국산 열간압연을 기준으로 품질을 격상하라"고 건의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25일에는 상공부장관 앞으로 자금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당시 물품 대금은 계약 시 15%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85%는 통상 2~3개월 약속 어음을 받는 게 관행이었고, 이에 따라 업계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였다. 이에 상공부는 한국은행에 이를 통보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불경기가 본격화되자 무면허 수리업자가 환풍기·선풍기·냉장고 등의 전기용품을 대량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었다. 조합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불량 제품 대신 정상적인 규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공부에 제출했다. 또 "조합이 업체 간 과당 경쟁을 막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이 임명하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량 전기용품 생산·판매를 적극 단속하고 있으며 검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합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상공부는 전기용품을 선전할 때 상공부 형식승인번호를 넣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전기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상공부 형식승인번호를 확인하고 품질이 의심스러울 경우 상공부 전기공업과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으로 문의하라"고 권유했다.

1970.12.08
불량 전기용품 경고 기사
(매일경제)

범람하는「不良」
電氣用品
거의 基準合미달
火災事故 위험성 짙어

조합은 1971년 3월 13일,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6호 규정에 따라 중전기 개발 품목 중 154kV급 이상의 변압기 제조의 경우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6%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154kV 이상을 66kV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상공부에 요청했다. 또 상공부가 개정한 절연유 KS 규격의 일부 규격치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아짐에 따라 이를 외국 규격과 동일하게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환율 인상 및 엔화 절상 등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나 국내 전기기기 제품의 가격은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이를 올리는 방침을 세우고 양해를 구했다. 이밖에 국내 전기동 수요 대부분을 공급하는 한국광업제련회사의 전기동 공급 중단 및 출고 제한 사태가 일어나자 그 시정과 더불어 국내 전기동 수급 안정을 요청했다.

한편 가정용 전기기기의 물품세 인하와 함께 변압기용 원자재인 절연지가 관세 당국에 의해 장기간 통관 유보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생산 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었다. 조합은 이 문제와 관련, “절연지를 수입 자동 품목으로 지정하여 통관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상공부에 요청했다.

조합은 소비자가 정상적인 규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상공부에 제출했다. 각종 원자재의 수급 안정을 요청하고 인지세와 특관세 면제를 건의하며, 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조합은 1972년 7월 27일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인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조합은 1971년 1,443만 8,000여 원의 인지세를 납부해 공동사업 부진과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면제해 달라”고 국세청장에게 건의했다. 또 “동일 제품인 Permanent Magnet Bank는 외국에서 고성능 압축기로 처리했다고 특관세를 면세해 주고, 전기기기의 부품으로 영구자석의 원자재인 Alloy Powder For Ferrite Magnet(BTN-3819-90)에 대한 특관세는 70% 부과하고 있어 이를 면제해 달라”고 관세청에 건의했다.

1960년대 말까지 정부는 정책상 기초자료의 대부분을 조합원 업체의 현황을 중심으로 한 각종 통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만큼 조합이 실시하는 통계조사 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비록 각 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미흡한 점이 많아 자료 발굴 및 제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합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수집과 제출에 적극 노력했다.

조합은 상공부가 ‘조합별 수요량이 적어 공동구매 시행이 난해한 품목을 일괄 비축할 수 있는 원자재 풀(Pool)제 도입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자 이 자료를 작성, 1970년 3월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했다. 이어 3월 27일 조합원 업체의 판매촉진을 위한 자료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했으며, 6월 24일에는 전매청 요청에 따라 전동기 규격별 가격을 조사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9일에는 정부 등으로부터의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한 지역별 생산실적 조사를, 8월 21일에는 조합 조직 강화를 위한 자료를, 11월 3일에는 중소기업시책 자료를 각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했다.

조합이 조사한 원자재 풀(Pool) 대상

원자재명	연간 소요량	연간 소요 금액	소요시기	구매지역
Scrap Iron	1,500M/T	117,000달러(36,270,000원) / 단가 78달러	2~12	미국·일본
Scrap Copper	1,200M/T	1,440,000달러(464,400,000원) / 단가 1,440달러	1~12	미8군
Scrap Iron	400M/T	34,800달러(10,788,000원) / 단가 87달러	4~10	미국·일본
Aluminium Ingot	500M/T	25,670달러(7,957,700원) / 단가 51달러	2~6	미국·일본

※ 규격 99.5%

시련을 넘어 다시 성장의 길로

1971년, 조합은 1970년 후반에 발생했던 부도사건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고 조합 재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공동구매 실적이 전년의 42% 수준인 1억 3,800만 원으로 극히 부진했으며, 단체수의계약 실적도 변압기 29대 2,679만 3,000원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 납품가격이 그대로여서 입찰을 시도해도 입찰가보다 가격이 높아 유찰되는 데 따른 문제점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1971년 11월 25일 계기용 변류기(CT) 및 계기용 변압기(PT)를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1972
수해로 소형규소강대 공장이
완전 침수된 모습

1972년 10월 유신 등으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1972년 여름 전기공업계는 최악의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상공부 요청에 따라 조합이 8월 23일까지 조합원 업체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총 2억 1,280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1972년 연초 조달청은 한전의 수요 변압기 연간 총량의 단가입찰을 2회에 걸쳐 공개 입찰했으나 내정가 미달로 유찰되자 국제전기기업과 전량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국제전기기업을 제외한 전체 업체의 구매량은 2억 원이 채 되지 않아 조업 단축이 불가피했다. 다른 변압기 메이커들은 또 다른 판로로 수출에 주력하려 했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대만·일본 등의 덤핑으로 수출도 부진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조합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천전기·한영공업·신한전기·대명전기제작소 등 4개 업체가 한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조합은 1970년 후반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 침체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1972년 11월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6대 조흥만 이사장에 이어 제7대 양재권 이사장(국제전기기업 대표)을 선임하는 등 임원 전원을 교체하고 집행부 실무진을 대폭 인사 조치하여 본격적인 운영 활성화 작업을 시작했다.
조합은 국제전기기업·한영공업·이천전기공업·신한전기공업·대명전기제작소 5개 변압기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수리변압기 제3차 보유분과, 제4차분인 주상변압기 단상 3kVA 11대를 제외한 68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조합은 1972년 3월 7일 단체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최초로 계기용 변류기(CT)와 계기용 변압변류기(MOF)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해 유아전기공업 등 5개사에 배정했다.

조합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운영 활성화를 시작했다. 단체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조합원사들의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은 서서히 정상궤도를 되찾기 시작했다. 조합은 조합원사들의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동남아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변압기를 비롯한 전동기, 철탑 및 가전제품 수출 4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조합과 조합원사의 위기 극복을 알리는 또 다른 성과였다.

조합 이용도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 확대 유도

1973년 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은 1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했다.

1. 조합의 사업기능을 확대함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조합 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함
4. 조합 상임이사 임명은 주무관청 승인제로 하고 상임이사를 전무이사로 변경함
5. 감사는 감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함

이에 발맞추어 같은 해 7월 2일에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조합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때 납부금 징수규약도 개정하여, 조합원 회비를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 조합을 이용한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 제반 업무의 수수료와 사용료를 인하함으로써 조합 이용도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아울러 조합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전기기기 공장장 회의 운영 요강을 마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했다. 협동조합별

1973.02.20
전기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제11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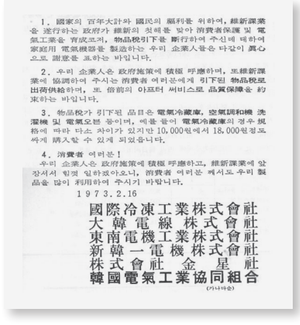
공장장 회의를 구성하여 상호 견학,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공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은 전기공업 육성·발전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조합원사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1973년, 조합은 소비자 보호와 전기공업의 발전을 위해 물품세 인하를 당국에 건의하여 전기냉장고·공기조화기·세탁기·전기오븐 등의 물품세 인하를 인정받아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었다.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조합원사인 신한전기공업·이천전기공업·한영공업·대명제작소·국제전기기업 5개 사 대표가 모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민간 사용 변압기 가격 현실화를 결의하고, 변압기 가격 24% 인상 조정을 경제기획원·상공부·조달청에 건의했다.

조합은 격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197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조합원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계의 당면한 어려움과 건의를 듣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술지도 지원계획에 따라 지도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한영공업 등 4개사를 중앙회에 제출했으며, 중소기업체 기술지도에 대동모터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지도 대상 업체에 신한일전기를 각각 선정하는 등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원자재 품귀에 대한 대처 방안과 가격 절감을 기하도록 촉구했다.

1973.02.16
전기용품 물품세 인하 관련
조합이 신문에 게재한 내용


1. 國家의 百年大計와 國民의 福利를 위하여, 維新課業을 遂行하는 政府가 維新의 첫해를 맞아 消費者保護 및 電氣工業을 育成코저, 物品稅引下를 斷行하여 주신데 대하여 家庭用 電氣機器를 製造하는 우리 企業人들은 다같이 眞心으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2. 우리 企業人은 政府施策에 積極 呼應하며, 또維新課業에 協調하여 주시는 消費者 여러분에게 引下된 物品稅로 出荷供給하며, 또 倍前의 아프터 써비스로 品質保障을 約束하는 바입니다.

3. 物品稅가 引下된 品目은 電氣冷藏庫, 空氣調和機 洗濯機 및 電氣오븐 등이며, 예를 들어 電氣冷藏庫의 경우 規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000원에서 18,000원정도 싸게 購入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4. 消費者 여러분!
우리 企業人은 政府施策에 積極 呼應하고, 維新課業에 앞장서서 힘껏 일하겠아오니, 消費者 여러분 께서도 우리 製品을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3.2.16

國際冷凍工業株式會社
大韓電線株式會社
東南電機工業株式會社
新韓一電機株式會社
株式會社 金星社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가나다순)

조합은 공업표준화법을 기초한 한국공업표준규격(KS) 제도에도 적극 부응하여, 충전용 정류기, 고압교류 차단기(6.6kV 또는 3.3kV), 교류전자개폐기, 옥내용 고압단로기(6.6kV),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6.6kV), 배선용 차단기, 고압유입 개폐기 등을 추가로 선정해 KS 선정을 공업진흥청에 건의했다.

다시 찾은 조합의 위상
_'전국 규범 조합' 선정과 '우수조합상' 수상

1970년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조합은 계획한 업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내실을 기하여 정부로부터 전국 규범 조합으로 선정되었으며, 처음으로 잉여금을 배당해 조합원의 결속을 다졌다.

1973년 말부터 정부의 가격 현실화 조치 단행 및 물가 급등, 국제통화체제의 불안과 외환 시장의 혼란, 특히 오일쇼크로 인해 우리 경제 여건은 날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협소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수출 주도 전략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정부는 1월 14일 국민 생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를 발동하여 특별 경제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치의 하나로 조합과 관련된 중소기업 특별자금 300억 원이 긴급 투입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합은 1974년 당초 계획한 업무 목표를 126% 초과 달성했으며, 조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같은 해 2월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우수조합상'을 수상했다. 1969년 5월 14일 '중소기업의 날'에 상공부로부터 '전국 규범 조합'으로 선정된 이후 다시 찾은 조합의 위상을 확인하는 성과였다.
이 같은 위상을 반영하듯, 조합은 1974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잉여금을

배당하며 조합원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했다. '조합원의 조합으로서 알차고 건전한 모범 조합'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그동안 누적된 손실 등을 보완한 결과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 조합의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9개에 머물렀다. 하지만 조합은 1974년 6월 7일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비롯한 주상유입개폐기, 충전용 정류기, 고압교류차단기, 단로기(斷路器) 등 5개 품목을 지정 요청하여 추가 지정받음으로써 총 14개로 품목을 확대했다. 단체수의계약 추가 지정을 신청했으나 제외된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KSC-4507)와 교류전기개폐기(KSA-4504)는 조합 규격으로 승인을 받았다.

정부와 업계는 또 원자재 품귀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화 개발과 자급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상공부는 수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974년 8월 5일 국산공급 가능품목을 선정하여 업계의 국산화를 적극 유도했으며, 이에 조합도 33개 국산공급 가능품목과 13개 가정용 전기제품의 실태를 조사했다.

1975.07
「월간 전기공업정보」
창간호

품목 중 수입 전기 기자재의 국산공급 불가능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서 발급업무를 공정·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합 내에 국산공급심의회를 설치하고, 전기 기자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산학연 관계자 및 유명 인사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모든 영업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보고함으로써 과세자료 양성화, 인정과세의 폐단 방지, 근거과세의 기반 조성 등을 이루기 위한 정부 조치(국세청 훈령 제479호)에 따라 조합은 전기업계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들과 힘을 모아 1975년 5월 11일 한국전기공업성실보고회원조합을 결성한 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1975년 7월에는 업계 최초의 산학 협동 정보지인 「월간 전기공업정보」를 창간했다. 전기공업기술의 개발 향상을 위한 선진기술정보를 소개하고, 해외시장정보 등을 신속히 업계에 알려야 한다는 의지였다. 이 잡지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월 500부를 제작,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기공업계와 각 공과대학·연구기관·관계 당국 등에 배부했으며, 제조 부문에서는 유일한 전기공업전문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

수입추천 발급업무 개시 및 업계 최초 산학 협동 정보지 창간

조합은 1975년 목표보다 15% 초과하는 공동사업 실적을 올리며 자립도를 향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기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사업 등을 과감히 추진했다.
같은 해 5월 21일 상공부는 정책 쇄신의 일환으로 '기계류 수입추천업무 이양에 따른 전기기기 수입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시달했다. 이에 조합은 업무 수행의 추진 일정을 수립하며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7월 1일 처음으로 '전기기기에 대한 수입추천 발급업무'(상공부 공고 제7887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조합은 신문광고와 공문 등을 통해 수입제한품목을 생산하는 비조합원사를 포함한 모든 업체가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실수요자와 수출입업자는 소정의 수입추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고지했다. 또 수입제한

전기공업계의 숙원, 중전기기시험연구소 설립의 서막을 열다

조합은 전기공업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1975년 12월 초 대한전기학회에 정책 건의를 위한 시안 작성을 의뢰하여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정부 관계기관 등과 학계·업계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여 두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전기공업계의 성장과 달리 1970년대 중반까지도 국내에는 대용량의 단락시험시설이 없어 제품의 성능 보장과 해외시장 진출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합은 1975년 1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최한 상공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시험소 설치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조합은 전기공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종합전기기기시험소 설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AIST)와 용역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초고압시험소의 설치 타당성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중전기기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락시험설비를 비롯한 초고압 특성시험설비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1976~1977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15년간 총 설치비용은 3,000만 달러인 반면 중전기기 국산화 대체와 수출 증대에 따른 외화 획득 실적은 약 4억 달러로 예상하며 시험소의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조합은 1975년 11월 21일 전기회관에서 상공부·한전·학계·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험소 설치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 1976년 2월 3일 상공부 주관 아래 관계기관 인사와 업체 대표가 모여 관민한전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가칭 '재단법인 중전기시험소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추진위 업무를 보조할 실무반을 편성하여 각계 중견 실무위원 선정, 조사 수집을 위한 해외 유명 시험연구소 시찰 조사단 6명 선발 등을 결의했다.

1975.11.21
종합전기기기시험소 설치 타당성 간담회

1976.04.02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추진위 현판식

추진위는 1976년 3월 4일 전기회관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조합은 상공부 차관보를 조합으로 초청해 전기공업인 연석 간담회를 열어 시험소 설치에 대해 협의했다. 마침내 같은 해 4월 상공부는 "시험소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정식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조합은 4월 19일 총 건설소요액 59억 원의 1차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와 상공부에 제출했다.

이어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해외기술조사단원 6명이 일본·미국·스위스·서독·네덜란드의 유명 시험연구기관을 시찰한 후 8월 말에 '시험소 설비 규모와 소요자금 총 91억 3,000만 원(내자 28억 8,000만 원, 외자 1,250만 달러 등)'의 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이처럼 꾸준히 시험소 설립을 추진한 결과 1976년 10월 13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설립자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특정연구기관 설립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 4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설립 계획을 확정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12월 29일 정부로부터 재단법인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現 한국전기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 마침내 전기공업계의 오랜 염원인 중전기기시험연구소 설립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조합을 구심점으로 하여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삼는다"는 업계의 공통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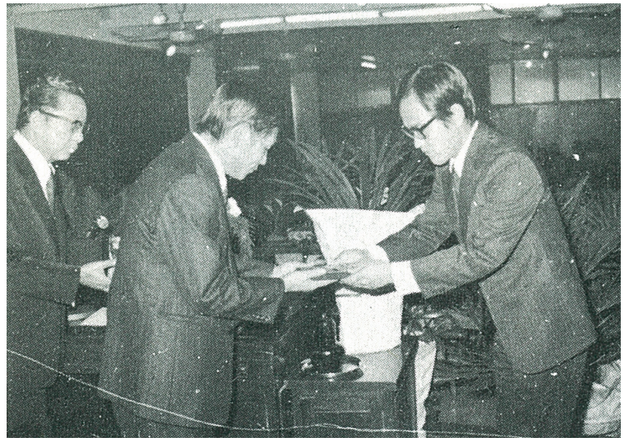
조합은 197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시행한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 활용했다. 이런 가운데 1976년에는 제조 기술상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술지도센터, KIST, 한국정밀기기센터(FIC) 등 각급 지

도기관의 전문 기술지도 요원이 일정 기간 현장에 상주하며 지도하는 지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 공장 실무와 연결하여 기능공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동청에서 시행하는 기능공 통신훈련도 시행했다.

1975년 재무부 방침에 따라 기존에 각 조합이 지정받았던 단체수의계약 품종이 모두 무효화됨에 따라 조합은 새로운 운용 요강을 정하고 1976년에 시행할 지정품목으로 17종을 신청했다. 같은 해 4월 6일 재무부가 이를 모두 지정하여 조합의 단체수의계약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한전 수주분 가운데 9억 700만 원 물량이 IBRD 국제 입찰로 이루어지고, 자율경쟁에 의해 민간수요 판매 일부 물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공동판매사업실적은 1975년보다 8% 감소한 142억 원에 그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수출 증가와 내수 진작으로 원자재를 원활히 공급할 필요성이 커져 공동구매사업은 활기를 띠었다. 특히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수입 대행 등 편리한 점이 많아 조합원의 이용도는 매년 높아졌다. 1976년 사업 실적은 전년보다 1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8억 7,400만 원을 기록하며 35%의 신장세를 이룩했다.



11976.02.18
제14회 정기총회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남문현 박사에게
감사패 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조합은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는 조사를 더욱 적극 시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전기공업계는 "조합을 구심점으로 하여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삼는다"는 공통 인식을 가졌다.

조합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그 가운데는 수도권 인구 분산 및 주거지역의 공해 방지와 관련한 장기공업 용지 수용 추정 작업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내 조합원 업체 조사, 전기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본실태조사, 과학기술연구개발용으로 제작하는 기기 및 부속품의 제조실태조사 등이 있었다. 조합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능공 실태를 파악해 수요 증가와 기술 진보에 대처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기능공 실태조사 등에도 적극 임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전기공업계는 "조합을 구심점으로 하여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삼는다"는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962년 설립 당시 27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1975년 말에는 9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조합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합은 1976년 4월 24일 조합 내에 새마을금고를 설치하기도 했다.

선진 기술 도입 기반 마련과 해외시장 개척

조합은 1968년 6월 19일 일본의 기술 정보 교환과 기술 도입을 위해 도쿄 전기공업회관에서 사단법인 일본전기공업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친선 및 정보 교환, 기술제휴 건의, 기술자 파견, 시찰단 상호 교환 및 좌담회 개최, 기술 도입 선정 건의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조합 차원의 본격적인 선진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조합은 1973년 11월 26일, 한일 양국 전기공업계의 상호시찰단 교류를 계기로 상설기구인 한일전기공업협의회를 설치하여 한일 간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1974년 5월 22일, 한일전기공업협의회 구성 이후 최초로 21명의 일본 전기공업계 대표가 서울을 방문해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수출 및 보세 가공의 적극적인 알선 및 중개를 비롯해 기술 훈련 알선, 기술 지원·제휴 구현 등을 긴밀히 토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단체의 연대 강화, 이해 증진, 수출증진 등의 성과를 얻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1974.05.22
한일전기공업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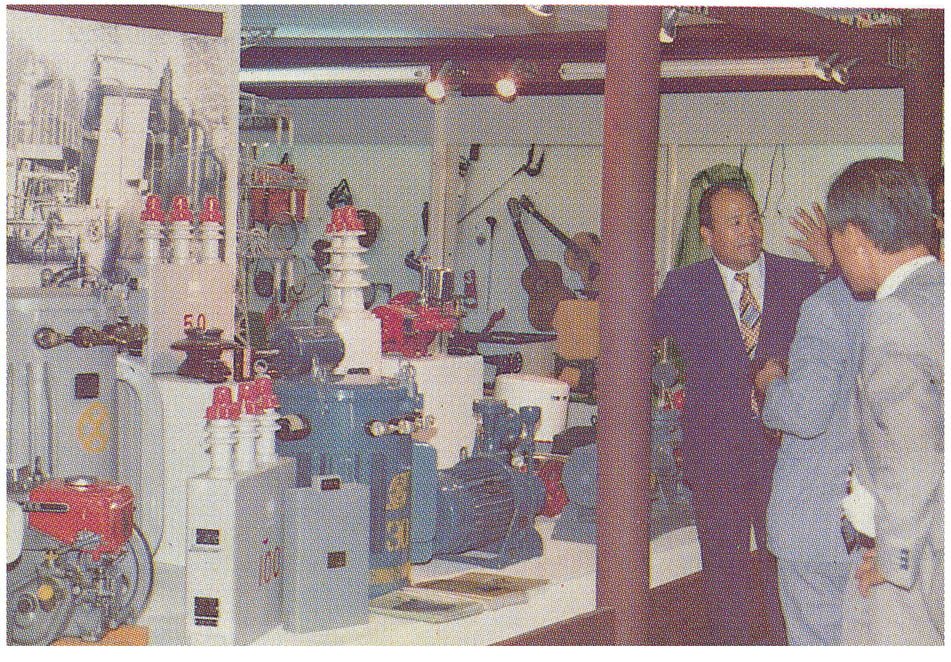
1974.10
방콕 KOTRA무역관
상품전시회 참가

측은 조합이 보장하는 업체 제품에 대한 점진적인 수입 약속과 기술요원 일본 파견 및 훈련에 합의했으며, 양측은 선박용 전기기기 개발에 함께 노력할 것과 개별업체의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1974년 11월 1일 도쿄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조합은 "조합이 보장하는 업체(신한전기 등 11개 업체)의 제품을 널리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다수의 훈련 요원 파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기술 지원 및 제휴 현실화, 합작 투자 지원 등을 논의했으며, 조합은 "제휴된 품종 외에도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1975년 9월 4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전기공업회가 주최한 한일전기공업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4개사에 대한 기술제휴와 10명의 기술훈련생 파견에 대해 협의했다.

1974년 11월 1일 도쿄에서 열린 제2차 한일전기공업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단원 일행은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한무역공사(KOTRA) 협조 아래 조합원 제품순회전시, 현지 상담을 통한 직접 세일즈 등을 위해 동남아 시장조사단으로 파견되었다. 조사단은 필리핀·싱가포르·인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6개국을 돌며 변압기·전동기·변전기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약 1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국제 입찰 100만 달러 시대로 가는 길을 열었다.
조사단은 동남아 시장 방문 후 귀국, 그 결과를 국내 조합원사 및 업계에 보고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중요 원자재 수입으로 원가에 영향이 있어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으며, 동남아 시장 중 공산국가와는 외교적 문제로 수출이 어렵고, 한국 전기공업의 발전상(像)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수출 기반 조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 업체 중 업종별로 수출지정업체를 선정하여 금융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출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조사를 매년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 중전기기의 우수성을 평가받고,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여 한국 전기공업의 발전상을 알리며, 수출을 위한 기술지도와 수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조합은 전무이사를 포함한 18명의 조사단을 구성, 1975년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35일간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3개국, 유럽의 스위스·서독 등에 파견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전동기 등의 수출 상담과 현지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입찰참가의 사전 정보를 입수했다.

1975.09
8개 조합원사 9개 품목
185점을 출품한 이란
테헤란 국제무역박람회



또 이란에서는 테헤란 국제무역박람회(9월 13일~9월 24일)에 참가하여 40여 개국 가운데 전시한 국산 전시품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지 에이전트들과 교역 및 국제 입찰을 위한 대리점 계약 희망도 이어졌다. 쿠웨이트에서는 전력용 변압기·철탑·전동기·펌프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유럽에서는 중전기기 기술의 발전을 관찰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정관리기법 도입 추진, 서독 AEG-Telefunken과의 전동기 합작 투자 혹은 기술제휴에 대한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은 1976년 12월 3일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막한 제2차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로도 이어졌다.

다양한 시장 개척 활동으로 해외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조합원 생산제품을 출품해 현지 바이어의 호평 속에 구매를 촉진하던 조합은 이 같은 활동을 강화하고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1975년 11월 19일 '수출추천 업무 위임'을 상공부에 건의했다.

1976.11.10
16개 조합원사
민간무역사절단의 미국 뉴욕
제너럴모터스 방문

조합은 "이 업무를 통해 수출경쟁에서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 증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제품 선택 및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에서 신뢰성 보장, 제조업체의 기회 균등, 수출로 인한 손실 방지 및 견실한 수출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1976년 한 해 동안 해외시장조사단을 남미와 일본 및 북미 등 6개국에 추가로 파견하여 해외시장을 넓히고, 태국의 유력 인사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해외시장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1976년 수출목표 1,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으며, 활동 범위 확대에 따라 106개 조합원 업체와 함께하는 국내 굴지의 조합, 그 견고한 기반을 다져 갔다.

제2장

드넓은 곳을 비추다

1977 — 1988

사업 영역 확대와 조합원사 경쟁력 강화

01 업계와 정부,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되다

용산 시대의 개막과 업계 발전, 해외시장 개척 가속화

조합 창립 15주년 만에 이룬 숙원, 자체 회관 확보

1975년 총 106개사였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조합원 수는 1976년 총 141개사로 늘어났다. 이 같은 조합 규모의 확대와 위상 제고에 부응하고 조합원의 더욱 폭넓은 활동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규모가 큰 조합 회관이 필요했다.

그동안 대한전기협회 소유인 전기회관 내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던 조합은 1976년 10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대림산업건설 사옥을 매입, 1977년 1월 23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조합 창립 15년 만에 '자체 회관 확보'의 숙원을 풀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조합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합원의 우수생산제품 전시 및 공동판매 장소, 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을 위한 외국 내빈과의 상담 장소 등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체 회관을 매입해 이전한 직후인 1977년 1월 29일에는 양재권 이사장이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1972년 11월부터 조합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용산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다.

1987
1977년 구입한
용산구 동자동 사옥의 모습

1977.01.29
새로 마련된
전기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

조합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무역단체와의 정보 교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각 중전기기 제작 기술 서적과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978년 회관 내에 자료실을 운용하기도 했다.

국제 입찰 참가 승인 추천 업무 추가 수행

자체 회관 마련을 계기로 조합의 대내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국내 전력사용량, 제품 생산 및 출하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응찰액 50만 달러 이상인 건에 대해서만 국제 입찰 참가 추천을 하던 상공부는 1977년 1월부터 중전기 및 전기제품에 대한 국제 입찰 참가 승인 추천 업무를 '국내 업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 단체'에서 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국내 업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 단체'는 바로 조합이었다.
상공부는 국제 입찰 참가 승인 추천 업무 기준을 변경함과 동시에 조합에 관련 업무를 이관했다. 이에 따라 업체 간 경합 및 과당 경쟁 시 기술적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입찰에서 컨소시엄 형성이나 창구 일원화가 필요할 때 이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장 개척 단계인 데다 국내 업체들이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여 만들고 있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불리한 가격, 기술력 및 참가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업무 이관 후 낙찰 실적은 4건으로 다소 부진했다.
이후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간 조합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변압기 분야에서 320만 달러의 낙찰 실적을 올렸으며, 1977년 한 해 동안 31건의 입찰 건을 조정해 국내 업자 간 출혈 경쟁을 막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78년에 국제 입찰 사전 조정 업무는 다시 상공부로 이관되었으나, 조합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상공부 기술기획과장을 파견하도록 하고, 조합의 해당 품목인 배선기구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1977년 국제 입찰 참가 현황

입찰일	입찰국	품명	참가자	
			상사명	제조명
01.24	이란	변압기	정화산업	신한전기
02.08	말레이시아	변압기	대우실업, 금호실업	국제(기), 한영공업
02.15	말레이시아	변압기	㈜쌍용, 대우실업	쌍용전기, 신한전기
03.14	태국	WHM	대한전선	대한전선
03.14	이집트	전동기	삼성물산	신명전기
04.11	대만	철탑	대우실업	세운산업
04.15	파키스탄	철탑	대우실업	국제전기
04.16	파키스탄	변압기	대우실업	한영공업
04.29	태국	적산전력계	대한전선	대한전선
05.04	태국	변압기	효성물산, 전화산업	한영공업, 신한전기
05.17	아르헨티나	변압기	효성물산	한영공업
05.17	쿠웨이트	변압기	효성물산	한영공업
06.14	브라질	변압기	삼성물산	국제(기)
06.14	태국	변압기	효성물산, 정화산업	한영공업, 신한전기
06.15	버마	Sup-station	삼성물산	남양전업
06.16	싱가포르	변압기	금호실업	한영공업
06.30	태국	변압기	정화산업	신한전기
07.19	필리핀	변압기	국제(기)	국제(기)
08.04	필리핀	변압기	반도상사, 대우실업	이천전기, 신한전기
08.04	필리핀	Connector & Clamp, WHM	대우실업, 반도상사	일진금속, 금성계전

입찰일	입찰국	품명	참가자	
			상사명	제조명
08.16	필리핀	변압기	국제(기)	국제(기)
09.23	태국	변압기	㈜쌍용	쌍용전기
10.03	요르단	변압기	㈜쌍용, 효성물산	쌍용전기, 효성중공업
10.20	나이지리아	변압기	현대종합상사	국제(기), 인천
10.29	이집트	전동기	삼성물산	㈜신명
10.31	인도네시아	발전기	대우실업	대양중공업
11.08	말레이시아	변압기	㈜선경, ㈜쌍용	이천전기, 쌍용전기
11.12	파키스탄	WHM	반도상사	금성계전
11.23	우루과이	WHM	반도상사	금성계전
11.29	쿠웨이트	변압기	삼경물산, 효성물산	국제전기(기), 효성중공업
12.26	이란	변압기	정화산업	신한전기

'중소기업의 해' 원년, 기술지도 사업 체계화를 통한 업계 발전 추구

1977년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술지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KIST에 품질관리 지도를 건의하여 여러 조합원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이어갔다. 특히 같은 해 5월 18일에는 제조업체 간부 및 업계 전기주임 기술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전기학회·대한전기기술협회와 공동으로 일본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일본의 변압기 제작과 절연유의 동향'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1978.06.08
공업진흥청 주최 사내표준화교육

정부가 1978년을 '중소기업의 해'로 지정하면서 업종별 경영 및 기술 보급과 지도사업이 더욱 활성화된 가운데, 기술 지도사업 대상 조합원 업체는 1978년 25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기술 지도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정밀기기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업진흥청도 기존의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기술지도를 지양하고 최고경영자 교육, 사내 표준화 교육, 기술지도 등으로 체계화했다. 공업진흥청은 1차로 1978년 3월 14일 대한무역협회에서 최고경영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동기와 전기용접기 등 생산조합원 19개사가 이 교육에 참여했다.

조합도 이 같은 정부 차원의 기술지도 활성화에 부응하여 1978년 6월 8일 사내 표준화 교육을 실시했다. 공업진흥청과 공업표준협회에서 담당한 이 교육에는 모두 78개사 112명이 참가했다.

1977년 국제 입찰 참가 현황

지도종류	업체명	분야	기간
경영지도	조흥전기산업사, 명광공업사	용접기	04.25~29
한국정밀기기센터(FIC) 기술지도	길평전기, 신양전기	가전제품	5월~11월
현장기술지도	삼성사	용접기	10.10~10.15
	동서콘트롤㈜	Timer	11.27~12.01
	삼천전기㈜	NFB	12.02~12.06
열관리지도	성창전기㈜	Hearter	12.06~12.09
IESC	한일로공업㈜	전기로	12.02~(3개월간)
공업진흥청	16개사		7~8월 중(25일간)

정부와 기업을 잇는 국내 굴지의 조합으로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은 1977년 초부터 6월 13일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79개 조합원사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발전기 등 14개 품목에 대한 중전기기 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기간 중인 5월 19일에 상공부에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중전기 공업육성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중전기기 수급현황(단위: 백만원)

품명	구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연평균증가율(%)
전기 용접기	공급	생산	94	62	192	258	338	861	
		수입	1,103	1,596	452	1,360	1,217	2,819	
	계		1,197	1,658	644	1,618	1,555	3,680	25.8
	수요	내수	1,154	1,512	578	966	1,463	3,526	
		수출	43	146	66	652	92	154	
발전기 (AC)	공급	생산	66	59	135	345	679	1,061	
		수입	-	-	1,609	8,845	6,840	10,926	
	계		66	59	1,744	9,190	7,519	11,987	183.0
	수요	내수	51	11	1,635	9,182	7,479	11,884	
		수출	15	48	109	8	40	103	
계전기	공급	생산	57	62	71	97	88	78	
		수입	334	543	1,919	1,771	1,364	1,017	
	계		391	605	1,990	1,868	1,452	1,095	22.9
	수요	내수	390	598	1,976	1,853	1,322	939	
		수출	1	7	14	15	130	156	
전동기	공급	생산	1,301	1,456	3,196	5,393	6,845	10,372	
		수입	1,841	3,768	2,177	1,851	1,412	5,167	
	계		3,142	5,224	5,373	7,244	8,257	15,539	37.7
	수요	내수	3,130	5,183	5,047	6,290	7,436	13,783	
		수출	12	41	327	954	821	1,756	
배전반 및 제어반	공급	생산	13	64	115	559	417	797	
		수입	5,466	7,400	4,095	4,938	9,691	10,398	
	계		5,479	7,464	4,210	5,497	10,108	11,195	15.4
	수요	내수	5,479	7,464	4,210	5,497	10,108	11,195	
		수출	-	-	-	-	-	-	
변압기	공급	생산	2,610	2,618	5,770	10,617	10,119	10,745	
		수입	615	1,054	9,835	4,686	3,752	2,818	
	계		3,225	3,672	15,605	15,303	13,871	13,563	33.3
	수요	내수	3,225	3,672	15,375	14,476	12,589	12,675	
		수출			230	827	1,102	888	
계기용 변압기	공급	생산			79	128	185	197	
		수입	1,773	4,449	218	1,154	5,515	6,283	
	계		1,773	4,449	297	1,282	5,700	6,480	29.6
	수요	내수	1,173	4,449	297	1,282	5,700	6,480	
		수출	-	-	-	-	-	-	
계기용 변류기	공급	생산	-	106	287	366	711	986	
		수입	-	-	-	-	-	-	
	계			106	287	366	711	986	74.6
	수요	내수	-	106	287	366	711	986	
		수출	-	-	-	-	-	-	
계기용 변압 변류기 (MOF)	공급	생산	9	111	165	243	292	370	
		수입	-	-	-	-	-	-	
	계		9	111	165	243	292	370	35.1
	수요	내수	9	111	165	243	292	370	
		수출	-	-	-	-	-	-	
정류기	공급	생산	21	80	116	353	440	562	
		수입	403	1,472	681	435	399	419	
	계		424	1,552	797	788	839	981	18.3
	수요	내수	424	1,552	797	788	839	981	
		수출	-	-	-	-	-	-	
리액터 (Reactor)	공급	생산		7	76	140	157	206	
		수입	87	159	22	165	12	75	
	계		87	166	98	305	169	281	26.4
	수요	내수	87	166	98	305	169	281	
		수출	-	-	-	-	-	-	
전기로	공급	생산			21	74	127	403	
		수입	933	1,072	2,729	2,923	1,932	5,344	
	계		933	1,072	2,750	2,997	2,059	5,747	43.9
	수요	내수	-	-	2,750	2,997	2,059	5,747	
		수출	-	-	-	-	-	-	
전동공구	공급	생산	44	61	136	192	215	458	
		수입	29	197	407	486	466	902	
	계		73	258	543	678	681	1,360	79.5
	수요	내수	65	247	520	633	598	1,286	
		수출	8	11	23	45	83	74	

1978.02.23
제16회 정기총회

연구기관, 경제단체, 정부기관 등의 전문가 21명이 파악한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상공부는 1977년에 70개 중소기업형 전문 기계공장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조합원 업체는 6개사였다. 1978년 7월 20일에는 제3차연도 중소기업형 전문 기계공장으로 4개 조합원 업체가 추가 지정되었다.
1978년 들어와 상공부가 배선기구 제조 중소기업을 특화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자 조합은 조합원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5월 19일 총 11개 업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추천했다. 그 결과 8월 25일 한가람산업이 특화업체로 지정되어 시설 및 운전자금 장기 저리 지원, 종합상사들의 수출에 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상공부는 1977년 12월 31일 강압기 등 4개 품목을 단체 수의계약품목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단체 수의계약품목은 총 21개로 확대되었다.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공동판매 활동 및 소요 원자재 염가 구매 공급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경영 합리화 지도, 산학협동, 전기공업단지 조성 및 공동사업장 설치 등을 적극 추진했다.
1978년 회원사가 2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굴지의 조합으로 성장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전동기, DC전동기, 전장품(크레인), 전기로, 특수변압기, 변압기, 엔진(발전기), 용접기, 차단기, 산업용 펌프 등을 기업합병 장려 업종으로 추천했다. 그리고 상공부가 이들 업종 및 회사들을 기업합병 장려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굴지의 조합다운 괄목할 성과를 이어갔다.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공동판매 활동 및 소요 원자재 염가 구매 공급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경영 합리화 지도, 산학협동, 전기공업단지 조성 및 공동사업장 설치 등을 적극 추진했다.

1978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조합이 대기업을 제외한 전 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평균 가동률은 90% 이상으로 조업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 부족 및 인력 확보, 자금 조달과 판매, 원부자재 적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시설 노화와 영세성, 대기업의 생산 및 판매 시장 점유, 동업자 간 과도한 경쟁, 공인시험기관 중복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합은 원활한 자금 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 생산의 전문화와 기업 간의 계열생산체제, 생산과 판매에서의 대기업 침투 배제, 해외시장 개척 기회 부여, 원부자재 적기 확보, 공동구매 품목 확대, 노화 시설 교체 및 신규 시설, 관납 제품의 적정가 확보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합은 또 조합원 업체의 현황과 애로 사항을 조사하여, 단체수의계약의 강제 규정화를 요청하고, 예상보다 지연된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조기 완공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전기공업진흥법 제정, 공동사업장 설치 지원, 주요 원부자재 비축, 전문지도 요원 확보, 수입어음의 결제 기간 연장, 조합 가입 의무화, 공장새마을 지도 업무 일원화와 복지 후생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조합은 1978년 6월 중전기기 공업 분야를 종합 분석한 건의서를 마련해 상공부에 제출하여 중전기기 공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패턴이 대용량·고압화·소형화 추세로 이행되고 있는 까닭에 여전히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있지만 원자재의 적기 안정공급 체제와 기술개발 체제가 확립된다면 국내 중전기기 공업도 1980년대 후반에는 대외경쟁 체제가 성숙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입 기술의 소화 능력 및 기술개발 능력과 관련 법규가 미흡한 점, 원자재 등 수입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계의 기반 조성이 미흡한 점,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과다한 점 등 제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때 조합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1. 전기공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기계공업과 별도의 육성 전략 수립
2. 수출산업으로의 이행에 따른 수출지원 체제 확립
3. 생산설비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강화
4. 관수품 국산 발주 및 플랜트 수출 시 국산제품 사용
5. 관납 가격의 현실화
6. 원자재 조달조건의 개선
7. 국내에서 시행하는 국제 입찰 시 10~15% 범위 내에서 국내 업체에 입찰가격 상의 혜택 부여
8. 기술 도입선과 원자재 도입선의 대일 편중 지양

8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 수출 강국으로 가는 길에 앞장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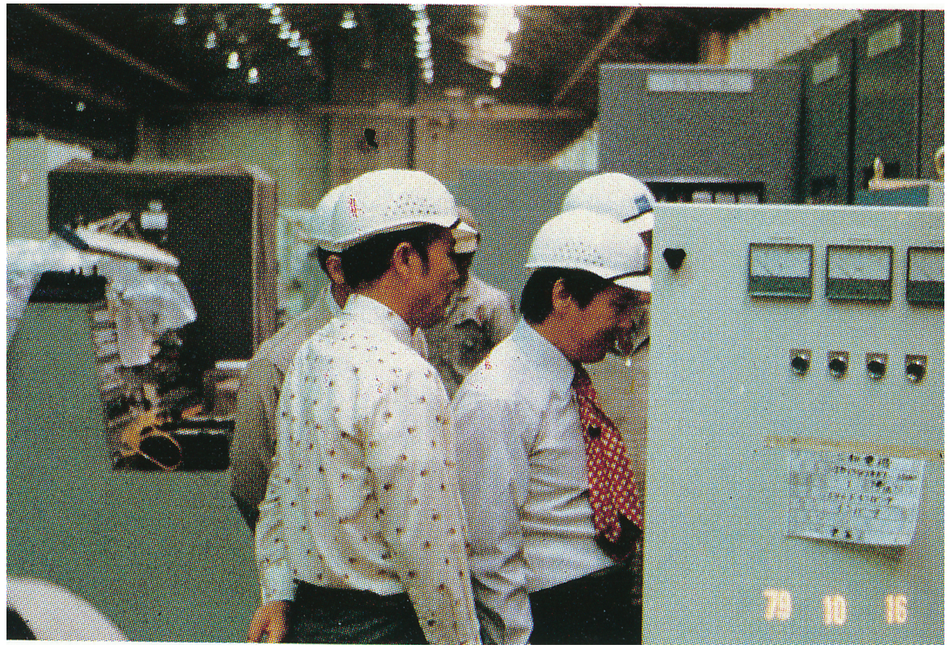
한국은 1977년 마침내 수출 100억 달러 고지에 올랐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한 것이었다. 1978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는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업종별 및 품목별 분과위로 분류한 후 각각 분석반을 설치하는 등 정부의 수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했다. 이에 조합도 적극 참여하여,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철탑, 콘덴서, 적산전력량계, 배전반 및 개폐기 등 8개 품목에 대한 분석반을 편성하여 전경련과 국제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1978년 7월 30일 기계·전기업계 등의 최고경영자,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정책 개선 및 보완 방향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정부로부터 할당된 1978년 3,800만 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조합 내에 수출독려반을 설치하고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 반으로 나누어 수출 비상업무에 들어갔다.
수출독려반은 업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의 수출지원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었다. 수출독려반은 8월 10일 모든 수출 독려 대상업체 실무자를 소집하여 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

1. 중전 분야는 국제 입찰 의존도가 높고 특히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불리할 뿐 아니라 국내 업자 간 무모한 경쟁 때문에 자체 손실이 크다.
2. 국내에 초고압 분야의 공인시험설비가 없다.
3. 수출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수집 등이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독려반은 국제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수출보상제도의 잠정적 부활, 건설 기자재 수출 시 국내 설비나 제품 사용 의무화, 주요 원부자재 조기 국산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업체별 수출 이행을 독려하고 수출 시 애로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정부에 보고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조합은 1978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태국과 필리핀에서 열린 기계류 및 하드웨어 제품 전시회에 국내 최초로 전기공업제품을 출품(5개사

1979.10.16
해외시장조사단 일본
후지전기(주)
이바라키 공장 시찰
•



총 41점)하면서 동남아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주관한 동남아기계류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는 등 조합원사의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최대 종합무역박람회에 변압기·전동기·철탑 등을 출품하여 이 지역을 동유럽 수출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했다. 또 11월 6일부터 엿새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서일본 한국상품전시회에 2개사 총 101점의 제품을 출품했으며, 한국종합전시회 개장 기념 무역박람회 및 상설전시장에도 조합 부스를 배정받아 적극 참가했다.

조합은 197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장장 34일 동안 동남아 지역과 이란·터키·일본·스위스·서독 등 12개국에 총 15명의 해외시장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다양한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공업인 또는 관련 단체와 상호 정보를 교환했으며, 적극적인 현지 상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조사단은 귀국 후 가진 보고회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동남아 지역은 중전기기 생산 공장이 거의 없어 전력사업의 모든 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주로 일본·미국·서독 등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나라마다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사업 기술이 달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조그마한 기초 기술부터 고도의 기술까지 재정비하여 원가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참고하여 조합은 1979년 10월 14일 총 17명으로 구성된 해외시장조사단을 일본·덴마크·스웨덴·영국 등 10개국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각국에서 협의회나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시장 정보를 수집했으며, 정부의 해외건설용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무역공사가 발간한 종합 카탈로그에 총 26개 조합원 업체의 생산제품을 게재하여 조합원 업체의 시장 개척에 힘을 실었다.

02 한국 전기공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다

21세기를 앞둔 미래 좌표 제시

오일쇼크 속,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다

1979년은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제조원가 상승으로 제품 판매가 부진해짐에 따라 업계의 자금 압박 부담이 커진 해였다. 아울러 국내외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까지 이어져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인한 조업 중단과 휴·폐업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조합은 공동사업 목표를 44%나 초과 달성하는 등 1978년 대비 145%의 높은 실적을 올리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특히 전기공업계의 경영기반 강화를 위해 7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조합 창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전문기관(한국산업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종합 대책조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했다. 조합은 이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전기공업 육성 시책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게 했다.

조합은 1979년 4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된 전기기기 업종에 대한 간담회에서 전기공업진흥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정

부 비축을 통해 중소기업용 수입 원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담보물 설정 가격의 100% 대출에 관한 건, 수입어음 결제 기간 중 기간 산정에서 공휴일 제외 건, 고유중소기업형(전열기구) 및 중소기업형 전문기계업종(철탑) 등에 대한 중소기업 우수육성업종 추가 건 등을 건의했다. 조합의 건의 사항 중에는 중소기업 범위의 특례업종에 배선기구를 추가해달라는 건도 있었다. 배선기구 제조업체의 특성상 단순기능공이 많으나 종업원 수가 300인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대기업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전기용접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40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 이들 업체의 도산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 개정, 전기용접기의 특화업종 품목 추가 등도 건의했다.

1979.02.21
제17회 정기총회 중 결의문 채택

기술 개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분야별 기술협의회 구성

조합은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상부상조의 계기를 만들고자 1979년 고압차단기 등 17개 제품 분야별 기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조합 전무이사 주최로 조합 회관 강당에서 처음 열린 차단기업계 기술협의회에서는 올바른 기업 정신 구축과 체질 개선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1. 스스로 독립된 업계의 정비와 관련 부품 및 소재공업 육성이 시급하다.
2. 제품 표준화 및 규격의 확대, 기술지도를 통한 국산화 추진에 정부의 극적인 지원 시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품 분야별 기술협의회는 주로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보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업계가 요구하는 각종 기술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입수·전파하고, 업계의 공동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했다. 특히 기술 축적 및 완전 국산화가 부진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 향상과 제품 개발 추진을 적극 유도하고, 품목별 품질 제고와 경영 합리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기술협의회 개최 현황

품명	회의일시	참석업체(인원)	품명	회의일시	참석업체(인원)
차단기(고압)	01.12	13(19)	용접기	06.22	4(9)
차단기(고압)	05.22	18(23)	용접기	07.07	6(10)
차단기(고압)	05.31	17(21)	누전차단기	07.12	5(8)
전동공구	06.08	2(7)	애자	07.19	2(4)
전열기구	06.15	6(11)			

업계 보호를 위한 더욱 큰 보폭
_지원 대상업체 확대와 공장·인력 수급을 위한 노력

1979년 조합 알선으로 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은 조합원 업체는 총 42개사(기술 28개사, 경영 14개사)였으며, 상공부가 공고한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에 전기기기·발전기 등 20개 품목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밖에 47개 고유 업종 중 배선기구 업종이 유일하게 조합 소관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으로는 11개사(기존 업체 포함 총 26개사)가, 고유중소기업육성업체는 3개사가 지정되었다.

조합은 1980년대 들어서도 각종 자료 보급과 조합원사의 기술 향상 및 경영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80년 한 해 동안 조합의 32개 업체가 정부의 근대화실천 승인업체 지정을 받았다. 또 4월 1일 조합원 업체 17개 사가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으로 추가 지정받아 전체 지정 업체는 전년도의 26개사에서 43개사로 늘어났다.

1980년 우선육성업종 근대화실천 승인업체(총 32개)

업종	업체명	업종	업체명
전동기	보국전기, 시대전기, 신명전기, 오무전기, 연전제작소, 태양공업	소형전동기	㈜성신, 효성전기, 대동전기, 새한전자
변압기	국제전기, ㈜삼능전기, 성진전기	전열기구	대한전열
차단기	삼천전기	전기계측기	한일계전
배전반	선도기업, 태화기형, 신화제작소	전기로	한일로, 대한로
용접기	한흥전기	펌프	정우공업, 하지공업, 태신공업
정류기	이화전기, 대명전자, 동아전기	밸브	국제밸브
전압조정기	제일정밀사	용융도금	보성산업
전동공구	계양전기		

1980년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 추가 지정 업체(17개)

업체명	분야	업체명	분야
삼천리전기㈜	NFB	오무전기	전동기
선도기업㈜	수배전선	봉신공업㈜	펌프
문명전기	수배전선	대한전열	Heater
㈜신화제작소	수배전선	효성전기㈜	소형모터
부산전기제작소	용접기	㈜성신	소형모터
용광전기공업㈜	용접기	보성물산㈜	응용도금
일신전기공업㈜	콘덴서	진성정밀㈜	Connector
제일산야	전압조정기	국제밸브㈜	Valve
한국미다찌	전동기구		

1980년 이후 경공업 위주의 수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국민경제 발전과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기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형 수출산업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비,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의 품질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자율 규제를 실시했다. 또 중소기업육성대책의 하나로 500개 중소기계공장을 선정해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우선 7개 업종 43개 품목을 지정했다.

1980년 1월 7일 금구(金具)류와 기중(氣中) 부하개폐기 등 4개 품목이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어 대상 품목은 모두 27개에 이르렀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81년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조합의 민간수요 공동판매를 비롯한 단체수의계약 업무가 이 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경쟁 제한행위 승인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까지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부응하여 조합은 1981년 9월 10일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계열화 공동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상공부 승인을 받았다. 승인업체는 종업원 수 9인 이하 업체를 제외한 모기업 62개사, 수급 기업 245개사(조합원 모기업 43개사, 수급 기업 14개사)이었으며, 변압기 등 11개 업종 및 지정 계열화 품목이 총 77개였다.

1980년 단체수의계약대상 품종

품목	규격	품목	규격
변압기	수요처규격	교류아크용접기	KSC-9602
수배전반	수요처규격	가반점용접기	KSC-9603
정류기	수요처규격	강판용점용접기	KSC-9604
계기용 변압기	KSC-1702	정류기식 직류 아크용접기	KSC-9605
계기용 변류기	KSC-1703	강압기	KSC-9613 한전규격
교류차단기	KSC-4611, ESB-150-150-297	애자	수요처규격
유도전동기	KSC-4202, 4203, KSC-4204, 4207	배선용 차단기	KSC-8321
단로기	KSC-4502	누전차단기	KSC-4613
주상유입개폐기	KSC-4501	저압진상콘덴서	KSC-4801
소켓	KSC-830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KSC-4802
콘센트 및 플러그	KSC-8305	기중부하 개폐기	한전규격
철탑	수요처규격	금구류	ESC-118-101-789 ESB-220-190-196 ESB-104-165-433
발전기	수요처규격		
나이프스위치	KSC-8310		

이런 가운데 1979년 공업배치법 및 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은 공업 지역으로 이전해야 했다. 조합은 수도권 내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 이전을 희망하는 27개 사를 파악해 5월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합은 1979년 이전까지 반월단지 내 입주 예정 조합원을 위한 협업화 공장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조합은 이와 별도로 1979년 2월 10일 경기·경남 지역 전기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15개사가 경기 지역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도 화성에 전기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2월 27일 정부의 중소기업 집단화 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조합은 상공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1979년 5월 10부터 5월 23일까지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 실태를 파악, 조합원 64개 사의 부족 인력을 1,001명(평균 15명)으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술인력을 단기 양성하여 조합원 업체에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합은 수출 촉진을 위해 시설 보완 지원이 필요한 17개사를 조사하여 총 7개 업체의 자료를 제출했다. 또 조합원 업체가 1980년도 외화대부 및 국민투자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별 시설투자 계획을 조사하고, "15개사에 내자 60억 7,700만 원, 외화 989만 5,000달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상공부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1980년 1월 8일 상공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조합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금융·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관수품의 계획 발주, 공급 체제 확립 및 물가연동제 계약 방식 채택 등 가격의 현실화를 요청하고, 업체 규모별 특화품목의 확대 지정, 전기공업진흥법 제정도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범주를 기존 300인 이하에서 500인 이하로 확대 조정해 줄 것, 5개 품목에 불과한 기존 조합 소관 지정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을 추가할 것 등을 상공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두루 요청했다.
같은 해 6월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계 당면문제 협의를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조합은 경기 침체로 인한 휴·폐업 사태의 심각성,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연간 조달 물량 조기 발주, 정상수요 외에 예비소요를 감안한 충분한 수급 책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합은 1980년대에도 각종 자료 보급과 조합원사의 기술 향상 및 경영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환경보전법 등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며 각종 조사활동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1984년에는 조합원 업체의 대다수 업종이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으로 지정되었고, 중소기업 근대화계획을 추진하는 업체는 5개사였으며, 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되어 각급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조합원이 22개사에 달했다. 조합은 정부의 계열화 조성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기공업 분야에서 전동력 응용기기 등 9개 업종 151개 품목을 계열화시키고, 모기업 66개, 수급업체 367개사 간의 계열화를 촉진하여 분업을 통한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중소기업에 특히 불리한 도급 대금 지연 등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근대화실천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업체

구분	발굴기관	업체명
근대화	중소기업진흥공단	동방전기제작소, 대한전기공업사, ㈜뉴택시스템스, ㈜코아라, 신아전기공업㈜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코아라, ㈜태화기연, 선도기업㈜, ㈜태양공업, 한국미싱공업㈜, 대동기공㈜, 대한전기공업사, 동방전기제작소, 보성물산㈜
	한국과학기술원	㈜동아전기제작소, 우신기업사
	국민은행	현대전기공업㈜, 조양실업
	조흥은행	동아전기공업㈜, ㈜우성전기, 한창전기공업사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제일유기화학공업㈜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세명전기공업㈜, 보국전기공업㈜
	서울신탁은행	국제전기㈜
	중소기업은행	태무전기상사, 천흥전기공업㈜

정부는 1983년 8월 11일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103개로 대폭 확대 지정했다. 이 중 조합 소관의 정류기 및 무정전전원장치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범용 AC Arc 용접기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모두 7개 업종이 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보하게 해주는 장치로서, 대기업의 배제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측 사업조정요건도 크게 완화되어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합동으로 1984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미 지정된 정류기 및 UPS 업종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했으며, 이때 관련 사업을 한 대기업의 생산능력, 실적 및 시설 등을 확인하여 보고했다. 정부는 이들 우선 육성업종을 재정립하는 계획에 따라 조합 소관업종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조합은 1차로 애자와 전기용접기 및 철탑을, 2차로 변압기를 비롯한 주요 전기공업 제품을 포괄적으로 묶어 대부분 지정되도록 했다.

안전·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계 최초 품질관리 추진본부 설치

1979년 3월 27일 새벽 서울대학교병원 옥외변전실에 설치된 유입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 내 전기 공급이 9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불량 차단기 수입규제 조치를 내렸다. 또 병원 등 절대 안전이 필요한 주요 시설의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일률적인 수입규제를 단행하여 주요 시설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상공부는 23kV급 이하 차단기의 품질 향상과 안전 관리를 위해 6월 1일부터 기술 도입 제품 및 차단용량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동력자원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국내에 시험설비가 없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한계가 있었다. 조합은 이 같은 업계의 뜻을 모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에 시행 유예를 청원했다. 이에 정부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시행을 6개월간 연장하여 1979년 12월 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상공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보장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조합은 기존 조합 지정 검사소인 체신청 전기통신검사소 외에 1980년 10월 16일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이 밖에도 공업진흥청에서 품질 향상이 시급한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에 '국민 생활 긴요 물자 품질 향상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에

제품의 품질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조합도 정부로부터 품질관리 추진 기능을 위임받아 전기공업 분야 품질관리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조직적인 품질관리 운동을 추친해 안전한 제품 생산에 이바지하였다.

1982.05.13
전기공업품질관리촉진대회 및 강연회

1982.09.03
1982년도 전기공업분야 공장새마을 품질관리경진대회

따라 조합은 가정용 소형전압조정기업체를 비롯해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K.S 단순화 명령 품목 고시와 이행에 대한 공업진흥청의 준비 기한은 1979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1월 1일부터 조합이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했으며, 이후 산업용 전기기기부품 단순화 명령 품목 사후 관리 업무 요령에 따라 관련 전동기 업체에 대한 상시 검토 결과를 공업진흥청에 보고했다.

조합은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품질관리 추진 기능을 위임받아 1982년 5월 13일 업계 최초로 '전기공업 분야 품질관리 추진본부'를 조합 내에 설치·운영했다. 이 본부는 품질관리정착 유도를 위한 품질관리 운동 추진 요강을 제정하고, 조직적인 품질관리 운동을 추진해 품질관리체제를 전 업계에 확산시켜 나갔다. 품질관리 진흥업무를 비롯해 교육 관계, 분임조 활동의 추진·보급을 위한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황 유지, 보고 등의 업무를 시행했다.

'전기공업 분야 품질관리 추진본부'를 설치한 5월 13일 제1회 품질관리촉진대회가 조합원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열렸다. 이어 9월 3일에는 공업진흥청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공업 분야 공장새마을 품질관리촉진대회가 열렸다. 이날 총 6개 분임조가 발표에 나선 가운데 이천전기공업이 최우수상을, 계양전기 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사 직원 등 총 116명이 참가한 가운데 1982년 6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계층별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실무지침 등을 중심으로 각 과정마다 이틀씩 품질관리제도 보급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업체가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발전하도록 조합원 업체 중견 간부 40명이 같은 해 10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성신·포항제철·현대중전기 등 품질관리 우수공장을 견학했다. 또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직 간부 요원 해외 견학 지도 계획에 따라 조합 기술과장을 포함한 총 14명이 일본 중전기기 제조업체와 공장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실질적인 소집단활동 등 생활화된 품질관리 현장을 둘러보았다.

1983년 9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업체의 생산직 종업원 40명이 반월공업단지에 있는 품질관리 우수공장과 창원공업단지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소 등을 견학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조합 직원을 포함해 총 12개사 13명이 일본의 배전반 이바라키단지협동조합 등 5개 공장과 일본전기공업회 등을 견학함으로써 경영개선과 기술개발 의욕을 다졌다.

정부의 중점육성품목 가운데 배전반과 제어반은 업체 난립으로 국산화가 저조하고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일된 규격도 정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같은 점을 파악한 조합은 표준 규격을 제정하기로 했다.

1983.09.27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창원분소
단락시험설비 견학

1983.10.11~20
해외견학지도
(일본 배전반 이바라키단지조합)

조합은 정부 중점육성 품목 중 배전반과 제어반에 필요한 9개 부문에 대한 규격안을 마련해 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국산화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

조합은 각종 표준 규격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안을 작성, 관련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회의의 검토를 거쳐 1982년 11월 10일 배전반의 배선 방법, 접지, 정격 컨트롤 센터, 폐쇄배전반, 저압폐쇄배전반,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어반의 구조 일반과 취부(取付, 축의 설치, 베어링 배열, 축의 확장에 관한 기기 요소들의 배열) 기구, 색채 등 9개 부문에 대한 규격안을 마련, 공업진흥청에 규격 승인을 신청했다.

조합은 전기기기제품의 수요가 점차 소프트화·전자화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행사를 통해 기술혁신 의식을 고취하고 품질관리 안정화 지도를 했다. 그 일환으로 배전반 및 제어반의 통일된 규격 제품을 보급하고자 단체 규격을 제정하여 1984년 1월 9일 공업진흥청 승인을 받아 업계에 배포했다.

한편 시험소 부족은 제품의 신뢰도와 기술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문제였다. 마침내 1982년 10월부터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단락시험 및 고전압 시험연구 설비가 설치되어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부득이하게 외국시험 기관에 의지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8 한국 전기공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조합은 국내 전기공업의 발전과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1980년 9월 10일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전기기기공업의 특성과 역할, 한국전기기기공업의 발전 과정, 해외전기공업의 동향, 제조의 수급 사정, 시설 현황, 기술 수준, 경영실태, 전기공업의 육성 대책, 전망 및 과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전기공업 육성을 위해 제품의 대용량화·고급화·양산화를 추구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연계 관계를 유지,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등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합은 1981년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중전기기 생산성 향상 조사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중전기기 부문 종합중전기기업체와 전문업체 간의 사업 분야 조정 및 품

목별 투자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였다. 조합은 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12개 품목별 전문화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했으며, 업체들의 전문화와 사업 분야 조정, 국제경쟁력 차원의 내용 등을 수록하여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정책 구상에 좋은 안내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개선하고, 특히 설비의 근대화, 규모의 적정화, 경영의 합리화, 유통 질서의 확립 등을 통해 경영 여건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목별 중소기업 근대화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에 조합은 전무이사 책임하에 직원 5명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1981년 7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소관 품목인 중전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조합 자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는 제품의 성능 및 품질, 생산비 등의 근대화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근대화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신제품 및 신기술, 설비의 근대화, 생산 및 경영의 적정화, 경쟁의 정상화 등을 필요 사항으로, 종업원 복지 향상, 소비자 이익 증진, 환경 보전 등을 고려 사항으로 분류했다.

조합은 1983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중전기기공업 제품별 품질관리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과 업계 및 정부 시책 자료로 제공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업종별·품목별 생산구조, 품질관리 운용 실태 분석과 품질관리 추진 방안, 업종별 국제 경쟁력 평가, 품목별 불량생산요인 분석, 부문별 품질관리 운용상의 문제점 등이었다.

조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품목별 중소기업 근대화계획(안) 수립에 부응하여 소관 품목인 중전기 등 11개 품목을 조사하고 조합 자체 계획안을 마련했다.

8

더욱 넓은 세계로
_중동 진출의 계기 마련과 전기공업계 최초 아프리카 시장 개척

조합은 1980년 2월 19일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전기공업협의회에 참가하여 양국 간 무역역조 시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합원 업체 11개사가 22개 품목을 출품한 도쿄 한국기계전에서 한국 제품 및 부품을 평가한 후 수입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품목별·등급

1980.02.19
한일전기공업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별 협력 대상 모색, 국제 입찰 참가의 분업화 협력, 양국 간 기술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해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무역박람회에 조합원 업체 2개사가 변압기 등을 출품했다.

지속적인 수출 촉진을 위해 조합은 1981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중동 전기기기박람회에 9개사 54개 제품을 출품하여 중동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20일 동안 9명의 동남아 지역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마닐라·방콕·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싱가포르·대만의 무역관과 전기제품 전문 시장을 견학하도록 했다.

이어 198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27일간 조합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한 총 10명의 전기·전자분야 민간무역사절단을 이집트·나이지리아·라이베리아·코트디부아르 등지로 파견했다. 전기공업계 최초의 아프리카 개척이었다.

이들은 전반적인 시장 현황을 살피고 현지 무역관을 통해 유력 바이어들과 리셉션을 가졌으며, 투숙 호텔에 상담실을 마련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79만 달러 상당의 현지 계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동시에 사절단은 전기공업 분야 단체와 전력공사 등 전기기구 주요 구매 기

관을 방문, 전기기자재 구매계획 등 광범위한 정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아프리카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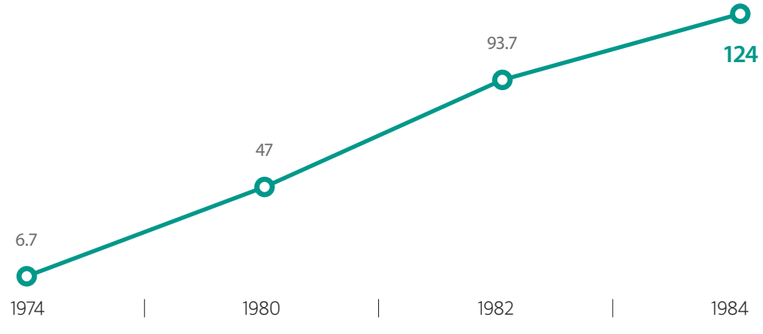
1982년 첫 아프리카 개척에 이어 1983년에는 해외시장 개척 파견단 11명을 중남미 4개국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현지 바이어 등과 상담·접촉을 통해 현지 계약 포함 1,2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1981.11.19
동남아시아 민간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 전기전자공업협회 방문

조합은 매년 수출목표를 정하고 조합원 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여 1974년부터 1983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18.5배라는 경이로운 수출 신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수출 신장에 따라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제공과 이전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새로운 상품 발굴과 품질 개선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야 했다.

매년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해외 유력인사 초청,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가, KOTRA를 통한 수출 정보 보급 등에 주력해온 조합은 1984년 6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동남아 지역에 민간무역사절단을 파견, 총 1,948만 2,000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조합 수출 신장 추세(단위: 100만 달러)



8

대기업과의 연대 속에 중소기업을 지키는 길

조합은 1980년 1월 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8회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조합에 가입할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얻고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14개사 외에 대한전선·현대중전기 2개사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 3월 4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자로 상공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조합의 대기업 비율이 7%를 차지하게 되어 조합원 상호이익을 도모함은 물론 업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82년, 조합의 전기공업 계열화 조성 사업은 18개 업종 105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모기업 78개사, 수급 기업 322개사에 이르렀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따르면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업종에 속하는 모기업과, 지정 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위탁받는 수급기업이 속하는 협동조합 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조합의 경우는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계열화 품목 52개 수급업체 167개사가 전기 이외의 타 분야로 되어 있어 사후 관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조합은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문제점을 검토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1982.02.25
제20회 정기총회

조합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상공부의 '단체수의계약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해 이미 조합 단체수의계약수혜기준(물량 배분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사업 규정과는 별도로 대기업의 수혜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독립규정안을 마련하여 1982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확정,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이지만 배분 물량이 대기업으로 과도하게 배정되는 폐단을 막고자 배분 기준을 총회 의결로 정해 총 계약물량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조합은 이 상한선을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중앙회는 대기업에 대한 물량 배분 비중을 연차적으로 감소하도록 지도 감독했다.

조합은 전기공업의 고도화기반 구축에 사업 목표를 두고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운동, 조사통계 업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특히 1983년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대상 품목이 106개로 대폭 늘어나 물량과 수혜폭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올렸다.
정부의 중소기업 근대화계획 승인업체도 40여 개로 늘었으며,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시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 해 동안 30개사가 발굴되어 지원을 받았다. 조합의 계열화 조성 사업도 9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전기공업의 내실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공부의 계열화 업종 및 품목 확대 개정 고시 계획에 따라 계열화 조성 공동사업 계획안을 상공부에 제출하여 1983년 11월 9일에 승인받았다.

1983년 계열화 사업 현황

구분	부품수	모(母)기업체	수급기업체	계
전동력 응용기계	33	8	98	106
전열기구	18	13	97	110
전동기	12	15	52	67
변압기	13	8	32	40
전동공구	12	3	14	17
적산전력계	9	3	10	13
전자(電磁) 개폐기	15	10	36	46
누전 및 배선용 차단기	14			
용접기	17	3	11	14
계	143	63	350	413

1984년 들어와 조합은 자금 지원 품목을 8개에서 23개으로 확대 신청하여 승인받아 집행하고, 3/4분기에는 특별 지원 자금도 배정받아 조합원 업체에 지원했다. 또 단체수의계약품목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공사·조달청·상공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내외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물량 배정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각 조합원 업체의 생산실적과 능력, 조합 기여도·참여도 등을 고려한 후 적정한 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가장 앞서가는 협의회, 전기공업민간협의회 구성 및 수입 업무 수행

1983년 2월 18일 양재권 이사장이 취임한 지 만 10년 3개월 만에 이임하고, 김동수 중립전기공업 대표이사가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김동수 이사장은 지병으로 인해 1984년 2월 24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같은 해 4월 10일 임시 총회에서 이갑순 대한로제작소 대표이사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같은 경영 체제 변화 속에 조합은 1984년 10월 학계·업계 저명인사 13명으로 전기공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양질의 전기공업정보지를 만들고자 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과 학계·업계 등에 신제품 및 최신 기술 동향 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다.

1983.02.18
제11대 김동수 이사장이 취임한
제21회 정기총회

1984.04.13
제12대 이갑순 이사장 취임식

1985
전기공업육성위원회 회의

이와 함께 각 품목별 기술위원회를 발족시켜, 같은 종류의 품목끼리 공동 기술 개발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용이하게 기술 전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공제기금 조성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단체 중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1983년 계열화 사업 현황

직위	이름	근무처 및 직위
위원장	이용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위원	이승원	서울대 공대 교수
	김항래	상공부 전기공업과 과장
	이승구	중앙회 업무부 부장
	김명준	광명공업사 대표
	김준철	국제전기㈜ 대표이사
	손성택	㈜을지전기 대표이사

직위	이름	근무처 및 직위
위원	장순명	㈜광명전기 대표이사
	정병철	현대전기공업㈜ 대표이사
	박석탁	우신기업사 대표
	선우학영	동일전기기업㈜ 대표이사
	박길상	신한전기공업㈜ 이사
	변종달	대한전기협회 부장

1980년대 중반 들어와 정부는 경제 시책 전반에 걸쳐 민간 주도 기조를 바탕으로 개방·자율의 경제 아래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공업발전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을 서둘렀다. 이에 부응하여 조합은 1985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11673호와 '산업정책심의회 규정과 운영 세칙'에 따라 업계·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 전문가 15인으로 전기공업민간협의회(위원장 효성중공업 박경섭 부사장)를 구성했다. 이후 상공부의 첫 과제인 중전기공업의 수출증진방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22개 산업별·기능별 협의회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협의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변환기기, 수배전반, 변압기, 변성기기, 철탑금구, 차단기, 개폐기, 전기용접기, 전기로, 배선기구, 회전기기 및 애자 등 11개 업종의 각 기업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한 업종별 기술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조합은 다양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1984년 10월 19일 기획과를 신설하고 업무과를 공판1·2과로 확대하는 등 3부 8과 체제로 직제를 개편했다.

1985.07.10
전기공업민간협의회 현판식

KEMC Episode #01

결단력과 추진력, 원활한 소통능력 겸비한 합리적 인물 : 내가 아는 양재권 전 전기조합 이사장

조부영 전 국회부의장·현 백제문화연구소 이사장

내가 양재권 전 이사장을 전기계에서 만난 것은 1970년대 초 국제전기에서 영업부장을 거쳐 상무로 일하면서였다. 이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였으나 양 전 이사장이 위기에 처한 국제전기를 1970년대 초에 인수하면서 함께 일해보자며 나를 영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변압기를 중심으로 한 송·배전기기를 납품하는 국내 빅3 기업은 이천전기, 한영전기공업, 국제전기의 3곳이 대표적이었다. 함께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 양재권 전 이사장은 대단히 명민한 사람이었다.

결단력과 신속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주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나에 대한 신뢰는 남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대만에서 있었던 고압송전선로(345㎸) 국제입찰 당시 국제전기로서는 회사 형편상 반드시 낙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입찰가격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낮아 입찰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양 전 이사장은 입찰 참가를 무조건 고수하는 입장이었다.

거의 싸우다시피 한 두 사람의 입장이었지만 양 전 이사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 나의 말을 들어줬고 결국 그러한 결정은 회사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키워나가던 양 전 이사장은 해외시장으로도 일찍 눈을 돌렸다. 석유파동 때문에 고생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로는 획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철탑을 수출하기도 했으며, 브라질에 통신용 철탑을 수출하기도 했다.

비록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 결국 수출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등지로의 활발한 진출 시도는 당시 우리 기업으로는 획기적인 활동이었다.

양 전 이사장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진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양 전 이사장의 역할은 매우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조합의 공동구·판매 사업을 현실적으로 정착시킨 인물이 바로 양 전 이사장이다. 그 이전에는 전기조합의 공동구·판매 사업이 크게 성과가 없었으나 양 전 이사장이 전기조합을 맡으면서 사업이 크게 확대·정착됐고, 사업 규모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이른바 전기조합의 본격적인 도약기를 양 전 이사장이 마련한 것이었다.

조합의 인재 영입에도 노력하여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전기조합은 발전기반을 확실히 닦으면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닦기도 한 양 이사장이지만, 무엇보다도 전기조합과 전기계에 끼친 그의 영향력과 흔적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전기계의 발전에 파급되고 있다고 믿어 마지않는다.

03 함께 하는 조합,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조합 업무 개선과 업무 전산화

1986년 조합은 총회 의결에 따라 업무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준 광명공업사 대표)를 구성하여 연중 12회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조합 업무 개선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이를 통해 지도·개선을 추진했으며, 더욱 새롭고 비전 있는 사업을 발굴해 과감히 추진해 나갔다. 그중 공동구매·판매사업은 전년보다 15% 신장하면서 조합 설립 이래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기업과 정부, 각급 기관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조합도 다양한 업무 수행, 특히 대외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1984년 12월 19일 16비트 PC(TG-88)를 구입, 본격적인 업무 전산화를 시작했다. 이후 종합 전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조합 전산화 추진 요령'을 제정하고, 1986년 6월 9일 전산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전무이사)를 구성, 업무 종합 분석과 전산화 기본 계획을 완성했다. 이 계획에 따라 1986년 12월 1일부터 1987년 7월 31일까지 직원 컴퓨터 전문 교육

을 실시하고 일반회계 관리, 조합원 관리, 공동구매·판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도입 등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적극 부응했다.

조합은 약 3년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업무 종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1987년 9월 4일 1차로 전산실 컴퓨터 가동식을 가졌다. 조합은 1989년까지 조합 업무 전산화를 완성하고, 1995년까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2000년까지 조합원 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완성한다는 계획 아래 전산화 완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갔다.

1987.09.04
전산실 가동식

국산화 추진 가속화와 4년 만의 한일전기공업협의회 부활

1980년 초반, 국내 전기공업계에서 제품 국산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조합은 조합원 업체의 기술 수준 및 품목별 국산화 현황을 조사하여 상공부에 국산화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1984년에 와서도 중전기기 제품은 자립도가 63.4%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정부 위임 업무인 수입추천 업무를 통해 국산 공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수입 추천된 기자재의 통계 및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발췌하여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국산화 촉진에 기여했다. 아울러 조합은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른 수입추천 업무 합리화를 위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1985년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뢰하여 대행하던 공동구매 등의 수입 업무를 조합에서 직접 취급(수출입업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도 등 28개국의 해외 인콰이어리(Inquiry) 송·수신 62건을 처리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18개국 218개 전기제품 유력 수입상 명단과 11개국 39개 전기공업단체 현황 조사를 실시해 각종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기도 했다.

1986년 전기공업은 경제 호황과 더불어 안정된 성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전년보다 생산이 10% 증가하며 수요도 점차 늘었다. 하지만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현실에서 엔고(円高) 현상 때문에 애로를 겪는 업체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계류와 부품 및 소재에 대한 국산화 대책을 핵심 상공시책으로 정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 대상 품목을 발굴·고시했으며, 국산화 추진업체를 금융·세제·기술 및 기타 행정 면에서 중점 지원했다.

이러한 상공부의 전기공업제품 국산화 추진 지침에 따라 조합은 1986년 6월 전기공업국산화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전무이사)를 설치하고 6월 27일부터 3차에 걸쳐 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진품목 조사·발굴·심의는 물론 수입대체를 위한 제품개발 촉진에 주력했다. 이후 '연간 수입 규모가 품목당 10만 달러 이상, 완제품 및 소재 100만 달러 이상이고, 대일 수입 비중이 40% 이상인 품목'과 국산화 개발 시 관련 사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품목, 수출 유망 품목 등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진공밸브 등 7

1986.05.13
전기분야부품공업육성위원회 회의

개 품목이 고시되었으며, 조합은 추가로 보호계전기 등 9개 품목 고시를 건의했다.

조합은 한국의 전기공업계를 대표하여 1985년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산하 한일중견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합은 이 위원회에서 첨단기술 이전에 중점을 두고, 한국이 생산 가능한 분야는 한국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일본이 담당하는 분업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일본의 성공사례와 첨단 생산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국내외 사정으로 1981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전기공업협의회가 4년간의 공백 끝에 1985년 5월 30일 도쿄에서 열렸다. 이 제2기 제1차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16명이 참석, 수입자유화정책과 관련한 업계의 대응책 등 5개 항을 상정하고 향후 대책 및 협력 방안을 토의했으며, 회의 기간 중 일본 쓰쿠바국제과학기술박람회도 참관했다.
전기공업육성위원회는 1985년 4월 29일 제2차 회의를 갖고 한일전기공업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의 한국 측 제안 건, 애자 등 5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 업종 추가 지정 건 등을 논의했다. 또 "7월 1일부터 수입자유화가 이뤄지는 전기로 및 전기용접기의 경우 막대한 개발비의 회수 불능에 따른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입자유화를 2~3년간 연기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1985.05.30
한일전기공업협의회
제2기 제1회 정기회의

1985.05.31
일본 쓰쿠바 엑스포 참관단

1986년에는 창립 이래 최초로 전기기기 영문판 종합 카탈로그 <KEMC Electrical Equipment>를 제작하여 해외 무역관·공관·바이어를 비롯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배부했다. 이 최초의 영문 카탈로그는 각계의 호응을 얻으며 제품 거래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수입자유화 시대, 업계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매진하다

자체 혁신 노력과 병행하여 조합은 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유의 업무에도 만전을 기했다.

조합은 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유의 업무에도 만전을 기했다. 금구류 제작 실태를 조사해 보완을 유도하고 조합 내 인력은행 설치를 검토했으며, 국제 입찰 참가의 창구 역할을 인정받았다.

조합은 1985년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23개 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금구류 업체의 개별 제작 능력 등 실태를 조사하여 제작에 지장이 없는 업체 8개, 설비를 보완해야 하는 업체 7개, 금구업체로는 부적합한 업체 2개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한전 등 수요처 시설 기준에 다소 미흡한 업체는 합당한 설비를 갖추도록 적극 권장하고, 설비를 보완해야 하는 업체는 6개월간 행정지도를 통해 보완을 유도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배정을 중지했다. 또 금구류와 무관한 타 업종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본업에 정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금구류 배정에서 제외했다.

조합은 1985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합원 업체 애로사항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구직난 해소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 내 인력은행 설치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종업원 22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은행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93.5%(기술·기능인력 64.9%, 고급인력 11.7%, 전문직 5.3%)로 나타났다.

1986년 단체수의계약 주종품목인 일단접지 주상 변압기 및 현수애자 상당량을 한전에서 IBRD 차관 자금으로 구매하게 됨에 따라 조합은 정부(상공부·동력자원부) 및 관계업체(한전) 등에 그 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 결과 국제 입찰 구매 결정 시 당초 계획물량을 크게 조정받았으며, 조합이 입찰 참가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 변압기 공판 참

1986.06.21
조합원사 최고경영자 세미나

여업체(9개사)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국제 입찰 1·2차에 참가, 변압기 1만 5,823대분을 낙찰받았다.

1986년 6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경주에서 열린 조합원 업체 최고경영자 세미나에는 총 4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 시책,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 보급 등을 논의하고 인근 월성원자력발전소와 현대중전기를 견학했다. 조합은 또 같은 해 10월 16일 전기회관에서 총 103명의 조합원 및 전기 관련 기술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재료 발전 전망, 특허 제도, 최신 디지털보호 계전기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기공업계에 품질관리 도입 촉진 및 지도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이어갔다. 먼저 조합원 업체 사원들을 포함한 40명이 6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전기연구소와 우수품질관리 공장을 견학했다. 이어 6월 26일에는 48개사 206명이 참관한 가운데 6개사 6개 분임조가 참가한 전기공업 분야 공장새마을 품질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9월 29일에는 조합원 업체 직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관리분임조 추진자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1987년 이른바 6·29 선언과 더불어 자유화 물결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나 많은 기업이 시련을 겪었다. 같은 해 7월 지적소유권 발효와 전기제품 대부분의 수입자유화에 따라 업계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더욱 투철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에서 조합은 계열화 업무 확대에 주력했으며, 1987년 말까지 94개 품목, 모기업체 55개, 수급기업체 301개가 참여했다. 이로써 조합 소관 중소기업 고유 업종은 Arc 용접기, 컷아웃 스위치, 기중부하개폐기, 고장 구간 자동개폐기, Recloser, 정류기, 무정전전원장치 등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은 변압기 제조업,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전기 기계제조업 등 9개 업종이 선정·운영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대화 계획 실천업체는 55개사, 유망중소기업 승인업체는 121개사 등이었다.

조합은 1987년 4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기공업제품 국산화 대책위원회를 세 차례 소집하여 각각 마그네틱 밸브 등 21개 품목 24개사(4월 27일), 인버터 Arc Welder 등 10개 품목(6월 15일), 인버터 Arc Welder 등 12개 품목 11개사(9월 10일)를 선정했다. 또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품목별·국가별 수입추천 업무 관련 수입추천 심의회를 총 10회 개최하면서 1987년 5월 말까지 3,000만 달러 규모의 품목별 수입추천을 시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일 이후 발전기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업무를 접게 되었다.

조합은 한국공업표준협회 및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와 함께 1988년 7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진단했으며, 한국전기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기제품 품질인증보증제도 개선방안연

1986.10.16
기술향상과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기술세미나
•
1988.06
동남아 민간무역사절단 태국 방문
•

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계와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에 제공했다.

또 전기공업 현안 협의를 위해 1988년 3월 5일, 12월 15일, 12월 27일 세 차례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공밸브 국산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으며,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력전자기기, 전자제어전동공구, 자동조절반, 방폭형 전기기기 등의 공업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71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같은 노력은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으로 이어졌다. 조합은 198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동남아 지역 민간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295만 달러의 계약을 확정하고 192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여 총 상담액 487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또 1988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동남아 민간무역사절단을 대만·태국·말레이시아·홍콩 등에 파견하고,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베네수엘라·페루·칠레·브라질 등에 중남미 시장조사단을 파견하여 시장 개척에 나섰다.

조합은 계열화 업무 확대에 주력하고 조합원사의 품질관리를 진단했으며,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업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과제를 발굴하여 그 성과가 해외시장 개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의 숙원 사업, 전기공업계 최초 협동화공장 탄생

조합은 정부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협동화 사업에 적극 호응하고자 유형 개발 보급에도 주력했다. 조합이 관장하는 품목 가운데 규모나 기술 면에서 취약한 배전반 업종의 경우, 반월공업단지 내 협동화 사업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1985년 12월 23일 한서통신공업 등 8개 업체가 협동화 사업 진단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식 제출했으며, 이후 사업장 설치 추진을 더욱 본격화하여 대지 6,000평을 확보했다. 반월공업단지 내 협동화 사업장 설치 사업 규모는 총 27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약 70%는 진흥기금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NC 등 최신 자동설비와 분채식 도장 설비를 갖추어 수배전반 제조 부문의 근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참가업체의 결속이었다. 따라서 조합은 한국배전반협동소조합을 사업 주체로 정한 후, 소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한서통신공업 장장순 대표)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1987.09.11
중앙배전반공업협동소조합
기공식

반월공단 내 배전반 협동화 사업장은 조합이 꾸준히 추진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조합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1986년 10월 8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기공업계 최초로 반월중앙배전반협동소조합 설립 허가를 받았다. 사업 기간은 1986년 5월부터 1987년 9월까지였으며, 대지 6,000평에 건물 3,720평, 총사업비는 31억 7,300만 원(업체 9억 6,300만 원 투입, 나머지는 공단 지원)이었다.

창립 4반세기
_함께 하는 조합,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조합은 1987년 4월 창립 25주년을 맞아 「조합 25년사」를 발간, 4반세기 동안 걸어온 도전의 여정(旅程)을 기록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5주년 및 25년사 발간 기념 자축 리셉션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사 간 협력 도모를 위해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협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협조하는 풍토를 만들기로 했다.

1987.05.21
창립 25주년 기념식

1987년 8월 1일에는 전기공업계의 선구자이자 조합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장병찬 초대 이사장 공적비 제막식을 열었다.

조합은 1987년 7월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조합원 업체의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조속히 복구해 빠른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도 6월 13일에는 자연보호 캠페인 및 산악정화대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6월 16일에는 중소기업장학재단 선정자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8월 7일에는 전기공학도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같은 해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혜심고아원, 동자동파출소, 전농동 '소망의 집', 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기공업 분야 품질관리추진본부는 1987년 11월 11일 중앙국립극장에서 열린 '전국 공장새마을 품질관리 표준화대회'에서 영예의 우수추진본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국 중소기업 분야 27개 업종별 추진본부 중 최초의 수상이었다. 1982년 조합이 공업진흥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업종별(전기공업 분야) 품질관리추진본부로 지정받은 후 전 임직원이 전기공업계의 품질관리 운동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1988년 한 해 동안 65개사가 신규로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의 총 조합원은 322개사로 늘어났다. 조합은 같은 해 3월 30일, 1987년과 1988년 신규 가입업체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1988년 들어 회원사가 300개사를 넘기는 등 조직이 확대되면서 조합은 내부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 매월 말일을 '임직원 대화의 날'로 정하고, 2월 29일 그 첫 모임을 가졌다. 같은 해 5월 21일에는 창립 제26주년을 기념하는 제1차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상호 간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1987.11.11
조합이 업종별 추진본부 중 최초로 받은
우수추진본부상(국무총리상)
•
1988.05.21
창립 26주년 체육대회
•

제3장

더욱 밝은 곳을 보다

1989 — 1997

도약의 기반과 성장 플랫폼 구축

01 조합인의 결속과 업계 제품 품질 제고

신길동 시대 개막과

21세기 도약을 위한 준비

신길동 시대 개막 및 전기제품상설전시장 개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새로운 자체 회관 구입을 마치고 1989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2동 103-10번지로 이전했다. 신사옥의 이름은 '전기조합회관'으로 명명했다.

조합은 1962년 4월 21일 설립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30-2번지 자성빌딩 307호에서 첫 업무를 개시한 후 1963년 4월 15일 중구 을지로 2가로, 다시 1967년 7월 15일 중구 수표동에 위치한 전기회관 3층으로 이전한 바 있다. 그리고 1977년 10월 22일 용산구 동자동에 처음으로 자체 사옥을 구입한 이후 꾸준한 확장세에 힘입어 1988년부터 조합회관 확장에 나섰다.

조합은 1988년 7월 5일 제3차 이사회에서 기존 동자동 회관을 매매하고 영등포구 신길동에 새로운 회관을 구매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어 7월 12

1989.02.17
전기조합회관 이전 기념 및 개관식

1989.05.26
전기제품 상설전시장 개장

1995.04
「월간 전기공업정보」에 실린
전기조합회관 조감도를 활용한
조합 이미지 광고

일 신사옥인수위원회, 사옥 개·보수를 위한 신회관개수공사추진본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전기조합회관의 이전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아울러 사옥 일부를 임대하여 조합 수익원으로 삼기 위해 10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제3장 제16조(업무)에 제11항과 제12항을 각각 신설하여 새 회관 매입에 따른 '회관관리 및 임대사업'과 '조합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신사업'을 수행할 것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명동·을지로·수표동·용산 시대에 이어 1989년 마침내 신길동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1989년 2월 17일 개관식을 연 전기조합회관은 토지 1,310m²(396.27평), 지하 1층 포함 총 8층 건물 3,561.4m²(1,077.31평) 규모로, 1층에는 조합원 제품 상설전시장, 7층에는 대회의실·중회의실·소회의실, 5층에 사무실을 두고 나머지 공간은 외부에 임대했다. 개·보수비를 포함한 총매입비는 19억 9,500만 원이었다.

사옥 이전 후 약 3개월 만인 1989년 5월 26일 조합은 전기조합회관 1층에 전기제품 상설전시장을 정식으로 개관했다. 그동안 업계의 염원이던 상설전시장을 개장하면서 조합원 업체의 제품을 널리 홍보하게 되었으며, 제품 판로 확대 및 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총면적 297.5m²(90평) 규모의 이 상설전시장에는 27개사 673종의 제품이 전시되었다.

8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조합 조직 개편과 원로 전기공업인 친목회 결성

조합은 새로운 회관 입주와 아울러 1989년 5월 26일 이사회를 개최, 직제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의 확대·발전에 따라 집행부 기능과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조합 조직을 1실 3부 11과 1사무소로 개편하여, 기획관리실·홍보실·수출입과를 신설하고, 기존 관리부는 총무부로, 관리부 관리과는 기획관리실 회원관리과로, 기술부의 진흥과와 조사과는 각각 기술지도과와 기술조사과로, 사업부 공판 1·2과는 사업 1·2과로, 부산분사무소는 부산사무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이어 1990년 7월 3일 이사회에서는 업무부에 사업총괄과, 기술부에 진흥과를 각각 신설하고, 수출입과와 홍보과를 폐지했으며, 회원관리과를 회원과로, 기술지도과를 지도과로, 조사과를 자료조사과로 명칭을 바꾸는 직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부산사무소장의 직급을 3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격상하여 부산지역 50여 조합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1990.02.08
원로전기공업인 초청간담회

한편 1990년 2월 8일에는 원로 전기공업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전기공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개진을 위해 양재권·이갑순·배수억 전 이사장과 이용희 삼천전기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 전기공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 모임은 같은 해 7월 12일 원로 전기공업인 친목회 결성으로 이어져, 전기공업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과 조합원 업체 간의 친목 도모 기능을 수행했다.

조합은 1990년 3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상공부 단체수의계약운영지침에 부합하도록 조합의 단체수의계약물품 배분 규정 제4조(배분 기준) 제4항을 보완 개정했으며, 제1항인 수혜기준 항목 중 종전의 수출실적 배점 15%를 삭제하고, 생산능력 또는 생산(판매) 실적 25% 중에서 제조설비 5%를 10%로 상향 조정하여 30%로 변경했다.
또 '신규가입조합원에 대하여는 실태 파악 및 전체 배당 비율의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동안 제한해 오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5조(배분 제한) 제4항의 시한을 '3개월'로 조정하여 배정에 대한 조합원사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조합은 새로운 회관 입주와 함께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원로전기공업인 초청간담회를 열었으며, 단체수의계약물품 배분 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사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30년 만의 지방자치제 부활과 전국 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협의회 구성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61년 군사정권 수립 후 사라졌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부활하였다. 그리고 1991년 30년 만의 지방의회선거 및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다.

조합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조합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환기적 상황에서 조합원의 관리 체계 정립과 실질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지역별 협의회 및 회장

지역	협의회장	소속 및 직위	지역	협의회장	소속 및 직위
부천	유황근	㈜시대전기 대표	서울서부	이명언	㈜원방전원 대표
인천	곽양일	조일전기공업사 대표	서울남부	전수명	제일정밀사 대표
경기남부	이용희	삼천전기㈜ 대표	경기동부	이삼암	삼정전기공업㈜ 대표
서울성동	유재균	한광전기공업㈜ 대표	서울북부	김영성	조일성업전기㈜ 대표

조합은 1차로 1990년 4월 19일과 4월 20일 경기도 부천 및 인천, 5월 9일과 5월 10일 경기남부 및 서울성동, 6월 12일과 6월 14일 서울서부 및 서울남부, 6월 15일과 6월 19일 경기동부 및 서울북부 등 8개 지역별 협의회를 연이어 결성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초까지 지역협의회 결성을 마치고 9월 10일 전국 지역협의회 회장단과 간사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조합은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며, 조합원 간 상호구매 알선 등을 통한 서로의 이익 증진, 조합 업무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 사항 수집 등을 병행해 나갔다.

품질관리 심사기관 지정 및 제1호 지정 업체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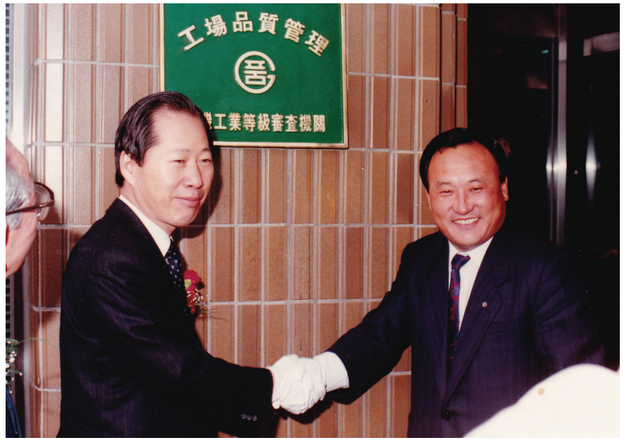
조합은 1982년 공업진흥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업종별(전기공업 분야) 품질관리추진본부 지정을 받았으며, 이후 전기공업계의 품질관리 운동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87년 11월 전국 중소기업 분야 27개 업종별 추진본부 중 최초로 우수추진본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 해의 품질관리 추진 결과를 총결산하는 '전국품질관리·표준화대회'에서 조합은 1989년 11월 10일과 1990년 11월 14일 연이어 품질관리 우수추진본부상을 수상했다.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생산제품의 고급화는 물론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원가절감을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합은 1989년 12월 1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을 받아 1990년 1월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1990년 2월 13일에는 공업진흥청장을 비롯하여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임이사 등 관련 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관리심사기관 현판식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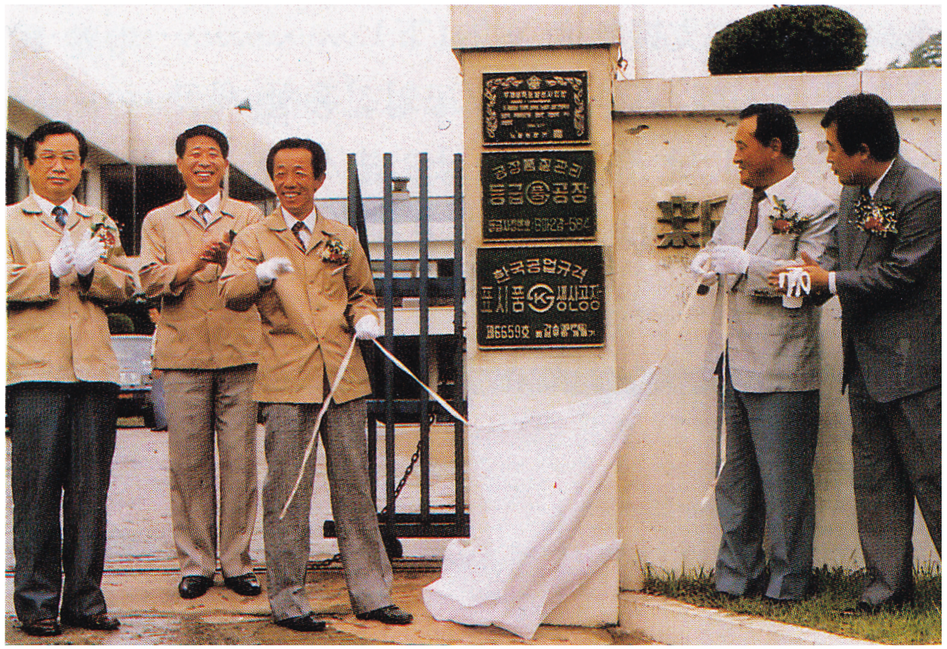
조합은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등급 사정 신청에 대한 공장 심사대행과 진단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1990년 2월 5일에는 조합원 업체 대표 및 품질관리 담당자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품질관리 등급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7월 7일에는 신아전기공업이 품질관리등급공장지정 제1호 업체(품질관리 2갑 등급)로 지정되었다. 신아전기공업이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제품은 가스(SF6) 절연부하 개폐기이며, 이후 공산품품질관리법에 따라 제품에 '품(品)'자 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업계의 품질 제고 노력 속에 품질관리등급공장지정 업체는 1991년 1월에는 총 7개사, 1991년 8월에는 18개사 등으로 늘어났다.

업계의 품질 제고를 위한 이 같은 노력 속에 1989년 1월 31일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후원으로 전기공업계 최초의 협동화 사업장인 '반월중앙배전반공업협동소조합 사업장'을 준공했다. 1985년 10월 추진위원회 결성, 1986년 10월 설립인가 취득, 1988년 9월 준공, 1988년 12월 시운전 완료를 거쳐 총 30억 원을 투자한 협동화 사업장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1990.02.13
공장품질관리 등급심사기관
현판식



1990.07.16
품질관리등급 공장지정 현판식
(신아전기공업)

국내 최초의 서울국제전력산업전 개최와 지속적인 국산화 추진

조합은 1989년 11월 4일 정부 관련 부처와 한전이 후원하는 '제1회 서울국제전력산업전(SINE LEX)'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국내외 중전기기 분야 생산제품과 전기 기자재 등 관련 업계의 신제품과 신기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행사였다. 이 전시회는 총 4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1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89.11.04
서울국제전력산업전 개막식

1990.03.13
1990년도 제1차
전기공업제품국산화대책위원회

1990년 제2회 전시회에는 국내외 38개사가 참여하여 20개 품목 총 1만 5,000여 점을 출품하고 2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매년 성황리에 행사가 이어졌다.

조합은 1990년 3월 13일 상공부 전기공업과장 등 위원 8명과 관련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990년도 제1차 전기공업제품국산화대책위원회를 개최, 영전류 스위칭 DC/DC 컨버터와 중합체형 GAPLESS 피뢰기 등 9개사 9개 품목을 심의 결정했다. 조합은 제3기 제2차 회의 개최 후 그동안 개최해 오던 전기공업발전민간협의회 업무를 한국전기공업협회로 이관했다.

한편으로 공동구매·판매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1990년 공동판매는 목표 대비 135%인 1,463억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조합원을 위한 각종 경영기술 지도 및 정보제공 사업도 활발히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관리 개선과 국산화 성과를 거두었다.

KEMC Episode #02

조합원의 원활한 화합의 끈 동호회 활동 : 선거후유증 무마 위해 출발한 산악회 등 활동 활발

조합 창립 이래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끝에 임도수 이사장이 선출된 제14대 이사장 선거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주류 중심의 조합에서 비주류 쪽으로 힘이 옮겨가다 보니 선거로 인한 편 가르기의 후유증은 더욱 깊고 길었다.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조합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이러한 와중에 조합원 화합을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것도 의외의 인물들에 의해서였다.

이사장 선거 당시 임도수 후보의 상대였던 김명준 후보를 도왔던 이명언 사장(당시 원방전원 대표)과 이수묵 사장(당시 영신전기공업 대표)이 조합원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던 유문영 사장(당시 유호전기공업 대표)에게 산악회를 만들어 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조합원의 화합이 무엇보다 지상과제였던 조합 집행부로서는 이에 전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했고, 유문영 사장을 회장으로 한 '전기공업인산악회'가 출범하였다.

유문영 회장, 장세용 총무(당시 서한전기 대표), 고봉화 산악대장(당시 고려중전기 대표)으로 구성된 산악회는 폭넓은 조합원의 참가 아래 전국의 명산을 두루 산행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조합원 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갔다.

당시 산악회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었는지, 산악회 내용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조합원은 비록 구성 초기이지만 유문영 회장과 장세용 총무로 이어지는 당시의 산악회가 전기공업인산악회의 전성기라고 술회할 정도로 회원들의 자부심과 참여열기가 높았다.

그 당시에는 쉽게 구입하기 힘들었던 워키토키를 구매해 등반에 활용했던 것은 회원들의 산행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다. 또 거금을 들여 제작한 금잔은 정상에 올라 산악회원들이 그것을 돌려가며 한잔씩 하는 것이 지금도 내려오는 전통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금잔은 이제 산악회 '제1의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후 산악회는 이명언 회장, 김영성 회장(당시 조일성업전기 대표), 이만구 회장(구룡 대표)을 거쳐 현재의 박정배 회장(설악전기 대표)에 이르고 있다.

비록 지금은 과거보다 참여 열기가 다소 저조하지만 오랜 전통을 간직한 전기공업인산악회는 명문 동호회로서 다른 기관 동호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각 지역 명산을 오르며 지역조합원 간 화합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산악회와의 합동 산행도 실시하는 등 기관 간 친목 도모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열렸던 골프모임도 당시 참여율이 높았던 이사들을 중심으로 정기모임화하여 동호회 활동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골프모임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조합원으로 참가 범위를 확대해 명실공히 조합원 단합을 위한 동호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조합원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가 '조합원 체육대회'였다. 조합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오류동 럭비경기장에서 개최됐던 체육대회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한바탕 축제의 장이었다.

생산품목별로 팀을 나누어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흥미진진하게 진행했으며, 경기 외에 각 팀마다 준비해온 안주자랑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경기가 과열하게 진행돼 가끔 일어나는 언쟁과 분위기에 동화돼 한잔 두잔 마신 술에 취해 다툼이 벌어지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모두 그 순간에 몰두했던 과정의 일부였다.

또 조합원들이 냉장고, 컬러TV, 세탁기 등 수많은 경품을 찬조하여 행사 뒤에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경품 하나씩을 선물로 들고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지나간 그리운 광경으로 이제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그림이다.

조합은 곽기영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체육대회를 대신해 매년 창립기념일 즈음에 '전국 조합원 초청 골프대회'를 개최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합원 단합과 조합 발전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원로전기공업인 친목회'의 결성이다. 1990년 양재권 전 이사장, 이갑순 전 이사장, 배수억 전 이사장, 이용희 당시 삼천전기 대표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원로전기공업인회는 전기공업과 조합의 발전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 그 명맥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며, 후배 조합원들에게 조합 발전을 위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산악회를 비롯한 동호회 활동은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었던 조합원의 갈등을 치유하고, 단합으로 이끌어준 조합 발전을 위한 숨은 공로자라고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조합원의 결속 강화에 공헌해온 동호회지만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이사장 선거 때만 되면 각 진영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제의의 손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 이 역시 상황이 만드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02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에 증진하다

조합원 지원 제도 개선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

8

국방부 변압기 단체수의계약 체결과 중소기업품질경영추진본부 및 기술지원센터 설립

1991년 8월 10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국방부와 변압기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군납을 위해 K.S 표시허가 및 공장등급 획득 등 품질혁신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한 조합은 이 변압기 군납을 계기로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매진했으며, 해외시장 개척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1992.09.01
전기분야 중소기업품질경영추진본부 현판식

1990년대 급격한 산업여건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종래의 관리통제 위주의 품질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 기업은 개발설계 단계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상

호 유기적으로 추진, 고객지향적 품질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했다. 특히 당시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ISO 9000' 국제 품질보증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데다 1993년 유럽경제공동체(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통합과 함께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체제의 도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품질경영 인증 획득에 필요한 선진 품질경영체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품질관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고객지향적인 새로운 품질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었다.

1993.11.11
기술지원센터 현판식

조합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8월 18일 '전기분야 중소기업품질경영추진본부'를 설치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업계의 품질경영 체제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조합은 국내 중전기기 산업발전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1993년 8월 11일 '기술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18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센터 전문분야별 기술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이후 10월 25일 센터 운영요령을 제정하고 12월 27일 센터 분과별 기술위원을 선정했으며, 이후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1. 조합원사의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애로 요인 수집·발굴
2.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기술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기술 과제를 찾아 국·내외 신기술 해설 논문 및 동향, 전문분야별 기술 정보 특집 제공
3. 조합원사가 개별 요청한 신기술 정보 등 수집·전달
4. 전문분야별로 조합원사에 기술세미나·교육, 해외 전시회 및 선진국 공장 견학 실시

조합은 1993년 11월 11일 조합 내 현판식을 가진 후 조합원사의 제품 표준화를 위한 단체규격 제정, 조합원사 납품 제품의 A/S 사항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문분야별 기술위원회는 8개 분과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력전자분과, 발전기분과, 전동기·전동공구분과, 금구류분과는 각 5명, 변압기·강압기분과, 개폐기·차단기분과, 계장제어반분과는 각 6명, 배전반분과는 7명 등이었다.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조치와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

1991년, 조합은 경영·기술·세무 회계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이사를 두어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 중 '임원의 정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이사의 수를 '5인 이상 21인 이내'로 변경했다. 또 1991년도 단체수의계약운영지침에 따라 수수료 항목 중 제(諸) 알선 및 기타 취급 업무에 대해 취급액 한도를 3%에서 2.5%로 인하·조정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어 조합은 1991년 2월 26일 제29회 정기총회에서 대다수의 중소업체가 겪고 있는 극심한 인력난 해소와 기술인력 확보 등을 위해 '기능인력 양성소설립기금 조성 업무'를 의안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991.02.26
제29회 정기총회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설립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7일 이사회에서 '기능인력양성소설립기금 조성 업무' 안을 의결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조합은 기금 조성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설정하고, 업무 개시일로부터 목표 달성 회계연도 말까지 공공판매사업 취급 금액의 0.5%를 기금으로 징수했다.

또 조합이 마련한 '자체자금 대부업무 취급규약'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91년 5월 8일 이사회에서 지원자금 한도와 금리 조정을 위한 '자체자금 지원 한도 및 금리 조정(안)'을 심의하여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이자를 연 10%로 결정했다. 지원 방법 및 채권 보전에 따른 세부 사항은 집행부가 위임받아 시행하도록 의결했으며, 감사 건의에 따라 특별인사위원회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조합원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되자 조합은 당시 보유한 자체 자금 6억 원으로 조합원당 2,000만 원씩을 지원했다. 조합의 융자 취급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받은 조합원 이외의 조합원, 즉 자금조달을 사채에 의존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상업어음)을 전기조합 재원 한도 내에서 연 10%로 3개월(90일)까지 융자해 준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정관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회비 수납과 조합원사의 불만 해소에도 노력했다. 조합 총회는 월 1만 원과 반기(半期) 6만 원이던 기존 기본 회비를 각각 2만 원과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외의 조합원 회비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반면 공구 수수료는 0.6%에서 0.5%로 인하해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조합은 기능인력양성소설립 기금을 조성하고 자체자금 지원 한도와 금리를 결정했으며 금융실명제로 인한 조합원사의 일시적 자금난에 대응해 자체 자금을 융자해주는 등 조합원사의 부담을 더는 데 주력했다.

8

단체수의계약 참여도 제고와 제도의 투명성 강화

1991년 들어와 조합은 기존 단체수의계약 운영 규정 중 배분 대상 항목 '2인 이상' 조항을 '3인 이상'으로, '물품의 운송 및' 조항을 '물품의 분할 배정이 불가능하거나'로 개정하고, 배분 기준 항목 중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대기업 및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조합원의 생산능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계약 건당 30%, 연간 계약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품질 수준 및 신기술 개발 항목 비율을 강화하고, 정부 시책 참여 항목에 '수출실적업체'를 추가했다. 또 자격 항목 중 '조합 집행부 및 간사장의 확인' 조항을 '조합 집행부의 확인'으로 수정하고, "단납품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아울러 공업진흥청의 지시에 따라 기존 품질관리 등급제 심사 업무 규정과 품질관리 심사위원회 규정을 통합 개정하고, 등급 공장 우대 항목을 신설하는 대신 품질관리심사위원회 규정을 폐지했다.

1992년에는 단체수의계약의 투명한 배정을 위해 단체수의계약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배분 기준 항목 중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배정하여야 한다'로, 배분 제한 항목 중 '신규 가입' 항목을 '신규 참여'로 변경했다. 또 수혜기준 항목별 비율 적용표 중 생산능력 또는 생산(판매) 실적 항목 비율을 23%에서 10%로, 신기술 개발 항목 비율을 25%에서 23%로, 정부 시책 참여 항목 비율을 5%에서 10%로, '전년도 수출실적업체'를 별도항목인 '전년도 수출실적업체(당해 물품) 비율 10%'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품질 수준 항목에서 등급 사정을 받은 업체의 당해 물품은 각 등급에 4점씩을 가산하며, 적용 기준 4항에서 '등급 사정 업체는 4항의 점수를 가산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합원의 균등한 수혜를 보장했다.

또 배정협의회 운영 규정의 '회의' 항목에 "품종별 협의회의는 업체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 대리 참석 시는 위임장을 집행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개정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조합의 손실 예방과 업무의 합리화·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구매 시행 규정 중 '외자'를 '공동구매 외자의 경우 채권 보전을 위해 L/C 개설 신청일 기준의 원화 환산금액으로 채권을 보전'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며, 공동구매 외자 업무에서 L/C 개설, B/L 및 L/G 결재, 통관비의 전수금을 시행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했다.

1993.07.30
1993년도 제4차 이사회 개최

1993년에는 단체수의계약 참여 가능 품목을 업체당 3개 이내로 제한하고, 품종별 협의회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배분량의 증감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규제조항의 배정 참여 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수요처의 불만 해소와 조합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했다.

같은 해 7월 30일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기존 송배전 선로 금구류의 시설 기준을 보완·개정하고 리액터와 강압기의 시설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보장했다. 또 조합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중 금구류 제조 및 검사설비 보완을 변경하고, 폐수 처리 시설 및 응용 도금물 부착시험기를 제외했다. 아울러 제조설비 1·2·4항과 검사설비 1·2·3·6항의 경우 전기용 클램프 이외의 품목에 적용하기로 하고, 리액터 제조 및 검사설비와 강압기 제조 및 검사설비 기준을 제정했다.

한편 조합은 상공부가 1991년 실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예시와 관련, 이 제도를 존속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1992년 1월 31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했으며, 이후 고유업종 현황표를 6월과 7월 각각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이후 1992년 7월 14일에는 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1992년 8월 31일 고유업종 중 해제 예시된 품목의 해제 기간을 1992년 9월 1일부터 1994년 9월 1일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8 제안 제도 시행과 업무개선위원회 구성

조합은 1993년 들어와 조직과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1실 3부 1소 11과 체제를 1실 3부 1소 8과 체제로 축소했다. 이때 기획과를 폐지하고, 총괄과와 공동구매과, 회원과와 자료조사과를 각각 통폐합했으며, 본부장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1992년 5월 창립 30주년을 맞아 조합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 꾸준한 화합의 시간을 가진 결과 노동조합이 자진 해체하는 용단을 내렸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의 21세기를 맞기 위한 결정이었다.

새로운 조직 체제에서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사들이 힘을 모아 조합과 업계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조합 내부뿐 아니라 조합원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 제도를 제정했다. 조합은 제안 및 포상 범위를 정하고, 접수된 제안을 심사위원회를 구성, 조합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안, 업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면서 추진 가능한 제안 등을 접수하여 조합 발전을 도모했다.

이와 더불어 조합 업무를 활성화하고 각종 업무 개선을 도모하여 조합원에 대한 업무 지원 강화, 각종 애로점 타개, 대정부 건의안 마련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조합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1995년에는 정관을 개정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리인 자격을 '당해 조합의 타 조합원 또는 조합원인 기업체 간부급 이상의 직원이어야 하며 복(複)대리는 불인정'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를 1명으로, 대리인은 '당해 조합원의 간부급 이상, 단 과장급 이상'으로 개정했다.

업무개선위원회 구성 당시 위원

직위	이름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이병균	㈜동남물산 대표이사
위원	유문영	유호전기공업㈜ 대표이사
	배상삼	삼화전기㈜ 대표이사
	김용찬	유신산업공업사 사장

직위	이름	소속 및 직위
위원	이삼암	삼정전기공업㈜ 대표이사
	조규석	승림카본금속㈜ 대표이사
	이정우	등우산업㈜ 대표이사
	김경만	조합 전무이사

수배전반사업운영개선위원회 설립

조합 내 수배전반협의회는 1993년 6월 30일 의결권을 가진 168개 조합원 중 135개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수배전반협의회 운영 및 배정요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수배전반업계 현안 문제 토의에 이어 수배전반협의회 총무 선임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 이후 7월 13일 조합에서 수배전반사업협의회 현판식을 갖고 유문영(유호전기공업 대표이사) 위원장, 최성일(대성전기공업사 사장) 총무위원 체제를 갖춘 후 사무국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제정·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 해 8월 20일에는 의결권을 가진 194개 조합원 중 155개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배전반협의회 전체회의를 갖고 수배전반사업운영개선위원회 설립을 의결했으며, 어음배서로 전도금(前渡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융자 취급 규정을 부활하고, 4,000만 원 이상의 단독 수주 건이라도 협의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7월 27일, 중소배전반 일부 업체들이 별도로 한국배전반공업협동조합을 신설하여 독립하기도 했다.

1993.08.20
제2차 수배전반협의회에서
임한국 동광계전㈜ 사장과
장세용 서한전기공업㈜ 사장에게
감사패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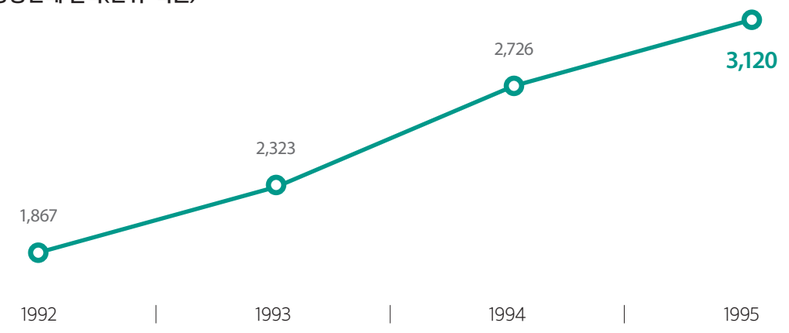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1992년은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요 감소, 경쟁국보다 높은 실세 금리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등 경기 둔화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은 해였다. 하지만 조합은 공동판매 및 공동구매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공동판매에서 전년 대비 11.2% 신장한 1,867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자금지원은 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어났으며, 품질경영지도사업의 경우에도 진단지도 70건, 국산화 개발 채택품목 7건, 규격제정 및 추진 23건 등으로 전년에 비해 높은 실적을 올렸다. 특히 전기공업 분야 품질관리 심사기관으로서도 1등급 4개사를 비롯한 19개 업체가 등급 지정을 받도록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에도 조합의 공동판매 실적은 2,323억 원으로 목표 대비 16.1% 초과 달성을 이루었고, 공동구매사업 실적도 목표 대비 7.2%를 초과한 182억 원을 기록했다. 제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도사업은 24개 업체를 진단하고 30개 업체가 등급을 획득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실적 향상은 이후에도 이어져, 1994년 공동판매사업은 2,726억 원으로 목표 대비 133%의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공동구매사업도 188억 원으로 목표 대비 104.5% 초과 실적을 올렸다. 1995년 공동판매 실적은 3,12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52%를, 공동구매 실적 271억 원으로 목표 대비 142.8%를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합 공동판매 실적(단위: 억원)



KEMC Episode #03

단체수의계약 품목별협의회 자율협의 활성화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판매 공정 배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조합의 여러 사업 중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체수의계약 물량의 공정한 배분이었다. 조합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판매 물량을 둘러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는 더욱 치열해졌다. 조합은 공정한 진행에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전체 300여 조합원 중 200여 조합원이 모인 수배전반 품목의 대책이 시급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배전반, 변압기,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공동판매 품목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조합에 전달하는 품목별협의회가 등장했다.

품목별협의회는 임도수 이사장 취임 후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조합은 품목별협의회에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한 자율배정협의 권한을 강화하고, 품목별협의회 간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우대했다. 이는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원활한 자율협의를 위해 조합은 관련 업체와 이지수 당시 조합 기술부장을 중심으로 배정심사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물량 배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전보다 조합원의 불만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한 소음 진화는 어려웠다.

자율협의권 강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폐해(?)도 발생했다. 품목별 간사와 조합 집행부 간에 뜻이 맞지 않을 때 심하면 선출된 간사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의견을 공정히 수렴하는 간사가 있는가 하면, 독단적인 처리로 비난받는 간사도 있었다. 자율협의로 간사의 역할이 강화되니 배전반 품목은 배정 협의 전에 조합원들이 간사 개인사무실에 면담하러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배정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제도나 규칙도 강화되었다. 배정과 관련한 공사명에 조금의 잘못만 있어도 협의에서 탈락하거나, 협의에 1~2분만 늦어도 참가하지 못할 정도였다.

조합원 추천으로 선출하던 간사도 경쟁이 심해져 선거로 선출하였으며, 단 1표 차로 간사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간사의 역할이 그만큼 컸음을 반증한다.

공동판매가 활발했던 당시 전기조합회관은 조합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물량 배정에 성공하면 기뻐서 한잔, 실패하면 분해서 한잔, 이어지는 모임으로 회관 주변 상가도 활력이 넘쳤다. 이 모두 조합과 조합원이 가장 풍요를 누렸던 그리운 추억이 되었다.

Story on History #02

거대시장 중국과 소련이 열리다

국제화 시대의 해외시장 개척

글로벌 협력망, 대륙으로 확산되다

세계적인 무한 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조합의 전략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1990년 9월 한·러 수교,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망이 동구권 국가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1990년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합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합원 업체 임직원 11명이 대중국 교역 및 투자조사단을 구성, 광저우·베이징·시안 등에서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 6일에는 중국 중소기업국제합작협회(China International Corperation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부이사장 등 임원 6명이 조합을 내방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기반 조성 및 합작 투자 방안 등 상호 교류에 관해 협의하는 등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1991년 7월에는 소련과 중국에 시장조사단을 파견하여 국내 중전기 업계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외의 수출입 가능 품목 및 분야 조사를 실시했다. 소련전기연구소(INFORMELECTRO)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임도수 조합 이사장은 7월 21일 소련이 전기분야의 각종 소재를 제공하고 한국은 이것으로 완제품을 조립·생산해 소련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합과 연구소는 폐수처리기술과 공작기계 관리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으며, 전력난을 겪는 소련은 한국의 소형발전기와 전동기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같은 해 8월 28일에는 중국국제상회 서울대표처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소련·중국 시장조사단 귀국보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측 10명은 변압기공장 합작 투자와 원자재 구매 협의 외에 대중국 투자 시 필요한 중국의 무역 제도, 합작투자법과 기타 관련 법규 제공 등을 요청했다. 중국 측 4명은 경제협력과 관련한 자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중전기기류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요청해 왔다.

1991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소련전기연구소(INFORMELECTRO) 소장 일행을 초청, 소련 측이 제시한 모스크바 한·소 전기공업제품전시회 개최 문제를 비롯해 기술 제휴 알선 및 기술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상설기구로 '한·러전기공업협의회' 설치에 관해 협의했다. 한국과 소련 양측은 과학기술 협력, 생산 협력, 수출입업무 알선 및 중개 등 6개 항에 의견을 같이하고 실무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 후 소련 측 인사들은

현대중전기·효성중공업·한국전기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한국 전기공업계의 현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1992년 6월 18일에는 조합 이사장이 한국대표단과 함께 나흘 동안 제37차 ICSB(중소기업국제협의회) 총회에 참석,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지원기관, 학계 및 정부 인사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공동 이익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러시아연방공업기술정보협회(Informelectro)의 초청으로 모스크바에서 한·러 전기공업실무협의회 회의를 했다.

1992년 4월에 있었던 소련과의 업무협정체결에 따라, 조합은 1993년 10월 11일 서울에서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러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자본 투자, 신기술 분야 진출 및 초고압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중전기기 산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사안을 논의했으며, 양국의 실질적인 교

1991.07.18
소련전기연구소(INFORMELECTRO) 방문

1994.06.28~07.02
제1회 중국 국제 전력전자 및 회전기기 제어장치전(IPEE) 참가

역 확대를 위해 중전기기공업 분야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 신품목 발굴 등 단계적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1994년 6월 28일에는 제1회 한·중전기공업협의회에 참가하여 양국 전기공업 현황 및 기술 교류 품목 발굴,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 기간에 중국 전공기술학회와 한·중전기공업협의회 운영 협정서를 체결하고, 회전기, 변압기, 배전·제어반 전력·전자 송·배전 등 5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수출입 자료를 비롯한 기술 동향 및 기술 이전, 합작 투자 알선 및 지원, 전문기술자 초청 세미나 개최, 교역 창구 등의 안건을 협의했다.

이밖에도 1994년 중국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 국제 전력전자 및 회전기기 제어장치전(IPEE)에 국내 단위조합으로는 최초로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 이화전기공업·보국전기공업·보영전자·서호전기·태진전기 등 5개 업체와 함께 자체 조합관을 설치하여 총 1,56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중국에 널리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일 무역역조 타개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조합은 1990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된 제2회 한일 업종별 교류회 단원을 일본에 파견, 도쿄 시스템 컨트롤 박람회(System Control Fair) 참관, 일본전력중앙연구소 산하 요코스카 연구소와 닛신전기 견학 등의 현지 경험을 쌓도록 했다.

1994년에는 교역추진이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일본전력을 방문, 판매촉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제품 공급 상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조합원의 교역 확대를 지원하고자 전력을 다했다.

중전기기 산업의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일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조합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국제품질관리분임조대회(ICQCC)에 참가하여 세계 16개국 80편의 품질 활동보고를 듣고 최근 품질경영 추진 동향 및 기법파악, 우수 QM 추진업체 방문을 통해 우수품질 및 표준화 사례를 연구하고 돌아왔다. 이후 같은 해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조합 직원 및 34명의 조합원사 임직원을 파견, 일본의 우수품질경영 공장인 산요전기 후지야마공장·시오다공장, 다카오카제작소 고야마공장 등을 견학하고, 시스템 컨트롤 박람회(System Control Fair)를 참관하는 등 일본 및 세계 중전기기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어 1995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총 17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대일 전

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이 일본 큐슈전력과 주고쿠전력 등을 방문하여 시장 조사를 했으며, 국제 중전기기 동향 및 정보 교환을 위해 미쓰비시 나고야공장과 야스가와 후쿠오카공장을 방문, 일본의 제품 생산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아시아에서 미주·유럽·대양주·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확대된 조합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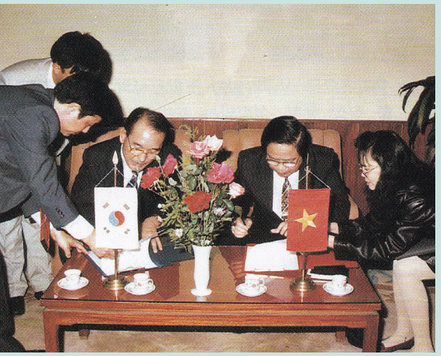
1991년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사 임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이 미국 댈러스에서 개최된 제12회 IEEE/PE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nference and Exposition에서 발전 설비 및 송배전 관련 중전기기 전시품과 세미나를 참관했다. 이런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의 전기공업 분야 품질관리추진본부에서는 1991년 10월 8일 전력전자기기 가공 분야 품질관리 추진 매뉴얼을 발간했다. 조합원사의 품질관리체계 도입과 조기 정착을 위한 품질관리 활용 지침서인 이 책자는 500부를 발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급했다.

1994년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IEEE 전시회에 참가하여 송·배전 관련 기자재 전시회를 참관한 후 여러 상담을 벌이고 돌아왔다.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제21차 ISBC 및 대양주 지역 경제협력 활동에 참가, 인도네시아·호주·뉴질랜드 등을 돌며 제조업자 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 조사 등을 벌이고 돌아왔다.

1995년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이후에도 전통적인 국가와의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베트남 국제무역전람회에 참가하고 베트남 전기공업 분야를 관장하는 베트남 전력청과 정보 교환 및 교역 확대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품질경영뿐 아니라 OECD 가입에 따른 무한경쟁 체제에 대비한 수출진흥사업도 적극 추진, 독일 하노버 국제박람회에 참가했으며, 아프리카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을 방문하여 시장 동향 파악과 신시장 개척 등 국제화 사업에도 앞장섰다.

1996년에는 북중미와 서남아시아에 각각 수출촉진단을 파견했으며, 파나마와 파키스탄, 멕시코 전력단체들과 각각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갖기로 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베트남 국제무역전시회에도 8개 조합원이 참가하여 146만 달러의 제품 수출 상담과 94건의 기술합작 요청 실적을 거두는 등 국제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

1995.04.04
베트남 전력청(EVN)과
양국 전기공업협력을 위한 이해각서 교환



03 21세기를 준비하는 의지, 미래를 앞당기는 기술

미래지향적 조직 구축과 대외 위상 제고

단체표준품질인증단체 지정과 품질경영진단 업무 규정 제정

1995년 1월 1일 정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한국은 WTO 출범과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이전까지 세계 교역질서를 주도했던 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세계 무역환경은 국가 간, 기업 간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런 부단한 변화를 앞두고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기술 애로사항 및 지원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 6월 21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단체표준품질인증단체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같은 해 7월부터 품질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조합원의 ISO 인증 획득을 위한 진단 및 지도 업무, 단체표준의 확대·제정을 통한 표준화 및 품질향상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단체표준품질인증제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의거, 조합이 품질인증 표시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조합원사 공장의 품질경영상태를 심사하고, 단체표준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을 마친 후 표준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의 합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합격한 업체에는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증을 교부하고, 동시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 소비자(수요처)가 우수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은 단체표준품질인증 운영요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1994년 12월 29일 폐쇄배전반(고압·특고압), 디젤엔진 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저압·고압), 교류 무정전 전원시스템(단상·3상), 자동전압 조정기(단상·3상) 등 14개 품목에 이 인증제도를 적용했다.

1994.06.21
공업진흥청 단체표준품질인증단체 지정

단체표준 품질인증 품목

규격번호	제정일자	규격명	개정
1101	1984.01.09.	배전반의 정격	1991.10.14
1102	1984.01.09.	배전반, 제어반의 구조일반	1991.10.14
1103	1984.01.09.	배전반의 배선방법	1991.10.14
1104	1984.01.09.	배전반 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1991.10.14
1105	1984.01.09.	배전반의 접지	1991.10.14
1106	1984.01.09.	폐쇄배전반	1994.06.10
1107	1984.01.09.	저압폐쇄배전반	1991.10.14
1108	1984.01.09.	컨트롤센터	1991.10.14
1109	1984.01.09.	고압전동기 기동반	1991.10.14
1110	1989.11.16.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 제어장치	
1111	1989.11.16.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 발전기	
1112	1990.11.26.	비상전원절체개폐기	
1113	1991.05.01.	전력용 몰드변압기	
1114	1991.05.01.	교류 무정전 전원시스템	1992.12.22
1115	1991.05.01.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1116	1992.12.22.	자동전압조정기	
1117	1993.04.01.	특고압 컷아웃스위치	
1118	1993.04.01.	전력용 피뢰기	
1119	1993.04.01.	교류기중부하개폐기	
1120	1993.04.01.	디지틀형 보호계전기 및 보호계전장치	
1121	1994.06.10.	특고압 교류부하 개폐기	
1122	1994.06.10.	크레인용 전폐형 권선형 저압 3상 유도전동기	
1123	1994.06.10.	선박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1124	1994.06.10.	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	
1125	1994.06.10.	고압모터 기동용 단권변압기	
1126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1994.07.21
품질인증 심사기관 현판식

단체표준품질인증단체 지정에 따라 조합은 1994년 7월 8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 원주에서 30명의 심사원을 대상으로 단체표준품질인증심사원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인증 강화에 노력했다. 또 7월 15일에는 조합원사 117개사 1,120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10월 21일에는 조합원사 20개사 23명을 대상으로 부산무역회관에서 각각 단체표준품질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사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 결과 1994년 조합원사 중 KS표시 허가를 받은 업체는 81개사, 공장품질등급을 받은 업체는 136개사, 'ISO 9000'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30여 개사, 단체표준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6개사로 증가했다.

1994.10.21
지방조합원사를 위해
부산무역회관에서 열린
단체표준품질인증제 설명회

1994년 조합은 정관 개정을 통해 단체수의계약 운영 규정 중 총칙에 "수혜기준 항목별 비율적용표 중 적용 방법은 품목별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용어 해설을 신설했으며, 단체품질인증 표시 규정 중 신청 서류와 보고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공장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합격점을 80점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 품질경영진단 업무 규정을 제정, 공업진흥청이 조합에 의뢰한 진단 대상업체에 대한 품질경영 진단을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조직 체계 명문화와 함께 진단 절차 및 방법을 세분화했다. 사업1과는 수배전반(계장제어반 포함) 품목을 담당하고, 사업2과는 변압기 및 기타 품목을, 사업3과는 공동구매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한편 공산품품질관리법이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합 내 품질경영 심사기관의 심의위원회가 107개 업체의 품질경영 심의 및 지도를 마치고 1994년 8월 12일 업무를 종료했다.

8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WTO 체제 출범 원년인 1995년, 조합은 임직원 및 조합원의 의식 개혁과 기강 확립에 주력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조합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직 효율화에 나서 기획실을 폐지하고 관리본부 내에 기획과·총무과·경리과를 두었으며,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전산실을 신설했다. 특히 조합원사를 위한 발 빠른 서비스를 위해 직접 찾아가 고충 및 건의사항을 상담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조합상담실을 조합회관 5층에 설치·운영했으며, 상담은 해당 업무 부서장과 직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1995년 8월 22일에는 조합 현황과 21세기를 향한 발전 방안 연구, 수배전반 배정요령 개정, 기능인력양성소 건립기금 조성 등을 위해 조합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1996년에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보다 현실적인 직제를 위

1995.08.22
조합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직위	이름	소속 및 직위
위원장	배수억	수영전기기업㈜ 회장
위원	이갑순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용기	신아전기공업㈜ 회장
	정화춘	㈜건화상사 회장
	이희만	성원전기공업㈜ 회장
	박민규	우리전기㈜ 대표이사

직위	이름	소속 및 직위
위원	이하영	유일전기㈜ 회장
	장순명	㈜광명전기 회장
	이도일	대동전기기업㈜ 회장
	한두성	동미전기공업㈜ 회장
간사	전수명	제일정밀사 대표

해 불필요한 직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실·소장에 권한을 위임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산실장의 보임 직급을 상향하고, 부서별 업무 조정과 함께 전산실의 업무 분장을 추가 및 세분화했으며, 각 본부별 업무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업무능률 향상에 주력했다.

한편 단체수의계약 폐지와 관련, 조합원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수배전반 제조 조합원 254개사 중 196개사 대표들은 1995년 7월 수배전반 조합원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수배전반 품목이 지속적으로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받기 위한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7월 13일에는 조합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1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배전반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수배전반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명단

직위	이름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유문영	유호전기공업(주)
부위원장	유동대	(주)대흥전기
	김석기	국도전기제작소
	문명현	(주)문명전기

직위	이름	소속 및 직위
부위원장	권국범	동도기전산업(주)
	김석두	(주)사홍기업
총무	송정무	원전전기공업(주)

8

조합원사 제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업종 간 경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그중에서도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자금난과 인력난이 이어졌으며, 기술개발과 판로 문제 등의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조합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조합원사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5월 11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KSA/ISO 9000 인증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후 조합은 KSA/ISO 9000 인증 홍보 및 진단·지도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KSA/ISO 9000 인증 획득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조합원사 제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도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1995년 한 해 동안 38개 조합원사에 품질경영 진단·지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진단·지도 대상 대다수인 37개사가 단체표준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단체표준 8개 품목을 새로 제정하여 조합은 총 40개의 단체표준 품목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5.05.11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KSA/ISO 9000 관련 업무협약 체결

1995년 12월 29일에는 조합원의 시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단체표준품질인증 표시 승인 신청 품목이 형식시험을 통과한 경우 인도시험(引渡試驗, 사용자와 제조자 간의 협정을 토대로 위탁물의 수락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비용 명시 품질인증표시 마크 변경' 등의 개정을 통해 정관 및 각종 규정, 불량 배정 관련 요령 등을 보완했다.

1996년 2월 14일에는 통상산업부 단체수의계약 운용 지침에 부합되도록 품질 수준의 항목 적용 기준 자격 획득 업체에 대한 배점을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적용함으로써 당해 연도 자격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개 품목에 대한 동일 업체의 배정 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1997년에는 월간 「전기공업정보」의 명칭을 「전기정보(電氣情報)」로 바꾸고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여 전기공업계를 대변하는 역할과 기능 강화에 힘쓰기도 했다.

1997.07
제호를 바꾸고 판형을 키운
월간 「전기정보(電氣情報)」

8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산·학·연·관(産·學·硏·官) 공동 전기산업정보망 구축

조합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과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활용 능력이 부진한 중소기업을 위해 1996년 9월 '전기산업정보망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 2월 정기총회 승인을 얻어 한전정보네트웍과 산업정보망 전기정보 DB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1997년 7월에는 다음과 같은 15개 산·학·연·관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대학기술지원협력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생산성본부	•전기신문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송암전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제전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이 위원회는 제1차 관계자 회의 및 기본 방향 결정을 통해 1997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여 산·학·연·관 공동 전기산업정보망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전기산업 전문 인력정보, 선진국 전력정책 정보, 에너지 통계 정보 등 3종의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중소 전기업계 홍보를 위한 '업체 및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했다.

1997.06.12
제1차 전기산업정보망
추진위원회 개최

8

대표적인 대한민국 품질 관련 수상을 석권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2월 중소기업청을 발족했다. 대외적으로는 WTO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인 무한 경쟁 시대가 전개되었으며, 1996년 12월 12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국내 시장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 시장 지배적인 요소를 철폐하는 본격적인 개방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조합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단체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한 결과 1996년 한 해 동안 약 3,430억 원의 공동구매·판매사업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목표를 131.6% 초과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경영진단기관과 단체표준품질인증 심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품질경영 진단·지도 41개사 및 단체표준품질인증 획득 84개사, 공장품질경영 등급 획득 136개사, KS 획득 업체 81개사, 'ISO 9000' 시리즈 인증 획득 업체 226개사 등을 기록하며 조합과 조합원사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단체표준품도 6개를 새로 제정, 총 46개로 확대했으며, 'EQ' 마크 획득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꾸준히 노력했다.

1996.11.04
제22회 품질경영대회
산업표준화상 수상

1997.12.16
전국품질경영대회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 대통령상
수상기념식을 겸한
전기공업인 송년간담회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조합은 1996년 11월 4일 제22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표준화상'을 수상했다. 산업표준화상은 산업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KS 표시품 생산업체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어 1997년 한 해 동안 'ISO 9000' 시리즈 인증 획득 337개사, 단체표준품질 인증 획득 147개사, KS 획득 업체 83개사 등의 실적을 올리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최고의 모범 조합으로 평가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4일 전국품질경영대회 최초의 대통령상인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조합은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과에 이어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품질 관련 상을 모두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 1987년 11월 제13회 전국품질관리대회 업종별 우수추진본부상 수상
- 1989년 11월 제15회 전국품질관리대회 업종별 우수추진본부상 수상
- 1989년 12월 품질관리등급심사기관 지정
- 1990년 11월 제16회 전국품질관리대회 업종별 우수추진본부상 수상
- 1991년 11월 제17회 전국품질관리대회 우수분임조상 수상
- 1992~1994년 3년 연속 전국품질관리대회 우수분임조상 수상
- 1994년 6월 단체표준품질인증심사기관 지정
- 1994년 11월 품질경영진단기관 지정
- 1995년 11월 제21회 전국품질관리대회 품질분임조상 수상
- 1996년 단체표준 EQ 마크 인증품목 보상기금 3억 원 적립

제4장

변화를 선도하는 빛

1998 — 2006

내부 결속과 외부 업력 강화, 그리고 내실

01 위기를 딛고 서는 저력, 희망의 세기를 열다

IMF 경제위기 극복

IMF 경제위기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전국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21세기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업계와 대한민국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였다.

1997년 초 동남아 국가들의 연이은 금융 위기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대기업의 연쇄 도산과 지속된 경기침체, 누적된 고비용·저효율 구조 문제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금융·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끝내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1997년 11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경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의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 경제는 IMF와의 협약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으로 기업구조를 개선해야 했으며, 노동시장 개혁 등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이 불가피했다.

외환위기와 IMF 체제의 여파가 본격화된 1998년 들어와 전기공업인은 물론 모든 중소기업이 어둡고 암울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건국 이래 최대 경제난은 구조조정의 뼈를 깎는 고통과 대량실업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모든 산업이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이른바 '작은 정부 만들기' 작업을 통해 통상산업부를 다시 산업자원부로 변경하고, 통상교섭 업무와 중소기업 업무를 각각 외교통상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전기 관련 업무는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반도체전기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수호와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유례없는 경제위기는 곧 중전기기 업계의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으로 이어졌다. 특히 총리실 산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재정경제원·내무부·조달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존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당초의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구매기관들의 질 좋은 물품 구입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중전기기 업계는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1997년부터 발효된 정부조달시장 개방 때 예외조치로 양허(Concession)를 받은 사항이며, 특히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대다수 협동조합이 경영악화를 겪게 될 것이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전기기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조합도 강력히 반발했다.

1998.03.18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정 개정 등을 가결한
98년도 제2차 이사회

조합은 그동안 형평성을 고려해 배분하던 수배전반 분야의 수의계약 물량을 기업능력별 배정으로 바꾸었다. 또 조합원 업체의 기술개발, 정부시책 참여, 수출실적, 품질 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품질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조합을 포함한 중전기기 업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조합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제도 등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활동에 들어갔다.

1997년 8월 20일, 조합 이용희 이사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단체수의계약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단체수의계약제도 수호와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용희 이사장의 위원장 피선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여러 조합 중 단체수의계약 물량이 많은 데다 이 제도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조합임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단체수의계약활성화대책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제도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공정한 물량 배정 유도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추진, 언론매체를 통한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인식 제고 등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 도입도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자동차·가전제품·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품이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판매업자 등 그 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정부는 1998년 10월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제조물책임법 정부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제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2002년 7월로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8

조합발전위원회 구성과 조합의 기강 확립 및 내부 결속력 강화

조합은 여러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합의 문제점 해결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8년 5월 14일 IMF 체제 극복을 위한 조합원 경영혁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조합 업무의 활성화 및 조합원의 권익 증진 등 업계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대한 대비책 강구, 조합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합업무발전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그 같은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1998년 6월 2일 발족 이후 위원회는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선임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하기로 결의했다.

- 조합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 제시
-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 조합 운영에 관한 정책과제 조사 연구
- 사업 전반에 관한 진단 및 분석
-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기타 조합 및 업계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위원회는 7월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명칭을 '조합발전위원회'로 개칭하기로 의결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조합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4개 전문분야로 운영함
- 전문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안 제도 또는 의제별 주제를 선정·운영하도록 함
- 각종 현안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함
  - 경제난국 극복 방안
  - 품질고급화사업
  - 경쟁력 강화 사업 전개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대비한 대안 마련

IMF외환위기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등 안팎으로 겹친 위기를 극복하고 조합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조합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1998.06.02
98년도 제1차 조합업무 발전위원회

이어 8월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조합발전위원회의 조직을 4개 분과위로 구성·운영하기로 확정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조합 현안을 해결하는 데 위원회가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장 및 위원들 명의로 '조합발전위원회 설치에 즈음하여'라는 제하(題下)의 서한을 전 조합원에 보내 위원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조합원과 조합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전기공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중소기업 시장 및 영역 보호 방안 강구 또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EQ 제도 개선 등을 집중 논의했다.

조합업무발전위원회 명단

직위	이름	소속	직위	이름	소속
위원장	김승호	신우전기기업㈜		변쾌수	㈜돈홍
부위원장	김봉균	㈜대한트랜스		이병균	㈜동남물산
위원	김준철	국제전기㈜	위원	이상호	서호전기㈜
	김태문	금성전설산업㈜		이종한	㈜성진전기
	박경선	㈜맥스컴		조재흥	고려기업㈜
	박길상	신한전기공업㈜		한승천	협화전기공업㈜
	박덕신	㈜파웰		한직현	㈜삼양전원
	박문진	대원계전공업㈜	간사	편인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1998년 들어와 조합은 조합 및 조합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 '조합 기강 확립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또 조합원 정화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의 화합과 위상 제고, 전기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은 내부 질서 확립에 주력하는 한편,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조합 선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2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임원선거규정과 회의규정을 개정, 조합 임직원에게도 자유로운 참정권을 부여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조합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 관련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노력했다.

변압기 품질대책위원회 명단

직위	이름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이지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
위원	허일성	대명중전기공업㈜ 이사
	전동재	㈜대웅중전기 상무이사
	변재영	㈜대한트레스 이사

직위	이름	소속
위원	박광춘	동미전기공업㈜ 전무이사
	홍월표	삼진변압기㈜ 부사장
	황화선	조일성업전기㈜ 이사
간사	이계정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차장

1998년 12월에는 변압기품질대책위원회를 발족, 변압기와 관련된 하자 발생 원인 분석과 수요기관 규격에 대한 기술적 심의 및 건의, 하자 발생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 강구 및 관련 규정 정립, 부도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1998.12.28
변압기품질대책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8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다 _단체표준 우수인증기관 지정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조합은 점차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으며, 조합원사는 물론 업계 전반에 재기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은 1998년 공동구·판매사업 실적을 목표 대비 105.2% 증가한 2,440억 원까지 끌어 올렸다. 또 품질경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ISO 9000' 인증기업 407개, 'EQ 마크' 인증기업 199개를 배출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영 합리화 면에서도 꾸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조합은 1998년 11월 14일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인증기관'(인정번호 제3호)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단체표준 제정 및 관리
- 공장심사, 제품시험, 제품검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제정
- 인증심사를 위한 공장 심사
- 제품의 검사시험
- 우수 단체표준 제품의 인증
-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 품질관리 담당자의 지도·교육
- 심사원 제품 검사원의 운영계획 및 준수 관리

특히 산업표준화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수단체 표준 인정 품목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우선 구매하게 되었다.

- 폐쇄배전반
- 디젤엔진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 교류 무정전전원시스템
- 자동전압조정기
- 전력용 몰드변압기
- 특고압 컷아웃스위치
- 전력용 피뢰기
-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 전력공급장치
- 부동용 정류기
- 지상설치변압기
- 자기진단형 일단접지주상변압기
- 저손실형 일단접지주상변압기
- 3MV 미만 전력용변압기
- 25.8kV SF6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조합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지정에 따라 1998년 7월 1일부터 산업표준화법이 개정· 시행되어 기존 단체표준품질인증제도(EQ 마크)가 단체표준우수인증제도로 변경되었다.

조합은 조합원의 품질경영체제 확립과 확대를 위한 품질경영사업을 꾸준히 추진, 1999년 단체표준 우수인증 품목 15개, 214개사가 단체표준 우수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1998.11.14
단체표준 우수인증기관 지정

1998.12.07
전기조합회관에서 열린
단체표준우수인증제도 설명회

21세기를 여는 다각적인 노력

IMF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안정세를 찾아가던 1999년은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내수가 증대되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관수(官需) 부문에서 조기 발주가 확대되었다. 주력 수출시장인 동남아 지역의 경기 회복과 중동·아프리카 등 시장 확대에 따라 수출 물량도 상당 부분 증가했으며,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 및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부품·소재와 전력변환장치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이런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조합은 공동구·판매사업 실적을 당초 목표보다 139.2% 증가한 3,630여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 10월 20일 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 대표 15명으로 공동구매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공동구매사업 활성화, 신규 공동사업 연구·개발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조합원 공동 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공동구매위원회 명단

구분	업체명	주생산품	직위	성명
위원장	영화산업전기제작소	변성기기	대표	공호영
총무	㈜서일기전	AST, ACB	대표이사	이영호
위원	대연전자㈜	전력보호용 계전기 등	대표이사	이창근
	삼화기연㈜	전자식과전류계전기 등	대표이사	김인석
	증원전기공업㈜	개폐기	대표이사	조남진
	선도전기㈜	수배전반, 개폐기	대표이사	전경호
	동광계전㈜	수배전반	대표이사	임한국
	서우전기㈜	수배전반	대표이사	백병육
	㈜대륙	차단기	대표이사	박용관
	대일산전㈜	수배전반, UPS	대표이사	강수인
	대농산업전기	UPS, AVR	대표	김영종
	성원전기공업㈜	복합절연물 등	대표이사	이경호
	우경엔지니어링㈜	수배전반	대표이사	정필근
	세광산전㈜	수배전반	대표이사	김석호
	산일전기㈜	변압기	대표이사	박동석

품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배가했다.

조합은 1999년 3월 11일, 1998년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로 지정받은 후 첫 번째로 대홍전기를 비롯한 14개 업체에 우수 EQ 인정서를 수여했다. 조합은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1회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함으로써 품질관리를 더욱 엄격히 했다.

1999.03.11
우수 EQ 인정서 수여식

제1차 우수 EQ인정서 수여업체

인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신청품목
99-1	㈜대홍전기	류동대	폐쇄배전반(특고압)
99-2	보국전기사업㈜	곽종보	발전기(1,500kW)
99-3	㈜거성	양철수	폐쇄배전반(특고압)
99-4	삼일전기공업㈜	이병일	폐쇄배전반(특고압)
99-5	증원전기제작소	임지수	폐쇄배전반(특고압)
99-6	한양전기공업㈜	박무홍	지상설치형변압기(300kVA) 자기진단형변압기(100kVA) 저손실형변압기(100kVA)
99-7	㈜우원전기	이희영	폐쇄배전반(고압)
99-8	유호전기공업㈜	유문영	폐쇄배전반(특고압)
99-9	원방에지니어링	손석환	폐쇄배전반(특고압)
99-10	신영중전기	김영도	지상설치형변압기(500kVA) 자기진단형변압기(100kVA) 저손실형변압기(100kVA) 3MVA 미만의 변압기(300kVA)
99-11	(유)세건	이정호	폐쇄배전반(특고압)
99-12	(유)대영	나병옥	폐쇄배전반(특고압)
99-13	성보전기공업㈜	배영호	폐쇄배전반(특고압)
99-14	아세아전기공업㈜	김봉현	UPS(75kV)

1998.03.13
대한민국조달물자전 참가

1999.10.05~0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참가 부스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1998년 대한민국조달물자전을 비롯해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중국 베이징 국제전력전자 및 제어기기전시회 등에 참가했다. 또 6월 23일 동유럽에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여 기술 이전 및 합작투자, 시장 조사와 수출 진흥, 신기술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했다.

1999년에는 조합의 대내외 위상 강화를 위해 출입기자간담회와 수출진흥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대한민국조달물자전과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참가하여 조합원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

지역 네트워크 확충 및 정보화 가속화

조합은 지역 조합원들의 어려움과 요청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1999년 6월 21일 대전사무소를 신설했다. 특히 대전사무소는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등이 있는 정부 제3청사 업무를 비롯해 대전·충청지역과 광주·호남지역의 조합원 업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합은 해당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신장 및 조합 업무 편의 지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조합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1998년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기산업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전기산업정보망을 구축했다.
또 조합원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주고, 단독 인터넷 주소를 부여했으며,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공동판매 수주 정보, 수금 및 기업정보 등을 제공했다.
그 결과 1999년에는 이메일 확보업체가 630여 개사에 이르렀으며, 특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려가 컸던 '2000년 표기 문제', 즉 Y2K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펼쳐나갔다.
이 같은 품질 향상, 세계시장 개척, 지역 네트워크 확충, 정보화 등을 통해 조합은 20세기 말의 범국가적 위기를 넘어 새로운 21세기를 앞당겨 열어갔다.

1999.07.07
대전사무소 개소식

2001
조합 홈페이지 운영

02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조합

내실경영과 윤리경영

8

'전기'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전기공업'이라는 이름을 지키다

2000년대가 열리면서 반도체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업종이 활성화되어 산업자원부의 전기 담당 부서가 반도체디스플레이과로 변경되면서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전기'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전기'와 '공업'이라는 이름을 지키며 부단한 노력을 통해 업계 발전에 주력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유지되고 고용허가제 도입 유보가 승인되면서 일단 어려운 상황에 숨통이 트였지만, 조합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조합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조합원사들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며, 그 노력의 하나로 2000년 3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조합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노력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능동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2000년 약 4,000억 원의 공동구·판매사업 실적을 기록하여 당초 목표인 3,000억 원보다 131% 증가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자문위원회 명단

직위	이름	소속	직위
위원장	조규석	승림카본금속㈜	대표이사
위원	조영휘	㈜조양산업	대표이사
	이희만	성원전기㈜	대표이사
	곽종보	보국전기공업㈜	대표이사
	유재균	한광전기공업㈜	대표이사

직위	이름	소속	직위
위원	김승호	신우전기기업㈜	대표이사
	한상준	금성제어기㈜	대표이사
	노재규	동남석유공업㈜	대표이사
	조동평	前 한국전력공사	처장
	윤종민	前 보성중전기㈜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한 정관 내용 현실화

조합은 2002년 2월 21일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조합 선거와 관련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대의원 총회 구성(안)을 승인하고 최대식 가아전기 대표이사 등 92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10일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정 개정(안)과 기능인력양성소 부지 처리(안)을 수정·의결했다.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개정(안)은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기존 조합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및 부속의 배전반 물량배정요령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배정신청 공고 매체 중 PC통신을 삭제하고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로 단일화
2. 기술제안문서의 제출방법 중 직접 접수를 삭제하고 우편접수로 단일화
3. 기술제안문서 제출은 공고일 기준 5일 이내까지 조합에 도착하여야 하며, 배정신청서 접수 마감 후 해당 조합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선 또는 팩스로 그 현황을 공개

이어 같은 해 9월 6일에 열린 제2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배전반물량배정요령을 개정했다. 또 "대의원 선출 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조합 조직 내실화와 윤리경영

1999년 4월 8일 취임한 이병설 제18대 이사장(아시아계전 대표)이 2001년 2월 21일 제19대 이사장으로 재취임한 가운데, 조합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의 능률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2년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획실 및 사업총괄팀을 신설하고 관리본부·사업본부·품질본부의 3본부로 분리하여 종전 3본부 8팀 2소 체제에서 1실 3본부 8팀 2소 체제로 재편성한 것이다.

이때 기획실을 별도로 독립하여 조합의 규정 및 예산, 「전기정보」 발간 및 홍보와 전산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사업총괄팀은 배정비율관리, 물품지정업무, 공정실태조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기존 회원팀은 품질본부에서 관리본부로 이관한 후 자료조사업무와 회원관리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으며, 사업1팀은 배전반을, 사업2팀은 변압기·발전기·UPS 및 공동구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조합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배양과 업무 활성화를 위해 2004년 4월 조합업무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했다. 또 조합원의 의식정화와 기강 확립으로 조합의 운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화합과 위상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제재 규정 확정 및 제재의 공평성을 통한 갈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조합원윤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4월 30일에는 조합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본격적으로 '윤리경영'을 시행했다.

2001.02.21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재취임한
제19대 이병설 이사장

2002.05.21
전기조합 창립 40주년 기념식

KEMC Episode #04

전기조합 발전의 또 다른 숨은 공헌자…
해외시장 개척 활동
: 정부의 협조를 통한 활동에서 독자적인 해외개척으로 확대

단체수의계약이 조합과 중소기업 발전의 가장 큰 밑바탕이었다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조합원사의 의식 향상과 신제품 개발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전기조합 설립 당시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여권도 발급받기 힘들 만큼 해외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해외에 나가 선진기술을 체득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은 정부의 힘을 빌려 해외시장조사를 추진했다.

당시 공업진흥청이나 동력자원부, 상공부 등이 지원하는 해외시장조사에 조합과 일부 조합원사가 참여함으로써 중소 조합원사의 시야가 크게 넓어졌다. 지금이야 우습게 보일 수 있어도 국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첨단제품을 생산할 기틀을 마련했다.

보국전기의 경우 독일 시장조사에서 만난 독일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발전기 전문업체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유호전기공업도 일본 시장조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모자이크제어반과 선로보호계전시스템을 생산해 시장에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기조합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활성화됐고, 그 지역도 아시아를 비롯해 미주,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면서 실적도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조합의 해외활동이 일부 조합원사들의 외유성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활동은 중소기업 수준 향상과 선진 기업운영 및 신기술 도입, 그리고 신제품 개발과 혁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조합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결이 조금 달라진 것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이병설 이사장 시기였다. 방문국 유관기관과의 협약이나 주요 기관 및 업체 방문이 주를 이루거나 정부 지원으로 추진했던 해외시장 조사 및 개척활동을 조합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조합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우리나라 무역관의 협조와 현지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도움으로 독자 수출상담을 펼치거나 조합원을 비롯한 국내 전기공업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전기조합 제품 상설전시장을 개설하는 등 조합만으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해외사업을 실천에 옮겼으며, 조합원의 참가 열의 또한 대단히 뜨거웠다. 다만 그러한 활동이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조합만의 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앞으로 조합이 추진해야 할 활동에 많은 교훈을 제공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위기 극복의 길과 세계 시장 개척

인도네시아에 전기조합 제품 상설전시장 개관

경제위기에 이어 21세기 초반부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같은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조합은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더욱 다양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조합은 2000년 4월 19일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에 '전기조합 제품 상설전시장'을 개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을 통해 조합원 제품의 시장 다변화 및 판매를 장려하고자 개관한 상설전시장에는 영신엔지니어링을 비롯한 17개 조합원사의 제품과 카탈로그 등을 다량 전시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국내 중전기기 제품의 우수성과 선진 기술을 소개하고 제품 판매를 장려하는 거점이 되도록 했다.

2000.04.19
인도네시아 상설 전시관 개관

더욱 다양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

2002년 중전기기산업은 약 17조 1,780억 원 규모로 제조업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출은 주로 동남아와 중국 위주였다. 그러나 점차 미국이나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를 꾀하여 약 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주로 일본이 위주였으나 점차 중국도 증가세에 있었고, 그 규모는 31억 달러 수준이었다. 조합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유럽 및 동남아, 북중미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이를 중소기업 수출 여건 확대의 계기를 만드는 등 수출 진흥 분야에 있어서 알찬 성과를 이룩했다.

2003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활발한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펼쳐, 3월에는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20여 명의 아시아시장개척단을 인도 뉴델리, 방글라데시 다카, 태국 방콕 등 3개국에 파견했다. 6월에는 30여 명의 유럽 시장개척단을 러시아·폴란드에, 8월에는 아프리카 시장개척단을 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에 파견했으며, 10월 말에는 아시아·대양주 시장개척단을 호주·필리핀에 파견하여 시장 조사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2006년에는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대만·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 등 세계 곳곳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썼다. 조합원사와 함께 말레이시아 전기박람회와 중국 베이징국제전기전시회 등에도 참가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태국투자유치단과 함께 태국 현지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03.06
유럽시장 개척단 파견

2006.05.19
시장개척단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시장 수출 상담

03 '전기공업'과 '조합'의 가치를 지키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대응

8 수배전반 가격 현실화와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조합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비하여 조합원사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해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개선하기 위해 2002년 3월 29일 PL 및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일주일 후인 7월 8월에는 '수배전반 가격 현실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수요처에서 발주하는 배전반 가격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조합원사들의 요구에 따라 조합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수배전반 가격 현실화 추진위원회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장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신일웅
위원(팀장)	대원계전(주)	대표이사	박문진
위원	(주)두리계전	대표이사	이하용
	(주)유성계전	대표이사	이진락
	(주)베스텍	대표이사	장세용
위원	(주)세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상군
	삼원배전산업	대표	이영선
	(주)이앤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양희섭
간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사업본부장	이홍원

2002.03.29
제조물책임(PL) 및 지식재산권 설명회

2005.01
배전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말로 조합 배전반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맞았다. 배전반은 조합 단체수의계약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700여 조합원사 가운데 90% 가량이 배전반업체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05년 1월 11일, 단체수의계약 수호와 이에 대한 대정부 호소의 뜻을 모으기 위해 배전반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김명진 씨엔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 29명의 조합원사 대표로 위원을 선출했다. 이후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배전반 사업 중단에 대응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1일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계약에 의해 최저가로 정부 기관에서 구매하게 되어 조합원사 모두가 저가 입찰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단체수의계약 당시 가격의 50%까지 출혈 경쟁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합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조합원사들의 새로운 수익사업인 '우수단체 표준제도'를 이용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발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배전반 부분품들이 있는 까닭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조합은 이 부분품들의 개발을 독려하고 우수단체 표준 규격을 제정하여 조합원들이 정부의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한국전기연구원과 기술개발에 관한 협력을 체결, 보다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도 연구하여 조합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8

조합원사의 어려움 가중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저지를 위한 노력

조합은 2002년 2월 21일 총회 의결을 거쳐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수정 승인된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및 '품목별배정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대전·부산에서 개최했다. 또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제4차 이사회를 통해 단체수의계약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선출했다. 이처럼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단호하게 저지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2004년 7월 30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단체수의계약 개선 공청회에는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사 대표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모인 업종별 협동조합 중소기업인 5,000여 명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주최 측인 중소기업청의 소신과 성의 부족으로 공청회 개최 여부가 불분명해지자 참석자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 철회'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에 주최 측이 공청회 연기를 공식 발표하여 개최가 무산되자 조합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진통 속에 조합은 2004년 8월 23일 조합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 조합 원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단체수의계약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수의계약 품목 수호를 위해 전

2004.07.30
중소기업청 주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 파행

회원사가 단결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2일 '단체수의계약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재영 한광기전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부위원장에 박흥덕 국제산업전자 대표이사, 이명재 동방중전기 대표이사, 유진식 파워맥스 대표이사, 임한국 동광계전 대표이사, 이희영 우원전기 대표이사, 주영철 신성일렉스 대표이사, 총무에 임형규 선우전기 대표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2006년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해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공공 구매시장에서 조합원들끼리 경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수의 중소기업보다 소수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또는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많은 조합원사의 어려움만 가중되어 갔다.

2005년 7월부터 우수 EQ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합은 우수 EQ 인증업체들을 연간 50개 업체 정도로 한정하고, 인증심사도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등 우수 EQ 인증에 대한 공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 조합원들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제조하고자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수 공급자 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04.11.02
단체수의계약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현판식

'협동'을 벗어나 '경쟁'하는 시대, 조합의 설립 목적을 지키는 길에 나서다

2000년대 중반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공공구매제도의 경쟁체제 운영 등 어려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자생 방안을 추진하고 조합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다해 나갔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더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한 품목을 한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하던 기존 협동조합 운영체제도 변경하여 조합 간에도 경쟁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구매 시장에 협동조합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조합형태, 즉 복수조합체제를 허용해야 했고, 이로써 조합원사들의 단결과 협동심을 분리하는 결과를 우려하게 했다.
정부가 공공구매제도를 경쟁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민간시장에서도 이를 따라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공구매시장과 민간시장 모두 조합원 간에 협동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합의 설립 목적인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 증진'과 '협동사업 수행'이 점차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합은 조합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전반 시제품 제작비와 검사비를 정부의 구조개선 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지원해 줄 것, 중소기업 인력 구조 고도화 사업의 조합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004년 제20대 이사장에 양규현 한양전공㈜ 대표이사가 취임한 가운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조합은 2004년 48명이던 인력을 2005년 38명으로, 2006년 27명으로 줄였다. 또 2007년 3월 9일 원일식 제21대 이사장(㈜원플러스 대표이사)이 취임한 이후 같은 해 12명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운영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힘들었던 2000년대 중반, 조합은 근검절약 정신으로 예산 절약과 자생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 결과 목표 대비 연간 130%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KEMC Episode #05

설립 이래 최대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조합
: 그칠 새 없는 소란…전성기와 이별을 고하다

건물에서는 어디선가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청국장을 끓여 먹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울리기도 하면서 예전과 달리 너무도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연일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패가 갈려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광경을 거의 매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바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친 시대의 신길동에 위치한 전기조합의 모습이다.

조합 설립 이후 매년 성장에 성장을 질주하며, 조합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던 시기였지만 내부적인 조합의 속사정은 크게 병들어 있었다.

조합은 당시 이병설 이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과 이사장을 옹호하는 조합원 세력으로 크게 갈라져 연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막강한 권력의 이용희 이사장을 무너뜨리고 기적같이 이사장에 당선된 이병설 이사장이었지만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주변 조합원 간 갈등이 이사장과의 문제로까지 진화됐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기총회의 대의원제로의 전환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되면서 이사장 퇴임 요구가 들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된 것이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정부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점이었기에 조합을 둘러싼 분위기는 그에 편승해 더욱 뒤숭숭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장 퇴임과 조합의 정상화를 표방하고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이병설 이사장의 옛 참모들이 대거 결집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였고, 뒤를 이어 단체수의계약 수호를 표방한 '단체수의계약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조합 집행부에서는 일부 조합원에게 공동판매 물량 배정을 금지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맞섰고, 이에 상대에서는 또 더욱 크게 반발하며 농성하는 등 혼란의 물결은 잦아들지 못하고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고엽제 피해자 관련 단체, 북파공작원 단체 등 일부 외부 단체마저 조합의 혼란상에 가담하는 모습도 보여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합은 거의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로 비쳤을 것이다.

극한 대치상황이 계속되면서 심지어 이사장이 이사장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경찰마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 새벽에 일부 조합원의 도움을 받아 이사장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탈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하는 등 조합의 상황은 최악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다.

그 와중에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단계적 폐지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단체수의계약의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소기업중앙회나 다른 조합들에게 전기조합의 소란은 요주의한 행동으로 비쳐졌다. 심지어는 단체수의계약의 단계적 폐지를 내용과는 다르게 전기조합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물론 전기조합의 소요사태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는 했지만, 제도 폐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전기조합에 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전기조합에게 돌림으로써 그 책임에서 모두가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 때문이었는지 전기조합의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 중 배전반이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계획 추진에 따라 가장 먼저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단체수의계약 폐지와 이사장 퇴임 요구 등으로 한바탕 광풍이 몰아친 조합은 이병설 이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이사장으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양규현 한양전공 대표를 선출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혼란으로 인한 조합의 재정비는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대비해 조합을 정비하고자 했던 양규현 이사장의 일련의 정책에 대해 조합 직원들의 오해가 깊어지면서 대다수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바람에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의 시스템을 과거와 달리 슬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양규현 이사장이었지만, 조합의 혼란했던 상황과 겹쳤던 시기라 양 이사장의 의도는 직원들에게 진솔하게 전달되기 어려웠다. 이를 오해한 직원들의 집단 사표와 업무 마비로 이어지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쓸 수밖에 없었고, 직장을 그만둔 직원들은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살길을 찾느라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폐지계획은 일정대로 차근차근 추진돼 2005년부터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단체수의계약 폐지계획은 일정대로 추진됐고, 내부 사정으로 변변히 대처하지 못한 조합과 조합원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제도 폐지 위기를 실감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난 후였다.

한때 공동판매물량 4,500억 원을 달성하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조합 중 매출 규모 3~4위를 기록하던 전기조합의 전성시대는 조합 창립 이래 최대의 혼란기와 함께 이별을 고하게 된다.

제도의 폐지와 조합 내분이 맞물려 화려했던 시절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겨버리는 쓸쓸하고 아쉬운 퇴장의 한 장면이지만 앞으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증언이기도 하다.

10년 이상 수호 의지를 보이며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다

단체수의계약 수호와 변화에 앞선 대응

뿌리째 흔들리는 30년 역사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정부가 단체수의계약 품목 수를 매년 큰 폭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본격적으로 밝힌 것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수수료에 조합운영비를 의존하던 협동조합들은 당장 다음해 수입조차 예상하지 못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조합을 비롯한 전선조합·조명조합·전등기구조합 등 전기 관련 조합들은 1994년 말부터 상공자원부의 단체수의계약 해제방침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상공자원부의 방침대로 단체수의계약이 해제된다면 단체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전기공업 관련 부문은 큰 타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5년부터 누전차단기와 리액터 등이 당장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사업 규모는 1994년보다 24.8%가량이나 줄어들었다. 여기에다 통상산업부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계속 줄여나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조합의 공동판매사업도 갈수록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더욱이 1995년 3월 조달청이 단체수의계약 창구를 기존의 업종별 조합에서 개별업체와 조합으로 이원화하는 등 단체적 경쟁입찰 구매 방식을 새로 도입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자, 조합이 추천한 3~5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이후에야 조달청이 관련 조합과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조달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제도를 변경한 데다 시간적·금전적 낭비로 인해 오히려 원가 부담을 높이는 등 많은 문제점을 빚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거나 조합원사가 물량 배정을 기피한다면 조합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었으며, 계약 건수가 조합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개의 회원사를 입찰에 참여시켜야 하는 등 숱한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제조원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갈수록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1995년 초 정부가 이미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496개에서 331개로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조달청의 단체적 경쟁입찰 변경 계획에다 국방부까지 단체수의계약 품목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중소기업들은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막을 벗기고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일차적인 입장이었지만 중소기업계는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개방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축소하고 있으나 정작 외국에서 이 제도의 축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당시 연간 2,700억 원어치의 단체수의계약을 하면서 이중 변압기·무정전 전원장치·수배전반 등 700억 원어치를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었지만, 주요 구매처인 한전이나 한국통신 등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유독 조달청만 제도를 바꾸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

1994.07.19
단체수의계약제도 추진방향에 관한 간담회

자체적인 시장 개방 대처와 단체수의계약 수호 주도

조합은 1995년 당시 시장 개방화 시대를 맞아 정부에 의한 보호 육성에서 탈피해 단체수의계약 축소와 조합 업무 조정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단체수의계약 축소 및 공동구매 확대', '단체 표준 확대', 'ISO 9000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자체적으로 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했다. 아울러 1995년 8월에는 KS·ISO·단체표준 등 품질규격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품질규격인증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 자금과 시간을 투자

해 품질규격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의 불만이 높았으며,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노력 없이 종전의 나눠먹기식 배정에 안주하려는 업체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조합의 강력한 의지였다.

이런 의지와 함께 업체들의 연착륙을 위해서 단체수의계약 수호에 집중한 결과, 통상산업부는 1995년 배전반 전체를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일부 철회하고, 배전반 일부에 해당하는 특수배전반과 전원공급장치 등 약 250억 원에 달하는 품목을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하는 대신 나머지 품목들은 배정방식과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존속하기로 했다.

1997년 7월, 조합은 그동안 균등 수혜 원칙에 따라 배정해왔던 수배전반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생산능력과 전업률, 품질 관련 자격취득 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하는 능력별 수혜제로 전환했다. 이처럼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균등 배분에서 능력별 배분으로 전환한 것은 관련 업체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능력에 따라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조합의 자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들어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단체수의계약 폐지를 검토하자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88개 협동조합 이사장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수의계약활성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단체수의계약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주도록 요구해 나갔다.

1997.01.24
정부 중전기기 산업 시책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설명회

"수의계약제도의 폐지는 곧바로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부도의 가장 큰 원인인 판매난을 완화해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물론 현행 수의계약물량의 균등 배분 납품 방식 등이 품질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수의계약제도를 없앨 경우 과당경쟁과 덤핑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더 심각할 것이다. 현행 수의계약제도 하에서도 중소기업 간의 경쟁으로 얼마든지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또 그 같은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것이 단체수의계약활성화대책위원회의 주장이었다. '수의계약제도 하에서도 중소기업 간의 경쟁으로 얼마든지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또 그 같은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합이 수배전 분야의 수의계약물량을 기업 능력별 배정으로 바꾼 점을 들었다. 조합은 조합원 업체의 기술개발, 정부 시책 참여, 수출실적, 품질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물량을 배정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특히 1997년 9월 단체수의계약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용희 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달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 단체수의계약 활성화에 앞장섰다.

하지만 정부의 근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199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를 거쳐 당시 258개에 달하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2~3년 내에 이 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실제로 1999년 단체수의계약 물품 수는 206개로 줄었으며, 2000년에는 단체수의계약 품목대상에서 정류기와 개폐기가 제외되었다.

이른바 '단체수의계약 졸업제도'도 중소기업들이 신경을 집중하고 개정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력갱생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3년 이상 배정받은 업체는 앞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합은 이미 품목별로 조합을 분리·독립시키는 등 이 같은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비했다.

하지만 2004년 7월 감사원이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여 중소기업청에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합 품목 가운데 일부가 단체수의계약 지정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해졌다.

조합은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에 소명자료와 자정 결의 각서 등을 제출하는 등 단체수의계약 재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492개 조합원사가 작성한 '단체수의계약 제도 운영의 자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자정 결의 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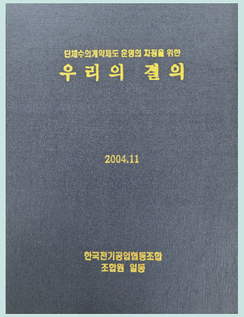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제조업체 조합원 대표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단체수의계약 품목 유지를 위하여 연대하여 각서를 제출하고 공동 책임을 지기로 한다.

1. 우리 전기공업협동조합 제조업 조합원들은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어떠한 민원제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며, 단체수의계약 운용에 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우리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및 지침에 위배되는 물품 배정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실태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를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며, 해당 품목이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위반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3. 우리는 앞으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배정받아 하청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청을 받지도 않을 것을 서약한다.
4. 우리는 앞으로 물량배정심의위원회의 의견 사항을 존중하며 무조건 승복하여 조합 내에서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관계기관에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조합 측의 관계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단체수의계약 수혜 전 조합원이 연대 서명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

_ 2004년 11월

2004.11
'단체수의계약 제도 운영의 자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 모음집
•



2005년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으로 81개 조합의 138개 물품을 지정하되 이 가운데 11개 조합의 12개 물품은 3개월만 한시적으로 지정하고 4월부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를 접한 조합들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그동안 관련 기관에 자정 결의 각서까지 제출하며 단체수의계약 재지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조합은 이 소식에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연초에는 단체수의계약 수주 물량이 거의 없기에 3개월간 유예조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으며, 동일한 규정 위반에 어떤 조합은 3개월, 어떤 조합은 1년으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이에 500여 조합원사는 하도급 업체로 전락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조합원 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소기업들이 관련 조합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7년 전면 폐지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인들은 "약 40년을 이어온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비효율성'과 '국제통상 규범을 위배하는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등의 문제점을 내세운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1963년 도입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중소기업 조합들은 추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수입이 단 1원도 없는 조합들도 생겨나면서 2007년 19곳, 2008년 61곳, 2009년 53곳, 2010년 71곳, 2011년 46곳, 2012년 38곳이 문을 닫고 말았다.

조합은 공공물량을 배정해주는 수동적인 조직에서 벗어나 회원사를 모으고 입찰 참여를 주도하는 쪽으로 진화했다. 자동으로 일정 물량을 배정받던 과거와 달리 입찰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과감하게 배제했고, 납품 후 사후관리도 조합 차원에서 챙겼다. 그 결과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공공 수주액이 2009년 280억 원에서 2010년 500억 원을 넘겼고 2012년에는 7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를 대표하는 분야가 변압기였다. 수주할수록 손해를 봤던 한 조합원사는 조합의 공동입찰에 참여하면서 위기를 극복했고, 단체수의계약 시절과 큰 차이 없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주하게 되었다.

이처럼 단체수의계약 폐지라는 변화 앞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10년 이상 수호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응형무궁'은 손자병법의 한 구절로, 다음과 같은 뜻을 지녔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5장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다

2007 — 2014

하나 된 힘으로 더욱 큰 희망을 보다

01 분당 시대의 개막, 더욱 큰 희망의 서막

분당 신사옥 준공과 새로운 도약의 기반 구축

분당 신사옥 준공과 인력개발원 개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1962년 명동, 1963년 을지로, 1967년 수표동, 1977년 동자동, 1989년 신길동에 이어 200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새 터를 잡았다.

분당 시대의 개막이자, 더욱 큰 희망의 서막이었다. 조합은 2007년 9월 18일 신길동 사옥을 60억 원에 매각한 후 9월 21일 신사옥 준공식을 갖고 새로운 분당 사옥 시대를 열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91번지에 위치한 분당 신사옥은 대지 6,109㎡, 건평 2,993㎡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서, 부지 매입비 26억 원과 건축비 34억 원이 투입되었다.

특히 신사옥 내에는 조합 부설 중전기기 기술교육원이 함께 자리 잡았다. 조합은 이 교육시설에서 조합원사 임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전기, 변

2007.10.22
중전기기 기술교육원 준공식

압기, UPS 권선공과 배전반 조립공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설계업무를 비롯한 공동입찰, 원가산정 등의 전산교육과 종합 시운전, 시험검사 등 전력전자 분야의 특별 직종 기능기술자 교육도 병행해 전기공업 종합인력 양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조합은 2008년 5월 16일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을 받고, 분당 사옥 내에 전기 관련 기능인력 양성의 초석이 될 인력개발원을 개원했다.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2007년 신사옥 준공과 함께 문을 연 중전기기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인력개발원'으로 개칭하고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중간관리자, 전문 기술인력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조합원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5월 19일 열린 조합 부설 인력개발원 현판식과 개원식에서 원일식 이사장은 개원사를 통해 "전기조합은 부족한 전기기술,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설과 조합원사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2008.05.19
인력개발원 개원

조합은 인력개발원을 개원해 업계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한도 인상을 이끌며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품목을 지정받았다.

이라면서 "인력개발원이 전기공업인의 발전과 성장에 밑거름이 돼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에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인력개발원 개원을 맞아 2008년 5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첫 번째 교육과정으로 배전반 설계 CAD반을 진행했다. 30명 정원인 교육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부득이하게 교육을 못 받게 된 신청자도 있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호응도는 매우 높았다.

인력개발원 개원 첫해인 2008년 조합은 70여 명에게 기술력 향상 교육을 시행했으며, 국내 최초로 중전기기 설계 자격증도 발급했다.

공공기관의 발주 품목 입찰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가 도입되면서 2007년부터 소수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나 특수 기술 보유 업체만 이익을 볼 뿐 다수 조합원사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어려움이 이어졌다. 또 일부 품목은 경쟁적인 복수조합체제가 불가피해 이로 인한 부담만 늘어나게 되었다.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조합원사의 충격을 완화하고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관계 당국에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2007년 1월 1일부터 이 인상안이 시행되었으며, 조합이 추천권을 주도록 개선되었다.

특히 조합은 어려움에 처한 업체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2007년 9월 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발전기(디젤엔진), 무정전전원장치(UPS), 변압기 품목에 대한 적격조합 인가를 취득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5일, 이들 품목을 포함한 총 10개 소관 품목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 대상 품목 지정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발주 품목 입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8

신기술 개발의 전환점, '엘크바' 개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인해 수익사업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조합은 수입원 창출과 조합원사의 원가절감을 위해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엘크바(ELC, Economy Light Conductor bar)'였다.

신사옥 건설이 한창이던 2006년, 조합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기초 연구를 완료한 동복(銅覆) 알루미늄 신소재 적용 전기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조합은 연구가 본격화되던 2005년 8월 7일에 이미 한국전기연구원과 기술개발협력 협약을 맺은 바 있었다. 그리고 이 복합 신소재는 '엘크바'라는 이름으로 상용화에 들어갔으며, 조합은 이 사업에 앞장서 투자를 단행했다.

'엘크바'는 기존에 동을 사용하던 부스바(Bus bar)를 알루미늄 도체에 구리로 압착 피복해 변경한 층상구조의 경량 복합 부스바로, 동과 비교해 전기적·기계적 특성은 비슷하면서 무게는 60% 이상 가볍고 부피는 15% 이상 늘어나 3배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소재였다. 또 이미 일반화된 동과 알루미늄 용접방법 접합과 달리 저온 고밀착 형태의 기술로서, 물리적·화학적으로 완전하게 접합되면서 경제성까지 획득한 제조 방법으로는 세계 최초였다. 봉·사각·파이프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한 이 소재는 배전반 부스바, 변압기·발전기·UPS의 권선, 전선 및 통신선 등 모든 제품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

2005.08.17
한국전기연구원과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서 조인
•
2007
조합이 투자한 엘크바
•

조합은 수입원 창출과 조합원사의 원가절감을 위해 동복 알루미늄 신소재를 적용한 전기도체인 '엘크바' 개발에 투자하고 판매를 독점하며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로써 신소재의 상용화에도 기여하였다.

강점으로, 조합은 특히 이 같은 사업성에 주목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기초 연구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조합은 2007년 5월 미래특수금속과 생산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판매는 조합이 독점하게 되었다.

2007년 9월 1일, 조합은 동복 알루미늄 신소재를 적용한 전기도체를 특허 출원하고, 같은 해 12월 1일 실용신안 특허를 추가로 출원했다. 조합은 동복 알루미늄 전기도체 개발 후 곧 부스바용 절연 지지대로 제작해 판매했으며, 전선에도 적용해 배전반 배선용 전선을 개발, 주요 조합원사인 배전반업체에 판매했다.

전선용으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규격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08년 11월 단체표준규격으로 관련 규격(안)을 만들어 표준협회에 규격 제정을 신청하고 2009년부터 규격에 따른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복 알루미늄 신소재가 부스바에 이어 배선용으로 상용화되면서 신소재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조합원사들의 원가도 절감하고 선택의 폭은 넓어졌으나 국내시장이 여의치 않아 오래 가지 않았다.

8

다양한 업무 협약을 통한 조합원사 지원

조합은 다양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도 조합원사 지원에 나섰다.

우선 신제품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15일 서울전선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CCA 전선 개발 및 상품화, 제품규격의 제정 및 표준화, 제품의 공급 및 판매,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시작했다. 또 같은 해 6월 조합원사의 기업신용평가업무 지원 및 수수료 절감을 위해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나이스디앤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 조합 홈페이지 신용평가업무지원 메뉴를 통해 신용평가를 신청할 경우 평가수수료를 할인받도록 했다.

2010.05.24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 체결

2009
WEZES 브랜드 사용 예시

2010년 4월 15일에는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술개발과 자문,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표준화 업무 등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또 같은 해 5월 24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의 땀과 노력 장인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계' _조합 공동브랜드 'WEZES' 제정

조합은 2009년 10월 22일 제주에서 열린 '2009년도 전기공업계 CEO 인력관리 선진화 세미나'에서 조합 공동브랜드인 'WEZES'를 제정·발표했다. 'WEZES'는 '조합의 땀과 노력 장인정신으로 만든 최고의 전기기계'를 표방하는 브랜드 명이었다. 'We+Zest'는 '우리의 열정'을, 'Z'는 '최고 정점, 최상, 더 이상 없음'을, 'World+Energy+Z+ES(Electric System)라는 전기기계 장치'를 각각 의미하는 약칭의 조합으로서, 활용성, 접근성, 차별성, 브랜드 확장성 등을 충족하도록 한 브랜드였다.
이후 공동브랜드 'WEZES'를 활용, 조합을 대표 법인으로 하는 27개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 공동 물품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전국 조합 중 최초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지정과 ISO 9001 인증

조합원사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합은 2010년 7월 5일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지정을 받아 3억 원의 납품실적을 기록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지정은 전국조합 중 최초였다.
이를 포함하여 조합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소액수의계약 추천 등으로 조합원사가 70억 원을 납품하도록 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2010년 12월 20일에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전기 관련 협회와 단체 중 최초로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을 의미하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2010.07.20
조합원사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증서 수여식

8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 수출 컨소시엄 주관단체 선정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당시 상승 국면에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도 위기를 가져왔다. 2년 후인 2010부터 우리나라는 그 위기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벗어나 국가적으로는 6%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졌다. 조합도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을 거치며,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사들을 지켜야 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더욱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었다.

조합은 2008년 중전기기제품 수출과 관련해 '2008년도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 수출 컨소시엄 주관단체'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

- **1차 년도(2008년)**
  변압기·개폐기 제조사 중 수출경쟁력이 있는 10개사 선정,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고도화 사업 추진
- **2차~5차 년도(2009~2012년)**
  국내 전략 품목 생산 수출기업 대부분을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수출경쟁력 강화

2008.07.03
인도네시아 상설전시관 개관

2010.08.24
한국-인도네시아 간
전기공업 무역 회의 참가

조합은 글로벌 전략품목 수출의 기점을 2008년 5월 14일 열린 '200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으로 잡았다. 조합은 이 행사에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 진행과 함께 해외검색 엔진을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했다.

2008년 7월 3일부터 나흘 동안에는 인도네시아 상설전시관에서 전시회를 개관,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상설전시관은 약 73.5㎡ 규모로, 남성기업사·동방전기공업·유성계전·송암시스콤·세중·이천엔지니어링 등 6개 조합원사 제품과 함께 조합의 '엘크바' 등을 전시하여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활용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 개발한 '엘크바' 수출과 관련하여 2008년 4월 17일 인도의 Press Gel Insulations Private Limited와 양해각서를 체결, 동복 알루미늄 신소재를 판매 루트를 개척한 바 있다.

조합은 2010년 4월과 8월 각각 수출기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사업(러시아·우즈베키스탄·베트남·인도네시아)을 위한 마케팅 일정 및 상담회 구성에 들어갔다.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스마트

그리드 전시회와 일본 오사카의 일본전설공업전시회 일정, 베트남·인도네시아 지역 수출 컨소시엄 및 전시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8

전국 600여 개 조합 중 최우수조합 선정
: '2010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수상

위기를 딛고 함께 희망을 쓰고자 하는 조합의 노력은 조합원사는 물론 외부 기관들로부터도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조합은 2010년 12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명칭 변경)가 개최한 '2010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전국 600여 개 조합 중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되어 '2010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을 수상했다. 경쟁입찰과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해외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한 공로, 회원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2010.12.28
2010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수상

KEMC Episode #06

현재의 분당 조합회관 설립 바탕을 마련하다
: 기능인력양성소 특별기금 조성을 통한 분당 토지 매입

전기업계를 둘러싼 상황은 어느 때보다 호황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생산인력이 항상 부족한 것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의 전반적인 사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다수 조합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생산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조합은 중소기업들이 각자 연구개발 활동을 함으로써 그 실적과 진행속도가 더디다는 문제에 착안, 조합이 조합원 연구개발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 그 효과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임도수 이사장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조합은 기능인력양성소 설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1991년 2월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위한 의안을 의결했다. 같은 해 3월 열린 이사회에서 '기능인력양성소 설립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0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추진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11월부터 20억 원 모금을 목표로 공동판매물량 금액의 0.5%를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특별모금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시장 환경이 호황이어도 1%에 가까운 공동판매 수수료를 이미 조합에 납부하던 조합원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아닐 수 없었기에 조합의 이러한 계획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조합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반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기능인력양성소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조성된 기금은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계획을 실천에 옮겨 나갔다.
해마다 단체수의계약 물량이 대폭 증가하는 시절이었기에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가라앉았고, 기금도 생각보다 상당히 원활하게 조성됐다.
약 2년여 만에 목표기금인 20억 원이 조성됐지만 조합은 이를 더 연장하여 3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고, 개별기업으로서는 생각지 못할 규모이지만 전체 조합원 모두의 동참으로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동판매물량의 0.5%를 기금으로 조성하다 보니 기금 조성에 많이 기여한 조합원은 아무래도 단체수의계약 규모가 큰 조합원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전 납품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신한전기 등 변압기업체들이 평균적으로 기금조성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으며, 배전반에서는 선도전기와 광명전기, 발전기에서는 보국전기, 개폐기·철탑 등에서는 보성중전기 등의 업체가 기금조성의 선두에 있는 조합원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유호전기는 약 1억 3,000만 원 이상의 기금조성에 기여해 기능인력양성소 기금 마련에 가장 많이 협조한 조합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조성된 기금으로 양성소를 건립할 마땅한 곳을 물색하던

조합은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해 분양하던 분당의 토지를 31억 원에 구매하였다. 당시 그 지역 시세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구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땅에 지금의 조합회관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조합이 20년간의 신길동 사옥 시대를 끝내고 분당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야심찬 계획 아래 구입된 분당 부지는 몇 차례의 좋은 개발 기회를 놓치고 방치하면서 높은 세금 때문에 한동안 그 처리 문제가 조합의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임도수 이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이용희 이사장 시기에는 이를 매각하는 계약까지 했으나 부실기업과의 계약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신길동 사옥 매각 후 분당으로 이전한 후에는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성 기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는 등 파란의 과정을 맞기도 했다.

분당 기능인력양성소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고심하던 조합은 결국 이곳에 새로운 조합 사옥을 건설하고, 2007년 신길동에서 분당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분당 부지를 조합 사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여지는 없었는지, 또 그곳을 개발하더라도 당시 조합에 자금적인 여유가 있었던 상황에서 구태여 신길동 사옥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각기 갈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은, 당장의 호시절에 머물지 않고 업계의 미래를 위해 기능인력양성소 건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합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노력했고, 결국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의 전기조합 60년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합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2022년에는 조합회관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성화하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조합은 조합원사와 희망찬 10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02 세계전기공업을 선도하는 전기조합

창립 50주년과 부단한 도전

대한민국의 전기공업을 주도한 도전과 열정의 반세기 _조합 창립 50주년

2012년 5월 21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역사적인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2년 5월 21일, 전기공업계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전기공업을 주도해 갈 국내 유일의 사업자 단체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 도전과 열정의 반세기 역사를 이은 것이다.

조합은 이날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이해규 송암시스콤 대표가 편찬위원장으로, 이광섭 조합 전무이사가 실무위원장으로, 다음의 조합원사 대표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여 약 500페이지 분량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0년사』를 발간했다.

- 박흥덕 국제산업전자㈜
- 오갑근 근오계전㈜
- 양태권 동방전기공업㈜
- 윤지근 범양계전㈜
- 유병언 ㈜비츠로테크
- 박기도 ㈜서울전원시스템
-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 허 건 세하전기
- 이영호 ㈜여기로테크
- 유인창 유호전기공업㈜
- 조재봉 한원계전㈜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재광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의미와 소회를 밝혔다.

"경복궁에 처음 점등으로 전기사업의 서막을 알리고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쳐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및 무역 규모 세계 10위권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배경에는 전기공업의 발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2.05.21
조합 창립 50주년 기념식

201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0년사

전기공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지대한 공헌을 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는바 이는 공동구매를 통하여 조합원사의 원가절감과 경쟁력을 제고 하고 공동판매를 통하여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업체 및 시장의 실태를 파악 정부에 보고 및 건의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여 안주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나온 시절을 회고해 볼 때 우리 조합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및 지적재산축적에 치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중전기기 제품의 융복합화, 경량화, 소형화, 특수소재를 이용한 슬림화로 세계 일류 기술개발과 디자인을 최고급화 하는 것만이 세계를 상대로 한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깊이 명심하고 전기공업인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의 전기공업을 선도하고 나라발전에 영원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조합원사를 위한 교육 및 법률 지원

2012년 12월 4일부터 사흘 동안 인력개발원 개원 후 최초로 변압기 업체 대상 '중전기기 설계 및 제작기술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변압기 설계 이론 및 실무, 변압기 구조 및 최신기술 동향 그리고 제품표준과 제조공정 등 변압기 설계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설계 담당자로서의 소양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었다.

아울러 조합은 교육 후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교육성취도와 능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보다 적극적인 조합원사 지원을 위해 조합은 2013년 1월 1일부터 법률상담제도를 시행했다. 상담 범위는 민·형사, 조세, 기업 법무 등 각종 법률문제 전반으로서, 일반적인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했지만 단순 상담 수준을 넘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실시했다.

2013.01.11
국제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
현판식

지식경제부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과 폭넓은 기술력에 대한 평가

조합은 2011년 변압기와 개폐기, 그리고 배전반 제품 일부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받아 조합원사의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의 한전 변압기 연간 단가계약을 일괄 수주하여 조합원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기구)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를 기념하여 조합은 2013년 1월 11일 조합 5층 대강당에서 '국제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조합은 KAS 인증기관으로 인정 후 처음으로 광명전기와 유호전기공업㈜에게 KAS-KEMC의 V-체크 마크 인증서를 수여했다.

조합은 2013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AS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 심사 평가를 처음으로 받았다. 당시 V-체크 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14개, 인증 부문은 50종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2013년 6월 10일에는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WEZES) 물품 지정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13일에는 내아크 특성강화 모듈러 수배전반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는 등 조합 기술력이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공정·평화에서부터 상생발전까지, 더욱 다양한 분야의 대외협력

조합은 2011년 5월 한국전기산업진흥회·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과 해외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또 2012년 6월에는 한전과 함께 전력산업계의 반부패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전력산업계 윤리경영 실천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전과 협력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2년 11월에는 대한전기학회를 비롯한 전기분야 단체와 전기 분야의 기술인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대외협력은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2013년 10월 24일에는 조합 발전 및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

2011.05.20
해외 마케팅 공동 추진을 위한
MOU 서명식

2014.01.2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MOU 체결

을 위해 평화통일 국민포럼과 통일기금 운동 모금 전개에 대한 업무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중전기기 시험검사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의 상호협력 협약을, 12월 10일에는 중전기기 시험 및 검사 업무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상호협력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2014년 1월 22일에는 우리나라 전력산업 및 전기공업 발전과 시험검사 관련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 기관은 제품시험검사, 인력교육, 기술정보 교류 등에 관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은 제품인증시스템, 기술개발, 시험비용 절감 등을, 조합원사는 전문인력양성, 기술정보 교류, 산학협력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외협력 강화와 함께 조합은 2013년 10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랑나눔바자회'에 참가하는 등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03 조합 운영 안정화와 조합원사의 권익 확대

흑자 재정 전환과 서비스 질 향상

2013년 흑자 전환을 넘어 업계 발전의 각오를 다지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증대와 경비 절감에 주력하여 다년간 이어온 손실을 완전히 정리하고 흑자 재정으로 전환하며 2013년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25일 조합 5층 대강당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다,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모두가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공동구매 물품의 다양화와 공동판매량의 확대로 재정 흑자 규모를 대폭 늘린다.
- 조합원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한다.

이날 조합은 전기공업계 발전에 공로가 큰 조합원 2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조합 이사장상을 전달했다.

2014.02.25
제52회 정기총회

또 2014년 8월 20일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조합원사들이 전기신문사가 주관한 제17회 한국전기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국무총리 표창:** ㈜엘파워텍 대표이사 최성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제룡전기㈜ 이사 김태호
- **중소기업청장 표창:** ㈜파워맥스 이사 박영일, ㈜세화이엘씨 부장 정순철, 성진종합전기㈜ 과장 김철오

조합전산시스템 개선사업 완료 및 조합원 서비스 질 향상

'조합원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한다'는 2014년 신년 각오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조합은 2014년 11월 내부정보화시스템 개발 등 조합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내부시험가동 후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조합은 이미 200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내부정보화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나 잦은 에러 및 서버다운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2011년 비전 선포와 함께 새로운 내부정보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발계획을 세웠으며, 2013년 조합 재정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내부정보화시스템과 홈페이지의 연계를 통해 모바일에서 조합 홈페이지를 구현하여, 각종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내부정보화시스템과 홈페이지에는 조합원사 제품 홍보 기능을 탑재하고, 대용량서버 및 데이터 이중화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 2014년 조합은 전년의 흑자 전환에 이어 조합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조합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정책 건의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의 재지정을 이끌었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하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 마련

조합이 밝힌 2014년도 목표 가운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모두가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와 관련, 2014년 4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광 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당시 일부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라 주장하며 규제개혁 시류에 편승해 '나쁜 규제'로 몰아가는 등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는 출범식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 대·중소기업 간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 제시
-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입장 조율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부와의 소통

2011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에 대한 순차적 재지정을 앞두고, 2014년 6월 11일에는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원칙을 유지하되, 운영 기준과 범위는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

2013.05.15
이재광 이사장, 창조경제시대
국내벤처중소기업발전모델 정책세미나 참여

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기준과 방법,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 조정협의체의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은 배전반(4,500KVA 이하)과 유입변압기(1,000KVA 이하)를 재지정받기 위해 변압기는 종전과 용량 등 조건을 동일하게, 배전반은 3,000KVA로 용량을 축소한 재지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을 설득한 결과 2014년 12월 향후 3년간 재지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기업의 침해에도 강력하게 대처했다.

불공정행위 사전예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_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불공정거래신고 시 거래중단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협동조합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14년 9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선제대응에 나섰다.

이후 조합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거치게 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정부 및 정당에 대한 각종 정책 건의 고도화

조합은 2014년 4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공공구매 관련 업무절차의 애로사항 시정과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건의했다. 시정요구사항은 물품대금 지급 관련 2건, 물품규격 1건, 소송고지 1건이었으며, 건의사항은 우수조달 공동상표와 MAS 계약제도 및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를 통한 계약을 적극 활용 등이었다.

이어 같은 해 9월 2일에는 이재광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내수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역시 같은 해 11월 4일 이재광 이사장이 '경제 활

2013.05.13
이재광 이사장,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 참여

성화를 위한 새누리당 대표 초청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1. 조합 추천 소액수의 계약제도는 의무규정이 아닌 사실상 일반 경쟁이므로 수의계약을 의무화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와 관련,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상 물품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을 포함하고 수주 상한을 2억 3,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3. 우수조달 공동상표 구매 제도와 관련, 지방계약법상 수주금액을 국제입찰 개방 기준 금액인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장치 단체표준 제정

조합은 2014년 6월 24일 '태양광발전장치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셀·인버터 등 태양광발전장치 부품의 국제규격은 있었으나 발전장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인된 규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전문가 회의에 업체, 시험기관, 인증기관, 사용 전 검사기관 등이 참석하여 제조업체와 사용자에 적합한 표준규격 제정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4.06.24
태양광발전장치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2014년 7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태양광발전장치(발전용량 500kW 이하 품목)에 대한 소액수의계약 추천요청 처리조합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후 조합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5,000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의뢰를 받게 되었으며, 조합원사는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주 활동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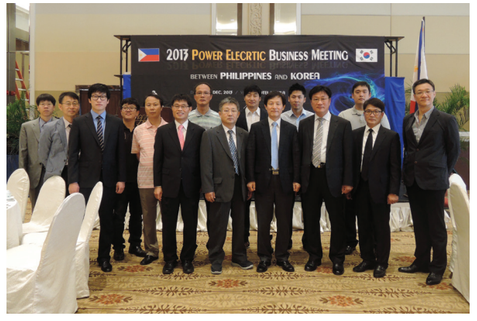
아울러 조합은 '태양광발전장치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는 2014년 8월 서면평가를 통과했으며, 조합은 같은 해 8월 29일 현장 확인 심사를 받았다.

이어 2014년 9월 대면평가를 걸쳐 태양광발전장치 단체표준화 기술개발사업자로 최종 확정되어 향후 10개월간 정부지원금으로 표준태양광발전장치 개발 및 단체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세계 시장을 향한 부단한 여정

조합은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3년 5월 26일부터 나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사우디 국제전기전력전(Saudi Energy 2013)'에 우수 중소기업을 파견, 한국관을 구성하여 총 8개사의 전시 및 홍보를 지원했다. 19개국 130개사가 참가한 이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터키·이탈리아·태국 등 6개국이 국가관을 구성하여 현지 바이어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13.12
필리핀·인도네시아 수출촉진회



이와 함께 2013년 5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조합원사와 함께 제61회 일본전설공업전 전시회를 참관하고 현지 공장을 견학했다. 또 같은 해 6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6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각각 열린 '2013년 베트남·말레이시아 수출촉진회'에

참가하여 신기술 발표, 참가 기업 제품 홍보,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가졌다.

같은 해인 2013년 10월 2일부터 사흘 동안에는 태국에서 열린 'POWER-GEN ASIA' 전시회에 15개 조합원사와 함께 참가하여 4,300만 달러의 현장상담 실적과 100만 달러의 현장 계약 실적을 올렸다. 이어 10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미얀마 국제전기전에 9개 조합원사와 함께 참여했으며, 1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전기공업회 초청으로 도쿄에서 열리는 SCF전시회를 참관하고 J-POWER 발전소를 견학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21일부터 9일 동안 파나마와 브라질 수출촉진회에 7개 조합원사와 함께 참가하여 현장 상담액 1억 달러 상당, 현장계약액 3,000만 달러 상당의 실적을 올리고 30개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3년 마지막 현지 해외 판로 개척지는 12월 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필리핀·인도네시아 수출촉진회였다. 조합은 8개 조합원사와 함께 수출촉진단을 구성해 이 행사에 참가하여 1,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70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 행보는 2014년에도 이어졌다.

조합은 2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력전에 8개 조합원사와 함께 참가하여 현장 계약 79만 달러, 향후 계약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조합의 노력은 2010년대 중반에도 이어졌다. 중동과 동남아,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를 무대로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고 수출촉진회에서 계약 성과를 이뤄나갔다.

가능액 3,600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23일부터 8일 동안 동유럽(폴란드·헝가리) 수출촉진회에 7개 조합원사와 함께 참가했으며, 6월 23일부터 닷새 동안 동남아(태국·캄보디아) 수출촉진회에 9개 조합원사와 함께 참가했다. 이 촉진회에서 참가업체들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현지 전력 관련 기관 방문 및 배전전력회사 면담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았다. 조합은 또 같은 해 9월 10일과 9월 17일부터 각 사흘 동안 열린 말레이시아 파워젠 박람회와 베트남 호치민 전시회에 10여 개 조합원사와 함께 참가했다.

특히 같은 해 11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국제발전, 송배전 및 신재생 에너지전(Power Bangladesh 2014)'에서는 국내 전력산업 최초로 현지 국내 중전기기 수출지원을 위한 한국공동관이 운영되었다. 조합은 이 행사에 9개사 조합원사와 함께 참가하여 현장 상담액 370만 달러 및 현장 계약 6만 달러 달성을 통해 신흥시장인 방글라데시 진출 토대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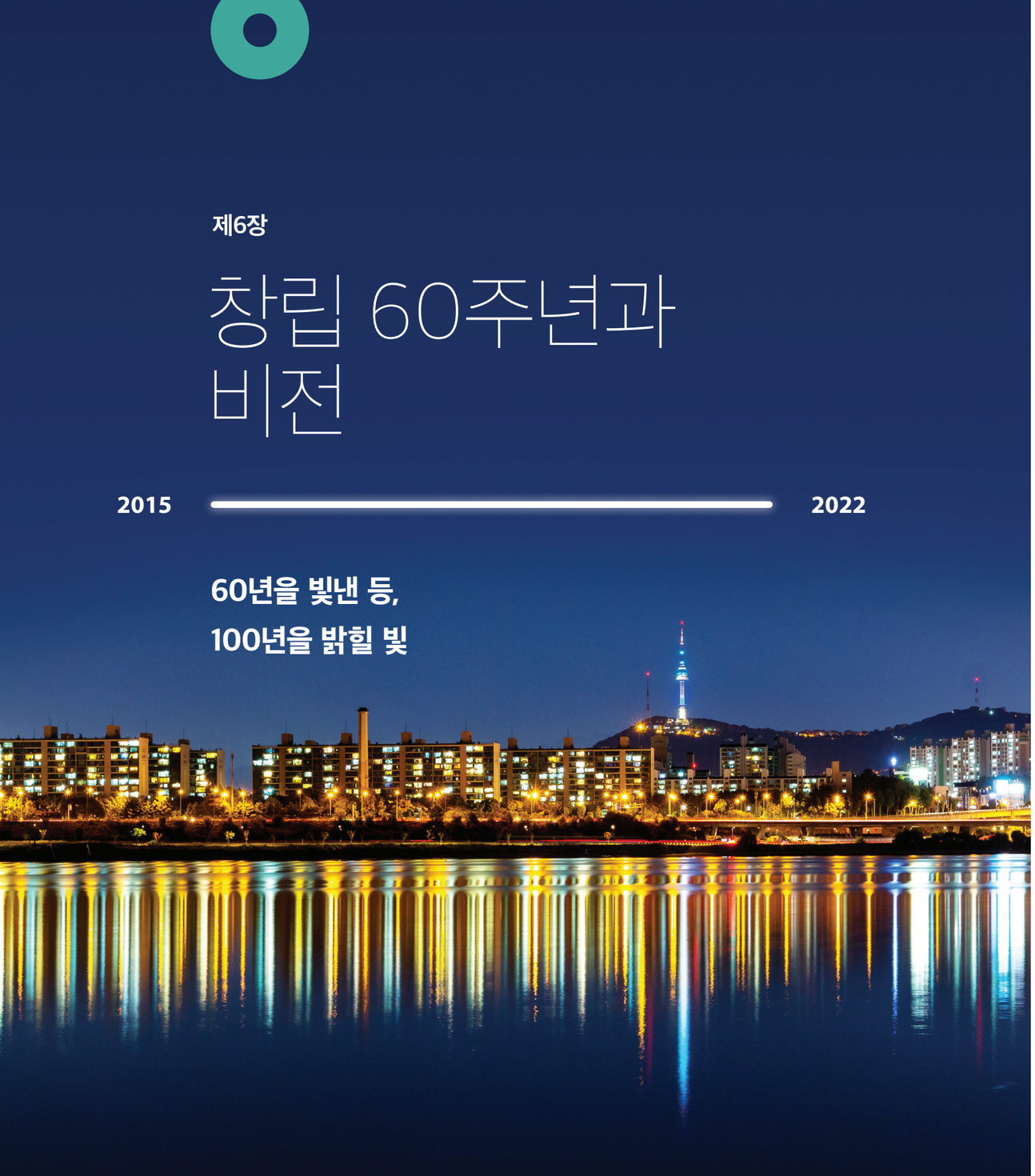
2014.02.11~13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전력전 참가

2014.11.13~15
방글라데시 국제 발전,
송배전 및 신재생 에너지전 참가

제6장

창립 60주년과 비전

2015 — 2022



01 소통하는 조합, 투명한 조합

조합원 수 재증가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제24대 곽기영 이사장 취임과 '소통하는 투명한 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2015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5년 제24대 이사장 선거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제24대 조합 이사장에 곽기영 보국전기공업 대표를 선출했다.

2015년 4월 2일 조합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곽기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하는 투명한 조합'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다음과 같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2015.04.02
곽기영 제24대 이사장 취임식

1. 모두 함께 가는 조합: 소통을 잘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함께 뛰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겠다.
2. 모두가 필요로 하는 조합: 컨설팅기구 운영과 전문기관을 활용해 조합원사의 기술을 지원하고 영세 조합원사의 관수와 민수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
3. 모두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조합: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품질인증 브랜드의 수준을 강화해 조합의 인지도를 높이고 단체수의계약을 보완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발굴, 먹거리를 창출하고 조합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해 조합원사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다.

협동조합 중 국내 최초 부설 전기기술연구소 설립과 기술위원회 설치

조합은 2015년 7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합 직제를 기존 1본부 3팀에서 4본부 6팀 1소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승인했다. 특히 이 개편에는 조합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연구본부와 기술연구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이사회 의결을 바탕으로 조합은 2015년 8월 전기공업제품 수요기업의 다양화와 글로벌화로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기술연구소를 새로 조직, 가동에 들어갔다. 협동조합 중 부설 전기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었다. 전기기술연구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전기기술의 사업화 및 보급 확산
2.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간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공동 개발
3. 산·학과 연계하여 수요업체가 요구하는 효율적인 신기술 개발
4 조합원들의 현장기술지도와 기술진에 대한 교육 강화
5. 조합원들의 기술개발 애로 요인과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조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연구 및 대정부 건의 등에 활용

아울러 조합은 기존 실험 장비 활용을 극대화하고 유사 연구소 등과 연계시켜 조합원의 위탁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2015년 곽기영 이사장을 선출한 조합은 전기기술연구소와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에 유보금 설정 관행의 직권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했다.

2015.07.21
조합 직제를 개정한
2015년도 제3차 이사회

2016.02.16
기술위원회 설치 운영을 결의한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한편 전기기술연구소는 8월 20일자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설립 인정을 받았다. 조합은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백승도 전 한국전력 본부장을 영입했으며, 조합의 기능을 공동구·판매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연구 분야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이어 2016년 2월 16일 이사회에서는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를 위한 상호협조 등을 통해 전기공업 분야 및 조합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합 내 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기술적 소양을 갖춘 조합원사 대표'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술위원회 산하 품목별 기술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조합 업무 활성화를 위한 미래발전위원회와 조합 및 업계 발전을 위한 기획정책위원회 운영

조합은 2016년 6월 14일 이사회에서 조합의 발전 방향과 조합원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발굴해 제안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8월 6일 조합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위원장에 선임된 성대흥 ㈜삼호중전기 대표이사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운영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곽기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조합원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성대흥 위원장은 “각자 회사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좋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임된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삼호중전기 성대흥(위원장)
- ㈜신성이엔티 허훤
- ㈜맵스 진효천
- ㈜화정산전 신유철
- ㈜삼성파워텍 박봉서
- 동아전기㈜ 신상균
- ㈜이천엔지니어링 심상민
- 신호유화㈜ 남인희
- 이앤에이치㈜ 박대전
- ㈜파세텍 이태호

미래발전위원회는 설치 후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에 업무 개선을 포함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사업을 검토·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15개 지역으로 운영하던 지역별협의회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동(구리) 등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과 태양광발전장치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홍보하는 방안, 그리고 배전반 제품시험을 형식시험과 인도시험으로 구분하여 인증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였다.
제1기 미래발전위원회는 2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제2기 미래발전위원회가 2018년 12월 20일 재구성되어 이상헌 코스모전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이상헌 위원장은 “2기 미래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우리만의 생각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귀를 열겠다”며 “원로들과 젊은 CEO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2019년 7월 12일 조합 이사회는 미래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같은 해 10월 16일 설치된 기획정책위원회는 위원장에 제1기 미래발전위원장이었던 성대흥 ㈜삼호중전기 대표이사를 위촉하고 박은수 조합 경영본부장이 간사를 맡아 다음 위원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다.

- ㈜삼호중전기 성대흥(위원장)
- 협화전기공업㈜ 정재현
- ㈜삼성기전 임무종
- ㈜디지털파워 이태호
- ㈜에코스 배윤호
- ㈜이화일렉콤 이정상
- 오성기전㈜ 문성환
- ㈜이테크 윤광진
- 대진전기㈜ 임채현
- 대원계전㈜ 안태영

기획정책위원회는 미래발전위원회를 계승하되 보다 큰 틀에서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1차례의 회의를 열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위원회는 배전반 견적프로그램을 조달청과 협의하고 각종 조합 규정의 정비와 단체표준인증시험에 대한 재검토를 협의하는 등 각 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특히 이사장 선거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에 수행하던 기술과제 내역을 재조사하는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협의하였다.
제1기 기획정책위원회는 2년여 동안의 활발한 활동 후 임기가 만료되어 제2기 기획정책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위원장을 비롯한 1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고려해 재위촉하여 현재까지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8.12.20
조합미래발전위원회 회의
•
2021.06.08
기획정책위원회 회의
•

8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오랜 노력과 국내 최초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실시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오랜 노력도 지속했다.

2015년 5월 15일 제27회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건의한 15건의 안건 중에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11건에 달했으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도 집중 부각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합은 "대기업들이 전기공사나 전문건설업종에 있는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관행적으로 유보금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보금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문제에 대해 원사업자가 일련의 보장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원사업자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지급할 돈을 유보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은 "대기업은 유보금을 5~10% 설정하고 전체공사가 끝나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5년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장은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금액 제한 없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을 추천하고, 추천기업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제도였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 객관적으로 기술 및 품질향상 노력이 인정된 협업, 공동상표, 특허권 공유, 공동기술혁신촉진사업, 단체표준인증 등 5가지로 한정했으며, 특히 특허권으로 참여하는 경우 특허 전용 실시권을 조합에 양도해야 하며, 해당 특허에 3개사 이상 통상실시권으로 그룹지어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조합은 2015년 9월 4일 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본격 실시했다. '소기업 우선구매'란 소기업들이 입찰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소기업 생산품을 먼저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기업 범위는 2015년 당시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었다. 2016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간 매출액 120억 원 이하로 적용했다.

2015.09.11
김상규 조달청장 조합 방문 간담회

2017.03.08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조합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시장 석권으로 설 자리를 잃은 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들과 우선구매제도의 공조체계를 마련,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을 확보한 뒤 이들 기업에 일감을 배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곧바로 우선구매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작업에 착수했다.

조합은 또 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업종 그룹별로 체계를 조성한 뒤 이들 기업 간 상호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품을 수주하도록 돕고, 조달청을 비롯한 420개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발주정보는 물론 이들 공공기관으로부터 소기업들과 공동수주를 병행했다. 조합 소기업의 우선구매 대상품목은 배전반·변압기·발전기·무정전전원장치·애자·충전장치·태양광발전장치 등이었다.

이로써 연간 1,800여억 원에 달하는 조합 자체수주 물량이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 소기업들에게 생산물량을 고루 배분해줄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9월 11일 김상규 조달청장이 조합을 방문해 기술연구소를 둘러보고 배전반·태양광발전장치·무정전전원장치 등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지원 방안,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5일 조합은 경기도 광명의 KTX 광명역 회의실에서 조합원사 81개 업체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들과 우선구매제도의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을 확보할 계획임을 알리고, 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공동사업 참여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8

태양광발전장치 적격조합 지정과 단체 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

태양광발전장치는 경쟁입찰 품목으로, 저가 입찰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은 정관상 사업품목으로 규정하고, 적정가격으로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및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 받았다. 또 조합은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2015년 3월 중소기업청에 적격조합지정 신청을 한 결과 5월 15일부터 3년간 적격조합으로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다양한 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조합은 같은 해 8월 26일 500kW 이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해 단체표준 저작권 등록을 마침으로써 관련 사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했다.

조합은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한 단체 표준화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표준 태양광발전장치 개발' 과제를 신청했다. 그 결과 2016년 1월 2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평가 점수 77.5점을 받아 다음의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 인증을 받았다.

1. 기술개발과정 적정성

- 모니터링 측정항목에 대한 화면구성 과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재료, 외함의 두께 등의 접속반 표준규격화 기술 과정이 잘 나타남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회원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안이 제안되어 기술개발이 적정하게 수행됨

조합은 태양광발전장치를 정관의 사업품목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및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단체표준 저작권을 등록하고 표준태양광발전장치 개발 과제를 진행했다.

2. 기술개발 결과물의 성능/시험평가 적정성 및 객관성

- 제안된 단체표준이 표준협회에서 심의 등록되었고, 접속반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결과물의 성능과 시험평가의 적정성이 입증됨

3.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목표 달성도

- 제안된 단체표준이 표준협회에 등록되었고, 저작권이 확보되고, 배전반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가 제시되어 최종목표는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4.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협회 자체로 100여 개 이상의 관련 분야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 태양광 장치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저가 국외제품과 차별화에 큰 효과가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기술 표준화에 따른 전문관리와 발전산업단지의 운영 및 관리 분야에 사업화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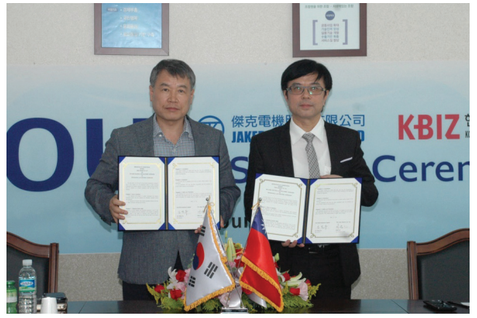
8

스위치 타입 보호장치 국산화의 길

조합은 2016년 6월 16일,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지상변압기 핵심부품인 스위치 타입 보호장치(Switch Type Protector, 이하 STP)의 국산화 개발 관련 MOU를 체결했다. 대만 제이커 일렉트릭과의 STP 기술 및 산업협력 MOU 체결을 통해 조합은 제이커 일렉트릭의 국내 진출 협력을, 제이커 일렉트릭은 조합의 STP 개발과 관련 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STP는 2차 측의 단락과 같은 과부하로 인한 과전류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이자 변압기 내부에 설치되어 부하전류, 고장전류 등을 차단하는 보호장치로, 그동안 해외 특정 기업 제품이 국내에 유통해왔다. 국산화 개발 관련 MOU 체결에 따라 국산화 개발로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변압기 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조합은 MOU 체결에 이어 변압기 기술실무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이커 일렉트릭의 STP와 변압기 관련 부품들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열었다.

2016.06.16
스위치 타입 보호장치 국산화 개발 관련 MOU 체결



02 조합원이 주인인 조합, 모두가 함께 하는 미래

조합의 가치 제고와 조합원의 이익 확대

다시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선 회원 수, 그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소통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던 조합원 수는 2014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2015년에만 36개 기업이 새로 가입하면서 전체 조합원 수도 전년보다 8.1% 늘어난 483개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는 이후에도 이어져, 2016년 3월 조합의 조합원사는 493개에 달해 201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다. 2015년 8월 단체표준(500kW 이하 태양광발전장치) 저작권 등록 등 새로운 업역에 대한 이슈들을 만들어낸 것이 관련 기업들을 조합으로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조합은 2016년 3월 29일 조합회관 대강당에서 2015년 이후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규조합원 간담회를 열어 조합현황 및 주요 사업 설명과 함께 조합원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담화시간을 가졌다. 이어 조직의 근간인 조합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강화에 나서, 2016년 5월 11일부터 경기북부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22일 경기남부지역 간담회까지 총 15개 지역별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6년 5월 21일에는 조합 창립 54주년 및 전기공업인산악회 산행 300회 기념으로 서울 관악산 등반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2016.03.29
신규조합원 간담회 개최

2016.06.22
경기남부지역 간담회 개최

‘KAS-V 체크마크’의 신뢰성 제고와 인증업무 확대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는 2002년 설립된 한국제품인정기구로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IAF)에 가입된 PAC(아시아태평양 인정기구협의체) 정회원이며 국내에 16개의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KAS 인정은 국제적인 기준(KS Q ISO/IEC17065)에 의한 인정으로서 인증기관의 운영이 일관적이고 신뢰성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조화로운 표준의 적용(Harmonise application of standards), 상호인정의 기본(Basis of mutual recognition),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확보(Confidence in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를 두루 갖추었음을 인증받는 것이었다.

KAS가 공인하는 ‘KAS-V 체크마크’ 제품 인증과

2017.02.24
한국전기안전공사와
KAS-V체크마크 인증 이전 업무협약 체결

관련, 조합은 2015년 4월 3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다음과 같이 그 공평성 보장을 선언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제품인증본부는 제품 인증업무를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증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인증업무를 공평하게 수행한다.
2. 우리는 인증업무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리스크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인증기관의 활동, 인증기관의 관계 또는 인증기관 직원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포함한다.
4. 우리는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해당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공평성 보장 메커니즘).
5. 인증본부의 최고 경영진은 공평성을 보장한다.
6. 인증본부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외부자원 포함) 다음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 인증 제품의 설계자·제조자·설치자·분배자 또는 관리자
   · 의뢰자에게 자문을 제공
   · 의뢰자에게 경영시스템 자문이나 내부심사를 제공
7. 우리는 제품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 활동의 공평성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보장한다.
8.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경영진은 인증본부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검토 및 인증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9. 우리는 자문을 제공하는 특정 조직과 연계하여 의뢰자에게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10. 우리는 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인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에 2년간 참여시키지 않는다.
11. 우리는 사람, 조직 또는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평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인증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내부 또는 외부) 인원 및 위원회는 공평하게 행동한다.

이처럼 철저한 공평성 아래 조합은 2016년 11월 ㈜코브인터내셔날의 고장 구간 자동개폐기, ㈜극동파워의 전력용 변압기, ㈜중원의 고장 구간 자동개폐기에 대한 KAS-V 체크마크 제품인증을 수행하는 조합원사의 국제적 기준 인증을 더욱 확대했다.

한편 정부 시책에 의해 2017년 6월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KAS-V 체크마크 인증업무가 중단되기에 앞서 같은 해 2월 24일 조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인증 이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5~2022년 KAS-V 체크마크 인증 업체 현황

번호	인증번호	인증업체	대표자	인증유효기간
1	KAS-KEMC 2012-005(Rev.2)	유호전기공업㈜	유인창	2018.12.27~2021.12.26
2	KAS-KEMC 2102-006(Rev.2)	유호전기공업㈜	유인창	2018.12.27~2021.12.26
3	KAS-KEMC 2012-007(Rev.2)	유호전기공업㈜	유인창	2018.12.27~2021.12.26
4	KAS-KEMC 2013-005(Rev.3)	㈜베스텍	장세용	2019.04.26~2022.04.25
5	KAS-KEMC 2013-006(Rev.3)	㈜베스텍	장세용	2019.04.26~2022.04.25
6	KAS-KEMC 2013-007(Rev.3)	㈜베스텍	장세용	2019.04.26~2022.04.25
7	KAS-KEMC 2013-008(Rev.3)	IS산전㈜	이원록	2019.04.26~2022.04.25
8	KAS-KEMC 2013-009(Rev.3)	IS산전㈜	이원록	2019.04.26~2022.04.25
9	KAS-KEMC 2013-010(Rev.3)	IS산전㈜	이원록	2019.04.26~2022.04.25
10	KAS-KEMC 2013-011(Rev.2)	한국산전㈜	이현곤	2019.04.26~2022.04.25
11	KAS-KEMC 2013-012(Rev.2)	한국산전㈜	이현곤	2019.04.26~2022.04.25
12	KAS-KEMC 2013-013(Rev.2)	한국산전㈜	이현곤	2019.04.26~2022.04.25
13	KAS-KEMC 2013-020(Rev.4)	㈜광명전기	이재광	2019.07.02~2022.07.01
14	KAS-KEMC 2013-030(Rev.3)	보령기전㈜	최명순	2019.10.08~2022.10.07
15	KAS-KEMC 2013-031(Rev.3)	보령기전㈜	최명순	2019.10.08~2022.10.07
16	KAS-KEMC 2013-032(Rev.3)	보령기전㈜	최명순	2019.10.08~2022.10.07
17	KAS-KEMC 2013-033(Rev.4)	세종전기공업㈜	김세은	2019.10.15~2022.10.14
18	KAS-KEMC 2013-035(Rev.4)	세종전기공업㈜	김세은	2019.10.15~2022.10.14
19	KAS-KEMC 2013-036(Rev.4)	세종전기공업㈜	김세은	2019.10.15~2022.10.14
20	KAS-KEMC 2013-040(Rev.4)	㈜주왕산업	나윤경	2019.10.15~2022.10.14
21	KAS-KEMC 2013-041(Rev.4)	㈜주왕산업	나윤경	2019.10.15~2022.10.14
22	KAS-KEMC 2013-042(Rev.4)	㈜주왕산업	나윤경	2019.10.15~2022.10.14
23	KAS-KEMC 2013-047(Rev.4)	㈜지엔씨에너지	안병철	2021.07.29~2022.12.08
24	KAS-KEMC 2013-048(Rev.4)	㈜천일일렉트릭	강창석	2019.12.16~2022.12.15
25	KAS-KEMC 2014-018(Rev.4)	㈜경북전기	박종록	2020.11.18~2023.11.17
26	KAS-KEMC 2014-019(Rev.3)	㈜만해전기	주용성	2020.11.18~2023.11.17
27	KAS-KEMC 2014-021(Rev.3)	㈜코브인터내셔날	정연동	2020.11.27~2023.11.26

번호	인증번호	인증업체	대표자	인증유효기간
28	KAS-KEMC 2014-026(Rev.4)	㈜디투엔니지어링	김낙경	2021.05.25~2023.12.02
29	KAS-KEMC 2015-005(Rev.6)	㈜코브인터내셔날	정연동	2021.07.28~2024.07.27
30	KAS-KEMC 2015-006(Rev.6)	대진전기	조규삼	2021.07.30~2024.07.29
31	KAS-KEMC 2015-012(Rev.4)	태성중전기	하성복	2021.08.21~2024.08.20
32	KAS-KEMC 2015-013(Rev.4)	(유)티엠에스(TMS)	곽환영	2019.05.08~2021.10.14
33	KAS-KEMC 2015-015(Rev.3)	한성중전기기공업㈜	김진락	2018.10.27~2021.10.26
34	KAS-KEMC 2015-016(Rev.3)	한성중전기기공업㈜	김진락	2018.10.27~2021.10.26
35	KAS-KEMC 2015-017(Rev.3)	한성중전기기공업㈜	김진락	2018.10.27~2021.10.26
36	KAS-KEMC 2015-019(Rev.2)	KP중전기	민병천	2018.12.30~2021.12.29
37	KAS-KEMC 2016-001(Rev.4)	㈜디투엔지니어링	김낙경	2021.05.25~2022.06.12
38	KAS-KEMC 2016-002(Rev.1)	㈜코브인터내셔날	정연동	2019.11.11~2022.11.10
39	KAS-KEMC 2016-003(Rev.1)	㈜극동파워	최인희	2019.11.15~2022.11.14
40	KAS-KEMC 2016-004(Rev.1)	중원㈜	노태균	2019.12.01~2022.11.30
41	KAS-KEMC 2017-001(Rev.1)	㈜일진중전기	박강구	2020.06.12~2023.06.11
42	KAS-KEMC 2017-002(Rev.1)	대진전기	조규삼	2020.09.07~2023.09.06
43	KAS-KEMC 2018-001(Rev.3)	㈜경신기업	박용경	2021.02.19~2024.02.18
44	KAS-KEMC 2017-003(Rev.1)	구주기술㈜	최재림	2020.11.01~2023.10.31
45	KAS-KEMC 2018-003(Rev.2)	구주기술㈜	최재림	2021.03.27~2024.03.26
46	KAS-KEMC 2018-004(Rev.2)	구주기술㈜	최재림	2021.03.27~2024.03.26
47	KAS-KEMC 2018-005(Rev.2)	구주기술㈜	최재림	2021.03.27~2024.03.26
48	KAS-KEMC 2018-006(Rev.2)	구주기술㈜	최재림	2021.03.27~2024.03.26
49	KAS-KEMC 2018-007(Rev.2)	구주기술㈜	최재림	2021.03.27~2024.03.26
50	KAS-KEMC 2018-008(Rev.2)	㈜대우중전기	최현희	2021.05.10~2024.05.09
51	KAS-KEMC 2018-006(Rev.2)	㈜삼원전기	김원태	2021.10.08~2024.10.07
52	KAS-KEMC 2018-010(Rev.0)	㈜코브인터내셔날	정연동	2018.12.05~2021.12.04
53	KAS-KEMC 2018-011(Rev.0)	㈜코브인터내셔날	정연동	2018.12.05~2021.12.04
54	KAS-KEMC 2019-001(Rev.2)	㈜에스앤에스	정영옥	2021.09.27~2022.01.27
55	KAS-KEMC 2019-002(Rev.1)	㈜멀티	황진아	2020.07.06~2022.03.31
56	KAS-KEMC 2020-006(Rev.0)	보성파워텍㈜	임재황	2020.09.03~2022.09.02
57	KAS-KEMC 2019-005(Rev.0)	경동중전기㈜	윤상봉	2019.07.26~2022.07.25
58	KAS-KEMC 2019-006(Rev.1)	㈜에스앤에스	정영옥	2021.09.27~2022.10.31
59	KAS-KEMC 2019-007(Rev.1)	㈜에스엠텍	전태원	2020.12.22~2022.11.17
60	KAS-KEMC 2019-010(Rev.1)	㈜에스앤에스	정영옥	2021.09.27~2022.11.24
61	[인증정지] KAS-KEMC 2020-003(Rev.1)	㈜한국이알이시	이성욱	2020.06.16~2023.06.15
62	[인증정지] KAS-KEMC 2020-001(Rev.0)	㈜한국이알이시	이성욱	2020.06.08~2023.06.07

번호	인증번호	인증업체	대표자	인증유효기간
63	KAS-KEMC 2020-002(Rev.1)	㈜한국이알이시	이성욱	2021.06.01~2023.06.07
64	KAS-KEMC 2020-004(Rev.1)	㈜디투엔지니어링	김낙경	2021.05.25~2023.06.23
65	KAS-KEMC 2020-005(Rev.0)	㈜리폼테크	김영주	2020.07.23~2023.07.22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효율적 활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업의 '조합원 자격' 추가

조합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의 충격을 극복해 나갔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업을 조합원 자격에 포함하고 공동구매, 공동판매 사업 등을 확대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딛기 위해 조합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능·품질이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관련 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판로지원 제도였다. 단체수의계약제도 존폐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불거졌던 담합이나 불량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였다.

조합의 지원을 통해 2016년 5월 9일 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 제품이 조달청에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신청했으며, 물품 평가 및 법인 평가를 통과하여 22개 조합원사가 지정되었다.

조합은 2017년 2월 23일 조합회관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자격'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이미 2016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 ESS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공식 신청한 바 있었다.

이 정관 개정은 ESS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비해 관련 제조업체를 신규 조합원사로 유치하고, 관련 시장을 신규 업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조합은 적극적인 판로지원과 조합원 범위 확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2015년에 이어 2016년까지 2년 연속으로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2017.02.23
제55차 정기총회 개최

배당을 실시했다. 특히 조합원사는 2017년 초 520여 개사로 늘어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조합은 이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합원사의 안정과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조합이 2016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공식 신청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총 212개 제품이 2019년 1월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선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2월 5일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처럼 의결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당시 지정 품목 중 논란을 빚었던 ESS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되었다. ESS의 경우 전력변환장치(PCS) 용량이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했다.

> 조합이 신청한 중전기기 업종 212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선정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조합원사 임직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 획득

조합은 2018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KSQA)으로부터 '2018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이란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인증받는 제도다. 조합은 중전기기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국

2019.04.15
배전반 설계 1차 교육 실시

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중전기기 기술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해마다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 현장성을 강화한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조합은 조합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회원사 임직원에게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중전기기 설계 교육과정', '전기에너지 혁신 및 직무능력 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합원사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모바일 조합원 수첩

모바일 조합원 수첩 발급과 조직 효율성 및 대내외 서비스 제고

지속되는 조합원 수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조합은 2017년 10월 조합원 수첩을 온라인화했다. 조합원사 간 친목 도모와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2년 주기로 만든 조합원 수첩은 수시로 변경되는 조합원사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위험이 있었다. 이에 조합은 스마트폰에 설치해 활용할 수 있는 e수첩을 개발, 휴대성과 편리성을 강화했으며, 연 4회(분기 1회) 수정을 통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처럼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은 2018년 5월 11일 이사회에서 기술연구소 폐소에 따른 3개 본부로의 직제규정 개정 등 조직 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로써 기존 인력개발업무와 해외진흥업무는 경영본부로, 연구개발업무는 제품인증본부로 각각 이관되었다. 또 조합원사에게 더욱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 사업자금 대출 금리를 금융기관보다 저렴하게 인하하기도 했다.

조합은 대외협력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3월 2일에는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과 '물적·인적 교류를 통한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조합과 충북도립대학은 이후 산학협력 위원회 구성 및 참여, 상호 시설 및 장비 교류, 온·오프라인을 통한 협력활동, 산학협동 교육

실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 활성화,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학생 특강·취업·현장 실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했다.
또 조합은 2019년 4월 4일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관련하여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모금 운동을 펼쳤으며, 모금 운동으로 마련된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였다.
2020년 9월 24일에는 품질경영 인증시스템(ISO) 인증기관인 엔트리인증원 및 에이케이인증원과 '조합원사의 ISO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원사의 80%가 ISO 인증을 가지고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인증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은 인증 분야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ISO 업무협약 체결로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신뢰성 및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비용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2020.09.24
엔트리인증원 및 에이케이인증원과
조합원사 ISO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술을 배우고 도입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역사 반세기와 60주년의 미래

국제화의 첫 무대, 일본과의 오랜 인연

조합의 국제화는 1968년 6월 일본 시장이 실질적 첫 무대였다. 이때 기술 정보 교환과 기술 도입을 위해 도쿄 전기공업회관에서 사단법인 일본전기공업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조합 차원의 본격적인 선진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과 조합의 무대는 이미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확대되었다. 단지 지역 확장이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도입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최초의 국제화 무대였던 일본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그 역사를 함께 했다. 조합은 2015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일본 시스템컨트롤 박람회(SCF)’에 참가, 5개사가 한국관으로 참여하여 상담액 16만 달러, 계약 의향액 41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이 박람회는 IoT(사물인터넷)를 주제로 하여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전파하고 미래를 위한 생산기술혁신’을 테마로 일본 260개 업체가 참여하고 4만 9,261명이 참관했으며, 계측기 산업과 산업로봇 전시회와 함께 개최되어 IoT 기술을 접목한 일본 기업들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어 2017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사 38개사 63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이 일본 최대 전기설비 전시회인 전설공업전(JECA FAIR)을 관람하고 일본의 중견 중전기기 기업을 찾아 생산라인과 고객센터를 둘러보았다.

이어 같은 해 11월 29일 3일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한 ‘시스템컨트롤 박람회(SCF) 2017’에 참가했으며, 조합원사 7개사로 구성된 참가단이 상

2015.12.02~04
일본 시스템컨트롤 박람회 참가

2017.05.18
일본 중전기기 기업 메이덴샤 공장 방문

담액 44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에도 조합은 거대 전력시장인 일본에서 새로운 기술 동향 및 전력 분야의 기술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전설공업전에 참가했으며, 공장 견학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 흐름을 이해하고 일본 시장의 새로운 기술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글로벌 무대 확장의 중요한 기회의 땅,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은 업계 수출 무대 확장의 중요한 기회의 땅이었다.

조합은 오랜 현지 진출 역사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1일 태국 방콕 IMPACT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발전설비, 전력산업 및 에너지 부분 전시회 ‘POWERGEN ASIA 2015’에 참가하여 현장상담액 5,700만 달러, 계약추진액 5,200만 달러, 향후 계약가능액 1,500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전기·전력·신재생에너지 전시회 2015에 참가, 현장상담액 4,500만 달러, 현장계약액 11만 2,000달러, 향후 계약가능액 3,200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후 동남아시아와 중동 각지를 대상으로 한 활동 내역과 성과는 다음과 같았다.

동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활동 성과 (단위: 만 달러)

일시	장소	전시회	상담액	현장 계약액	향후 계약 가능액/기타
2016.09.14.~16	베트남 호치민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제6회 베트남 전기전력산업 전시회	796	29.4	-
2016.09.20.~22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아시아 파워위크 2016 - 파워젠 아시아 전시회 15.839	17	390	-
2016.10.13.~15	미얀마 양곤 Myanmar Event Park	제4회 미얀마 전기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전시회	541	-	326
2017.03.15.~1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컨벤션센터	전기전력,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2017	1,800	-	870
2017.07.19.~20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릭소스 호텔	2017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수출촉진회	-	8,400	-
2017.09.06.~0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전시장	전기전력,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2017	928	-	-
2017.10.12.~14	미얀마 양곤 Event Park	전기전력,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2017	366	-	-
2018.07.17.~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전기전력, 엔지니어링 및 기계산업 전시회 2018	1,500	1	500

2015.09.16~19
인도네시아 전기·전력·신재생에너지 전시회 2015 참가

2020.03.03~05
2020 두바이 중동 에너지 전시회 한국관 참가

일시	장소	전시회	상담액	현장 계약액	향후 계약 가능액/기타
2018.09.12.~14	베트남 호치민 SECC(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베트남 송배전 및 전기설비 전시회	2,139	-	165개 바이어 발굴
2018.10.11.~13	미얀마 양곤 YCC(Yangon Convention Center)	미얀마 전기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3,419	-	237개 바이어 발굴
2019.04.29.~05.0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및 라오스 비엔티안	한국의 우수 전력기자재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촉진회	2,088	-	계약 의향액 976
2019.09.11.~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전시장	인도네시아 전기전력전시회(EPRE 2019)	7,756	-	356개 바이어 발굴
2019.10.09.~11	미얀마 양곤 국제전시장	미얀마 전기전력 전시회(EPRE 2019)	수출 상담 1,946	72	290개 바이어 발굴
2019.11.27.~30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전기전력 전시회	2,906	144	302개 바이어 발굴
2016.03.01.~03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컨벤션센터	전기전력, 에너지 전시회 2016	1,400	37.5	320
2016.05.29.~06.02	요르단·이집트	중동지역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	793	-	-
2017.02.14.~16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컨벤션센터	2017 두바이 국제 전기전력 및 에너지 전시회	1,821	70	1,050
2018.03.06.~ 0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컨벤션센터	전기전력 및 에너지 전시회 2018	3,500	40	240
2018.07.09.~13	요르단·쿠웨이트	중동지역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	2,732	-	-
2019.03.05.~07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컨벤션센터	2019 두바이 전기전력 및 에너지 전시회	6,599	-	-
2020.03.03.~05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컨벤션센터	2020 두바이 중동 에너지 전시회	2,033	-	-

2015.11.26~28
미얀마 국제전기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

2019.07.30
이규상 Asia Networks Holdings 대표 자문위원 위촉

이처럼 동남아시아 시장을 확대해가는 가운데, 2015년 11월 곽기영 이사장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미얀마 폐광석 붕괴 현장에 비상 발전기와 성금을 기탁했다. 곽 이사장은 조합 방문단과 함께 미얀마 국제전기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회(26~28일) 참가를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가 미얀마에서 광산 붕괴사고로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소식을 접하고 발전기 무상 기증과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

2019년 7월 30일에는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거점국가인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모색하는 조합원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규상 Asia Networks Holdings 대표(베트남 호찌민 소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베트남 현지 진출 및 공장설립, 투자 후 내수 및 제3국 수출 등 판매 보장성, 투자금 회수성, 법률 및 인증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세계와 함께 하는 선진 조합'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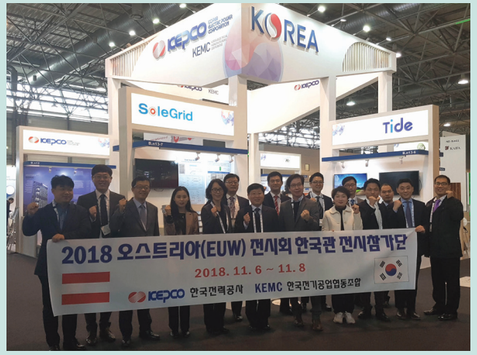
초기의 국제화 시대 이후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 머물던 조합의 글로벌 무대는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로 확대되었다. 명실공히 '세계와 함께 하는 선진 조합'의 위상을 공고히 한 것이다.

미국·유럽·아프리카 활동 성과 (단위: 만 달러)

일시	장소	전시회	상담액	현장 계약액	향후 계약 가능액/기타
2015.05.12.~14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CTICC(케이프타운 국제컨벤션센터)	아프리칸 유틸리티 위크(AUW) 2015	-	-	-
2015.06.02.~13	카자흐스탄·러시아	ELEKTRO 2015	-	-	-
2016.05.03.~05	미국 댈러스 Kay Bailey Hutchison Convention Center	IEEE PES T&D 전시회	8,977	110	계약의향액 2,390
2016.11.15.~17	스페인 바르셀로나 Fira de Barcellona	2016 유러피안 유틸리티 위크 전시회	865	-	165
2017.06.12.~16	아제르바이잔 바쿠·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년 CIS국가 수출촉진회	-	-	-
2018.04.17.~19	미국 덴버	IEEE PES 송배전전시회 2018	4,000	-	-
2018.11.06.~08	오스트리아 빈 Messe Wien Exhibition Center	오스트리아 에너지신산업 전시회(European Utility Week 2018)	13,359	-	175개 바이어 발굴
2019.09.02.~07	케냐 나이로비·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우수 전력기자재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촉진회	8,115	-	계약 의향액 4,161

2018.04.17~19
2018 IEEE 미국 송배전 전시회 참가 부스

2018.11.06~11.08
오스트리아 에너지신산업 전시회 한국관 참가



2021.10.13~16
동남아지역 화상 수출상담회

비대면 시대, 실질적인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이 같은 해외시장 개척은 2020년 초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2020년 10월 동남아지역 화상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지역별로 이틀씩 4일 일정으로 개최한 이 상담회에는 국내 기업 12개사(베트남 6개사, 말레이시아 6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업별로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 상담 건수 42건, 수출 상담액 약 170억 원(1,4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이 화상수출상담회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마케팅기법을 전환하는 수출지원 방식을 경험하고, 향후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방안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합은 중소기업의 비대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경기지역 264개사 선정 규모 중 1개사로 선정되었으며,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아 조합 2층에 중형규모의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실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의 실질적인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했으며,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화상수출상담회를 이어갔다.

2021년 온라인 수출상담회 성과 (단위: 만 달러)

일시	대상국 및 상담회	수출 상담액	계약액
2021.03.23.~04.09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화상수출상담회	2,901.5	
2021.05.04.~28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 온라인 수출상담회	11,668.6	
2021.06.07.~09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온라인 수출상담회	349.4	
2021.08.25.~09.03	베트남·라오스 온라인 수출상담회	794.3	14
2021.10.13.~16	베트남·말레이시아 화상수출상담회	1,400	

03 세상을 밝히는 풍요로운 삶의 원동력

창립 60주년과 100년의 미래

'모두가 함께 가는 조합'의 의지
_25대 곽기영 이사장 취임

"제2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2019년 3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25대 이사장에 선출된 곽기영 이사장의 일성(一聲)이었다.

이어 같은 해 6월 25일에 열린 취임식에서 곽기영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연임 각오를 밝혔다.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위한 아이템 창출을 통해 조합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탈바꿈시키고 모두가 발전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전기조합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 수 있고, 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조합을 운영하되, 무한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2016.06.25
곽기영 제25대 이사장 취임식

지난 4년간 수익 창출을 통해 조합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조합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취임에 앞서 곽기영 이사장은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활성화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년의 임기 동안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조직화, 발전방안 모색 등을 추진했으며, 제도 개선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참여방안도 강구했다.

2019년 7월 12일 열린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조합은 조직 체계를 구체화하고 직무대행 업무를 명확히 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직운영 규·정례에 부합하도록 조합 직제규정을 개정했다. 또 결재 권한 강화 및 전결권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조합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조합미래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업계 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기획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립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다

2019년 제25대 곽기영 이사장을 선출한 조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CEO 포럼을 창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조합을 만들어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전기산업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단체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조합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전기조합 2019년도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열어 조합원사 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특히 2020년은 2022년 창립 60주년을 준비하는 실질적 원년이라는 점에서 이 세미나는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강연과 공연, 문화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 된 이 행사에서 곽기영 이사장은 "글로벌 생존경쟁이 가속화되고 기술혁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급격히 다가오면서 산업과 일자리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와 국제전시회, 조합 60년사 편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러분의 공복(公僕)으로서 조합을 위해 회원사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은 강연에서 "수축경제시대를 맞아 전기기기산업은 협회·단체 중심의 상생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며 "전기산업 디지털화 공동플랫폼을 구축하고 경비 절감 및 신기술, 융합산업 등을 개발

2019.10.23~25
2019년도 최고경영자 세미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격차 상품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대해(大海)로 진출해야 한다"면서 "중동과 인도, 동남아시장을 중점 공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대(先代)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자" _차세대 CEO 포럼 창립

'모두가 함께 가는 조합'이라는 정신 아래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도 본격화했다.

조합은 2019년 11월 13일 조합회관에서 '경영후계(예정)자 및 2세 경영인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대교체의 축인 2세 경영인들이 업계에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으며, 특히 50여 명의 1~2세대 경영인들의 모임인 '미래 전기경영인 클럽(가칭)'을 발족했다. '미래 전기경영인 클럽'은 2세 경영인들의 화합을 위한 연결고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이 2018년부터 계획한 모임으로서, 클럽 발족 이후 조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약 1년 후인 2020년 11월 24일에는 조합 강당에서 조합원사에 재직 중인 경영후계자, 예정자 및 2세 경영인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CEO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에는 조합원사에 재직 중인 경영후계자, 예정자 및 2세 경영인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회칙과 운영방안, 학습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초대 회장 양태권 동방전기공업㈜ 대표, 부회장은 정재현 협화전기공업㈜ 대표 및 이태호 ㈜디지털파워 대표, 총무에는 안태영 대원계전㈜ 대표, 권종순 (유)영가실업 대표, 허지윤 ㈜신성이엔티 차장을 선임했다.

이날 곽기영 이사장은 "2세 경영인들의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포럼과 화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활동을 계획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태권 초대 회장은 "전기업계를 선도해 나갈 경영후계자, 2세 경영인들이 경영 승계, 상호 협력, 친선 교류를 통해 선대보다 더 훌륭한 기업인으로 성장해 전기공업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선대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2019.11.13
경영후계(예정)자 및
2세 경영인 조합원 간담회

2020.11.24
차세대 CEO 포럼 창립총회

공제조합 설립 추진과 무산

조합은 2020년 2월 12일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곧바로 3월 5일 제1차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병언 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겸 비츠로테크 부회장을 추진위원장에, 배영호 성보전기공업 대표, 양태권 동방전기공업 대표, 박정배 설악전기 대표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설립 출자금 규모와 사업성, 구체적인 추진 절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법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1962년 설립되어 어느 단체나 기관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짐으로써 전기기기 제조업체들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공제조합 설립을 2020년 주요사업으로 삼았다.

이후 조합은 2021년 5월까지 여섯 차례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21년 3월 말 기준 조합원 120여 개사가 출자의향서를 제출해 출범 가능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2021년 6월 3일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공제조합 설립 출자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이 사안을 향후 과제로 남긴 채, "공제조합 출범에 기대를 걸고 출자의향서를 제출한 조합원사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2021.06.03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모아 극복해왔던 60년의 저력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업계는 물론 전 국민이 고통에 휩싸였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대구지역에서 확산되자 조합은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지역 조합원사에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 대구경북협의회 총무에게 현금으로 지원했다.

그 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조합은 전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2020년 8월 전 조합원 560개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5만 6,000장을 지원했다.

2020년 연말이 다가와 가결산한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최대실적을 달성한 조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에 수수료를 납부한 121개사 조합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되돌려주었다. 또한 매년 개최하던 최고경영자세미나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개최할 수 없게 되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와 세미나 개최 비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구매한 후 전 조합원사에게 지급했다.

조합과 조합원사는 지난 60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모아 극복해왔던 저력이 있다. 따라서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이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를 굳게 믿으며, 조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와 각종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조합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먼저 조합을 방문하는 조합원사의 편의를 위해 비접촉식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의 운영을 즉각적으로 시행했으며, 창업진흥원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하여 2020년 선정된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에 사용되는 화상회의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2023년까지 전액 정부 지원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조합 인사의 공정과 운영 질서 확립 _인사위원회 개편과 윤리위원회 신설

나라 전체를 뒤흔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조합은 2020년 조합원사와 조합 임직원의 노력으로 2,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36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조합원사에 6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처음 시행한 판매장려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1.10.13
인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조합은 2021년 10월 13일 인사위원회 위원과 새롭게 설치·운영하는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인사위원회는 조합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당연직인 전기조합 신창환 전무이사가, 위원에 한광전기공업㈜ 유기현 대표이사, 삼일변압기㈜ 안용길 대표이사, 오성기전㈜ 문성환 대표이사, 전기조합 박은수 본부장, 전기조합 김익재 본부장이 각각 위촉되었다.

윤리위원회는 조합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조합의 화합과 위상을 제고하여 전기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치했다. 위원장에 진영전기 김복식 대표가, 위원에 ㈜삼보기전 우병근 대표이사, 오셈코파워㈜ 문희봉 대표이사, 청진산전㈜ 김인호 대표이사가 각각 위촉되었다.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조합원사에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했으며, 공동사업 확대를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창립 60주년, 새로운 도약의 터닝포인트

2022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창립 60주년의 해가 밝았다.

조합은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 1월 6일 분당 조합 회의실에서 '2022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임도수·양규현·원일식 전임 조합 이사장,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명예회장, 유병언 전력기기조합 이사장, 유신하 중전기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해 조합원사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곽기영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년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전기공업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경제의 성취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조합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해 2,600억 원대 매출을 기록,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이사장은 "조합 창립 60주년의 해인 만큼 새로운 도약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 곽 이사장은 "비대면과 디지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시장과 산업에 안주하기보다 신기술 융합,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조합은 60주년을 맞아 5차 산업 준비와 미래 먹거리 창출,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비전 준비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이사장은 또 조합원사와 전력산업의 활력 회복 및 재도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22.01.06
2022년 신년인사회

> "창립 60주년이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려면
> 조합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이 있어야 합니다.
> 제가 약속했던 조합원을 위한 조합, 자생력 있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은 2021년 3,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조합원사에 7년 연속 배당금도 지급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전 배전용 변압기 수주 등 공동사업 확대를 통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조합은 2022년에도 한전 변압기와 철탑, 관형지지물, 충전기, 애자 등에 대한 단가 및 총가(總價) 계약, 신규 발주 품목인 HVDC용 강관철탑 등을 일괄 수주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우수조달 공동상표 신청과 함께 애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등 2개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 외에 지역별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가 비중이 높은 원부자재 위주로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사의 경쟁력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 속에 조합은 2022년 2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계약의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 한도 설정(안) 등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곽경수 비케이에이치산전 대표와 유기현 한광전기공업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김영종 대농산업전기 대표와 김복환 세종전기공업 대표가 조달청장 표창을 받는 등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8

60년의 부단한 열정과 성취의 여정
_100년의 미래를 향해 다시 시작하다

2022년 5월 21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역사적인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경복궁 내 건천궁에 최초로 점등을 한 날인 1887년 3월 6일로부터 135년이 되는 해였다.

우리나라 전기의 역사가 시작된 지 75년 만인 1962년 5월 21일 설립한 이래 조합은 지난 60년 동안 국내 전기공업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상호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협동사업 및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지금, 비대면과 디지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조합은 기존 시장과 산업에 안주하기보다 신기술 융합 등 기술개발을 통해 5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창립 6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다.

지난 60년의 부단한 열정과 성취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대한민국에 빛을 밝히고 모든 국민의 꿈을 환히 비추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항해였다. 조합이 밝힌 등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꿈이 영글고, 그 너머 새로운 희망의 미래가 환히 밝혀졌다. 그리고 그 여정과 항해는 이제 또 다른 100년의 미래를 향해 다시 시작되고 있다.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국내 전기공업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상호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온
지난 역사 위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22.02.24
제60차 정기총회

KEMC Episode #07

“소통이 만병통치약”
: 서로가 마음으로 다가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곽기영 이사장은 2015년 4월 취임해 조합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현재까지 제24·25대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단체표준을 확충하고 공동사업을 확대하며 정부와 한전 등에 조합원사와 전기공업계가 발전할 방안을 제안하며 우리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중에도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였다.

곽 이사장은 취임 전 이사장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회원사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청취했고, 이를 통해 회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기업에서 소통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기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소통임을 강조하는 말인데, 회원사와 조합 간에도 그동안 소통 부재로 인해 많은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물론 그 불만의 바탕에는 공동판매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회원사들이 적지 않은 연회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조합 직원들에게 받아야 할 서비스의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사의 입장에서는 임원사조차도 1년에 한 번 조합을 방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하루빨리 조합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즉, 원활한 소통으로 명실상부 전기업계 최고의 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경주하고자 했다.

곽 이사장은 취임 후 전국을 누비며 몸소 현장을 체험하고 회원사의 애로를 직접 챙기겠다는 소신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충북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기남부, 전북, 대전·충남, 경기서부, 대구·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강원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조합원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챙겼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역별협의회를 구성하며 조합원사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별협의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2015년부터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곽 이사장은 메르스 여파가 한창이던 때에도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별협의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사업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소통’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기존 조합원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한 조합원사들도 잊지 않았다. 신규 조합원 간담회는 곽 이사장이 최초로 시행한 소통의 장이었다. 이 자리는 조합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부서별 업무를 소개하여 신규 조합원사가 적극 조합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조합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조합과 신규 조합원이 소통하고자 개최한 행사였다. 신규조합원 간담회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2016~2019년과 2021년 개최되었다.

조합원 조찬간담회 역시 곽 이사장이 최초로 개최했다. 기존에 열려왔던 최고경영자 세미나와는 별도로 조합원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조찬을 겸하여 간담회를 가지는 형식이다. 2019년 10월 1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거시경제 전문가인 곽수종 박사를 초청해 '2020년 후 세계 및 한국경제 향방'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동향에 따라 국내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로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참석한 CEO들의 만족도를 끌어냈다. 2021년 4월 28일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알아보고 사업주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김영규 변호사를 초청해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연을 실시했다.

그밖에도 곽 이사장은 조합 최초로 조합원 골프대회 행사를 2019년부터 매년 정례화했다. 이전에는 산발적으로 개최했던 골프대회를 정례화한 것으로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조합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조합원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곽 이사장은 2015년 기존 조직체계를 본부체제로 전환하고 기술연구소를 신설했으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사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힘썼다. 특히 2015년 8월 설립한 기술연구소는 공동구매와 판매에 치우쳐 있던 조합의 역할을 기술개발 영역으로 확대하고, 회원사들의 기술혁신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 단위 협동조합이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전기조합이 최초였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감사와 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발목을 잡으면서 아쉽게도 2018년 5월 폐소되었다.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조합은 세계적인 전기화(Electrification)의 추세로 배터리, 모터, 발전기 등 전기기기산업의 성장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분야 등에서 보증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관련 기업의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 전기기기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제조합 출자는 이사들의 전폭적 지지와 호응이 필요한 만큼 이사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곽 이사장의 소신과 약속에 따라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설립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합 안과 밖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곽 이사장은 '모두가 함께 가고, 모두가 필요로 하고, 모두가 발전·성장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조합 안팎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사무국에 조합 단체표준을 제1호로 등록했다. 또 2015년 8월 500kW 이하 태양광발전장치 표준(SPS-KEMC 2109-6278)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한 뒤 2016년 6월 첫 번째 인증업체를 배출했으며, 2020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단체표준을 확충했다.

공동사업 확대에도 큰 결실을 거두었다. 공동판매사업에서는 2018년 4월 애자 공동판매 사업과 6월 철탑·관형지지물 공동판매 사업 시행으로 한전 입찰에 참가해 수주했으며, 2020년 7월에는 전기차충전장치 공동판매 사업 시행으로 한전 입찰에 참가해 수주에 성공했다. 공동구매사업의 경우 2016년 7월 국내 디젤엔진 공급사와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해 발전기에 필요한 디젤엔진을 공동구매함으로써 발전기 업체들에게 고품질 엔진을 공급할 수 있었으며, 업체들은 발전기 제조원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엔진 가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나주로 이전하면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된 나주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변압기 제한경쟁입찰도 조합이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한전에 등록된 변압기 유자격 조합원사 전부에게 위임받아 매년 실시하는 변압기 연간 단가계약은 변압기 업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조합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간혹 한두 조합원사가 조합 컨소시엄 유지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곽 이사장은 조합 컨소시엄을 유지함으로써 조합원사들이 얻게 될 공동의 권익을 근거로 조합원들을 설득하며 위기를 극복해나갔다.

이렇게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일련의 노력은 조합이 계속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 곽 이사장 재임 기간 내내 흑자 조합이라는 성과로 나타나 조합원사에게 매년 배당을 할 수 있었다. 특히 2018년에는 최초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조합 역사상 최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곽 이사장이 강조하고 실천해온 소통의 힘은 조합과 조합원사, 그리고 조합원사 상호 간에서만 발휘된 것은 아니었다. 전기공업계를 대변하는 조합의 대표로서 정부나 한전,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외에 전기공업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곽 이사장은 2016년 6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설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외특허·브랜드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역량을 높이고, 현장과 업종 중심의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또 2017년 2월 2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에 선출되어 중앙회 내에서 전기공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수 있었다. 2017년 4월 11일에는 제2기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위촉되어 조합들의 활력 회복과 구조 개선 관련 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활성화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공공구매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곽 이사장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조직화·발전방안 모색 등을 추진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한계에 부딪친 현실에서 곽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호소하고,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한도가 확대된 만큼 이를 많이 활용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2021년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모금된 전기기업인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쌀을 성남시청에 전달하였으며, 곧 이 위기를 딛고 우리 모두 환한 희망의 길로 가리라 확신했다.

KEMC Episode #08

반전에 반전, 선거로 본 조합 역사

조합은 창립 이래 각 시대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초대 장병찬 이사장이 조합의 토대를 닦았다면, 제7~10대 이사장을 역임한 양재권 이사장은 향후 조합이 도약하는 발판을 튼튼하게 닦았다. 특히 양재권 이사장이 한전의 변압기 일부 물량을 조합이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후 전기조합의 공동판매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

이후 임도수 이사장 시기에 공동판매 물량이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병설 이사장 시기까지 약 15년간 전기조합은 가장 풍요한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임도수 이사장 취임 초기 1,400억 원에 달하던 공동판매 실적은 1993년 2,300억 원을 돌파하고 이용희 이사장 시기인 1995년에는 3,100억 원까지 늘어났으며, 이병설 이사장 시기인 2000년대 초에는 무려 4,000억 원을 돌파하며 그야말로 호시절을 구가했다.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는 전통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특히 제14대 이사장 선거부터 두드러졌다. 제14대 이사장 선거는 임도수 후보(당시 보성물산 대표)와 김명준 후보(당시 명광전기 대표), 부산의 남치호 후보(당시 서흥화학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당초의 조합 주류의 지원을 받던 김명준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김명준 후보는 당시 이용희 조합 전무가 전면에 나서 지원함으로써 임도수 후보와 이용희 전무의 대리전이라는 이야기가 조합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돌기까지 했다.

하지만 선거 양상은 점점 팽팽해졌고, 급기야 임도수 후보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선거 당일 당초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임도수 후보의 득표가 200표를 조금 넘어서 김명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앞서 당선된 것이다. 이는 전기조합 역사상 비주류가 전통의 주류를 넘어서는 최초의 결과로 기록되었다.

당시의 조합원들은 유권자의 밑바닥을 일일이 훑는 임도수 후보의 열성이 조합원들에게 와 닿았다고 회고한다. 특히 조합원에게 많은 선물이 오갔던 상황에서 임도수 후보가 조합원 이름을 일일이 새겨 개별적으로 발송한 도자기는 조합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계기 중 하나였다. 실제로 그 도자기의 열성에 마음을 열어 표를 찍었다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치열했던 선거 끝에 주류가 비주류에게 패한 결과가 가져온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임도수 이사장과 조합 집행부는 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조합원들의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 각종 동호회 활동 활성화와 원로자문회의 구성, 조합원 체육대회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에 옮겼고, 조합원 간의 갈등도 크게 해소되어 갔다.

절치부심.

지난 제14대 이사장 선거에서 김명준 후보를 지지하다 패배한 이용희 전 전무(한양전공 대표)는 다시 조합에서의 재기를 준비했다. 임도수 이사장 연임 후 치러지는 제16대 이사장 선거에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선거에서 이용희 후보는 이병균 후보(당시 동남물산 대표)를 물리치고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조직 장악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용희 이사장의 시대는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도 이사장 임기를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다.

무명에 가까웠던 이병설 아시아계전 대표가 이용희 이사장의 대항마로 제17대 이사장 선거에 나섰을 때, 많은 조합원들은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이 연출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동안 비주류로 조합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조합원들이 이병설 후보 쪽으로 모이고, 이용희 이사장 진영에서의 이탈도 상당수 일어났다.

이 선거 결과 이용희 이사장이 간발의 차로 승리한 것으로 선포됐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잘못이 발견돼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여 1999년 이사장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용희 이사장이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기세를 몰아 쥔 이병설 후보는 상대 후보들을 쉽게 누르고 당선된다. 기적을 연출한 이병설 이사장이었지만 그도 연임된 후 약속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는 못했다. 내부 갈등이 문제였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 간 다툼이 번져 조합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전체 조합원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변경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여 법원의 판단을 청구해 일부 인용되었다. 이에 이병설 이사장이 사퇴하고 제20대 이사장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병설 이사장 퇴진 문제로 조합이 떠들썩한 가운데 그 움직임의 중심에 있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양규현 한양전공 대표가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고, 박영철 일호기전 대표와의 대결 끝에 무난히 당선되었다. 하지만 조합 내 대다수 직원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등 조합의 가장 어수선한 시기를 맞은 양규현 이사장은 조합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장으로서 가장 고생 많은 시기를 보내야 했다.

제21대 이사장 선거에서는 원일식 후보(당시 원플러스 대표)가 홍백파 후보(당시 선광산전 대표), 이재복 후보(당시 제일중전기 대표)를 누르고 이사장에 당선된다. 조합 사옥을 신길동에서 분당으로 옮기는 등의 일을 단행한 원일식 이사장이지만 그 역시 회사의 사정으로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치지는 못했다. 원일식 이사장을 중심으로 뭉쳐 있던 당시 조합 주류 세력은 중도 퇴임한 원 이사장의 공백을 메워줄 인물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에게 눈길을 돌렸다.

원일식 이사장의 남은 임기를 책임질 새 이사장에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가 선출됐다. 이후 연임까지 성공했지만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두 번 연속 도전해 아깝게 낙선하여, 전기계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바람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됐다.

이재광 이사장의 뒤를 이어 곽기영 현 이사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사장 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본 조합의 역사는 그 시기마다 쉬운 과정 없이 조합원 간에 이합집산하는 굴곡진 모습을 보여왔고.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사장 선거 시기만 도래하면 팽팽하게 편이 갈라지는 현상은 장래의 조합 발전을 위해 조합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꼽을 수 있다.